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5

연구보고 09-R18-4

#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방안

책임연구원 : 김종인(나사렛대학교·교수/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

공동연구원 : 김원경(한국체육대학교·교수)

고정욱(한국일보·칼럼니스트)

오이표(국제재활스포츠센터·센터장)

연구보조원 : 정도선(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연구원)

박재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09-31-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9-31-02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장애아동·청소년 가족 지원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9-31-03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교수·학습활동 지원정책	부산대학교
09-31-04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장애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 지원방안	한국교육개발원
09-31-05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방안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09-31-06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평택대학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영균 수석연구위원 서정아 연구위원	박은혜 이화여대 교수 이상훈 가톨릭대 교수 최은영 대구대 교수 Lange, E. Bielefeld대 교수 조홍식 서울대 교수 김진우 덕성여대 교수
협력연구기관	부산대학교	박재국 교수	정대영 창원대 교수 황순영 부산대 교수 김영미 부산대 연구원 김혜리 부산대 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현 주 수석연구위원	박현옥 백석대 교수 이경숙 한신대 교수 김 민 순천향대 교수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김종인 원장	김원경 한체대 교수 고정옥 한국일보 컬럼리스트 오이표 국제재활스포츠센터 소장
	평택대학교	권선진 교수	이근매 평택대 교수 조용태 대진대 교수



# 연구 요약

## 1. 연구방법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체육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과 외국자료 및 통계자료 연구,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의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연구에는 장애아동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과 이들의 문화예술체육활동과 관련한 욕구를 파악하고 현재의 활동 현황을 분석하며, 이러한 활동에서 장애 때문에 차별받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2. 연구결과

### 1) 문헌연구결과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몇 가지 연구결과를 아래와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 ① 장애아동청소년의 장애유형 특성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우리나라의 18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은 82,177명으로, 이 중 지적장애 29,151명으로 35.5%, 자폐성 장애 23.2%로 발달장애인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 ②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이해

장애아동청소년은 발달기에 발달과업을 성취함으로써 기본적인 삶의 질을

확보할 수가 있다. 문화예술활동은 이들의 발달과업 성취를 도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전한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장애로 인하여 낮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장애정체감도 새롭게 가질 수 있다.

### ③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에는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헌법에서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까지 법으로 그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들이 권유나 임의조항에 그쳐 구체적인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단순히 욕구와 자기결정만 근거로 하는 것은 부족하며 삶의 질을 근거로 한 지원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 ④ 제 외국의 장애아동청소년정책이 주는 시사점

UN(국제 연합)의 장애인권리협약이나 세계인권선언, 장애인 권리선언을 보면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해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접근 가능한 형태의 문화적 자료나 매체의 제공, 문화 활동 장소에 접근성을 보장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와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잠재능력 발휘 및 활용 기회 보장, 장애유형별 의사소통기구 확보, 이러한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영국에서는 장애인이 자립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완전한 참여를 강조하며, 문화활동과 여가활동, 스포츠 등을 이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보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역예술위원회와 The Youth Sport위원회와 같은 하부지원체계의 확립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준다. 미국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평등’, ‘기회평등’, ‘편의증진’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Able Art를 중심으로 장애인

전문예술과 관련된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장애인의 문화 예술활동 보장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 2) 조사결과 및 제언

우리나라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 정책은 실태 및 욕구분석, 전문가의 면접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한마디로 「정책의 부재」라 하겠다. 장애인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은 이미 5개년계획 등에 반영되어 있긴 하지만 장애아동·청소년의 인구학적인 요소를 감안한 특성화된 문화예술은 정책자체가 수립되어 있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지원을 해야 할 대상이나 프로그램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체육의 욕구는 매우 높으나 정책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음에 제시하는 정책과 지원방안 수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 ① 「장애아동문화」·「장애청소년문화」등 생애주기별 문화의 개념정립 및 정책 수립

일반적으로 「아동문화」가 있고 「청소년문화」가 있다. 이 문화는 「성인문화」와도 구분된다. 장애아동·청소년과 부모에서 공히 80% 이상의 응답자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도 「장애아동문화」, 「장애청소년문화」등 생애주기별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개념정립이 요청된다.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아동·청소년의 문화가 다르며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 지체장애와 뇌성마비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문화적 특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 장애유형별 아동과 청소년문화의 개념정립과 정책수립이 요청된다.

## ② 장애유형별 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 개발·시행

장애아동·청소년의 인구학적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56% 이상이 지적장애·자폐성장애임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자폐성장애의 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 개발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또한 장애아동·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을 성장기에 맞도록 개발하는 것도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청각장애의 경우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에는 구화가 사용되지만 농인사회에는 수화가 주된 언어이며 「농문화」(Deaf culture)가 있다. 디자인이나 예술분야는 청각장애인의 삶이나 직업재활분야와도 연계성이 높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체육은 야구, 축구 등 구기종목만이 아니라 사실상 전 종목이 가능한데 「스포츠 수화」의 개발·보급이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이다.

## ③ 「장애인문화예술진흥센터」신설 등 전달체계의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문화예술체육업무를 총괄하는 장애인문화예술체육과가 마련되어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체육 전반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장애인체육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산하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부가 마련되어 있다. 물론 이곳에서도 장애아동·청소년의 체육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다. 따라서 광역지자체 지부에 장애아동·청소년 체육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실, 장애인문화예술을 관장하는 정부조직인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있지만 하위 전달체계는 없는 실정으로 장애인문화협회 등 민간단체의 활동하고 있다.

영국의 지역예술위원회와 The Youth Sport위원회, 일본의 민간단체 Able Art와 같이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하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④ 전문가 양성 및 배치

전문가 양성은 문화예술과 체육의 상이한 두 분야를 나누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아울러 장애당사자 전문가 양성과 비장애인으로써 전문가 양성  
의 두 방향 모두에서 방안을 모색하고 배치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장애인 선수양성을 명  
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양성하는 시스템은 구  
축되어 있지 않다. 문화예술분야의 체계적·전문적 교육시스템 개발과 전문  
가 자격제도 도입이 있어야겠고 장애당사자 전문가의 육성과 배치로 장애유  
형별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⑤ 법·제도의 정비 및 「정당한 편의 매뉴얼」개발·보급

문화예술진흥법에 장애아동·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  
을 명시하는 조항 신설이 요청된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의 대한  
장애인체육회설립과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한 조항에 장애아동·청소년의 체  
육진흥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 법률』에 문화향수권과 함께 체육활동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  
이 명시가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매뉴얼」  
개발·보급이 요청된다.

#### ⑥ 편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장애유형별 방안 마련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간이 필요하고 편의  
시설이 확충되어 있어야 하며 활동을 하기 위해 이동수단이 필요하며, 접근  
하기 쉬워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의 장이 있다는 정보를 장애아동·청소년  
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정당한 편의제공에 위배되는 ‘차별’이라 할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일반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데는 이동에 필요한 것과 의  
사소통에 필요한 것,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이다.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에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접근성을 높이는 보조기기나 시스템에 대한 의무설치 및 비치를 통해 장애  
아동·청소년이 통합된 문화예술활동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 방법	6
4. 연구의 제한점	9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아동청소년의 이해	13
2.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이해	24
III.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현황분석	
1. 장애인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	49
2. 장애인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정책적 현황	54
3.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체육활동 정책내용	66
4.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체육 정책의 문제점	70
5. UN(국제연합) 및 주요국가의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정책	72
IV. 조사결과분석	
1. 연구내용	95
2. 조사결과	98
3. 전문가 포커스 그룹 면접조사	150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161
2. 정책적 함의 및 제언	174

참고문헌 .....	179
부록, 설문지 .....	181

## 표 목차

<표 1> 장애아동·청소년(만6세~24세)의 인구현황 .....	15
<표 2> 일상생활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정도 .....	16
<표 3> 장애아동·청소년의 집밖 활동 시 불편여부 .....	16
<표 4> 아동·청소년기의 발달과업 .....	17
<표 5> 3~6학년 문화예술관련 활동 .....	33
<표 6> 7~10학년 문화예술관련 활동 .....	34
<표 7> 특수교육 교과과정의 체육영역 활동(3학년~6학년) .....	37
<표 8> 특수교육 교과과정의 체육영역 활동(7학년~10학년) .....	38
<표 9>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 체육에 관한 법적 근거 .....	49
<표 10> 장애인교육문화 추진과제별 성과목표 .....	55
<표 11> 장애인문화향수 기회확대정책 .....	57
<표 12> 주요문화시설의 장애인 프로그램 .....	58
<표 13> 장애인 문화접근성 지원사업 .....	59
<표 14> 장애인생활체육추진5개년계획('8~'12) .....	62
<표 15> 2009년도 장애인 문화정책 .....	66
<표 16> 장애아동·청소년용 설문내용 .....	95
<표 17> 부모용 설문내용 .....	96
<표 18> 전문가 포커스 그룹 면접조사 .....	97
<표 19> 장애아동·청소년 설문 응답자 개인 사항 .....	98
<표 20> 현재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 .....	101
<표 21> 문화예술활동의 참여형태 .....	101
<표 22> 문화예술활동을 할 때 함께 하는 사람 .....	102
<표 23> 장애유형별 지역사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기관 .....	102
<표 24> 참여경험이 있는 문화예술활동 지원프로그램 (중복응답) .....	103
<표 25> 문화예술활동의 정보제공처 .....	104
<표 26>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이유 .....	104

<표 27> 문화예술 활동 시 장애인이라서 어려운 점 .....	105
<표 28> 장애유형별 지역사회 문화예술시설 이용 시 가장 어려운 점 .....	106
<표 29> 문화예술활동 시 장애인이라서 받은 차별형태 ...	106
<표 30> 현재의 문화예술활동 만족 및 더 많은 활동 희망여부 .....	107
<표 31> 장애유형별 더 하기를 바라는 문화예술 활동 ...	108
<표 32>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	108
<표 33> 이동시 필요한 보조기구 .....	109
<표 34> 장애유형별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보조기구 .....	109
<표 35> 장애유형별 문화예술향유에 필요한 보조기구 ...	110
<표 36> 「장애아동문화», 「장애청소년문화」의 존재와 개발의 필요성 .....	111
<표 37> 장애아동청소년 생애주기별 문화지원 정책의 필요성 .....	111
<표 38> 문화예술활동 선호도 .....	112
<표 39> 문화예술활동 관련 장래희망 .....	113
<표 40> 장래에 문화예술인이 되기 위한 방법 인지여부 .....	114
<표 41> 장애유형별 체육활동 중 가장 자주 하는 활동(택2) .....	114
<표 42> 체육활동 참여형태 .....	115
<표 43> 학교체육 외의 체육활동 참여 .....	115
<표 44> 1주당 체육활동 시간 .....	116
<표 45> 체육활동 시 함께 하는 사람 .....	116
<표 46> 현재 지역사회에서 참여하고 있는 체육관련 기관 ...	117
<표 47> 체육활동을 알게 된 경위 .....	117
<표 48> 장애유형별 체육활동의 장점 .....	118
<표 49> 체육 활동 시 장애인이라서 가장 어려운 점 .....	119
<표 50> 체육활동을 할 때 장애인이라서 가장 차별받는 점 ...	120
<표 51> 지역사회 체육시설을 이용 할 때, 가장 어려운 점 ...	120
<표 52> 현재의 체육활동 만족도 .....	121

<표 53> 학교체육활동 외에 더 많은 활동 희망여부 .....	121
<표 54> 장애유형별 더 하기 원하는 체육활동 .....	122
<표 55> 장애아동 장애청소년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 정책필요성 .....	123
<표 56> 「장애아동체육」, 「장애청소년체육」 존재인지 여부 .....	123
<표 57> 「장애아동체육」, 「장애청소년체육」 개발 필요성 .....	124
<표 58> 체육활동 유형별 선호도 .....	124
<표 59> 부모응답자 일반사항 .....	126
<표 60> 자녀가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	127
<표 61> 문화예술 활동시간 .....	128
<표 62> 자녀의 문화예술활동 정보제공처 .....	128
<표 63> 자녀의 문화예술활동 참여형태 .....	129
<표 64> 자녀의 문화예술활동 장소 .....	129
<표 65> 장애자녀의 문화예술활동 시 가장 크게 고려하는 점 .....	130
<표 66> 장애자녀의 문화예술활동을 제한하는 이유 .....	130
<표 67> 자녀의 문화예술활동 시 장애인이라서 어려운 점 .....	131
<표 68> 문화예술활동 시 장애인이라서 받는 차별형태 .....	131
<표 69> 자녀의 문화예술활동 지속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	132
<표 70> 장애자녀가 지역사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문화예술관련 기관 .....	132
<표 71> 지역사회 문화예술시설 이용 시, 가장 어려운 점 .....	133
<표 72> 자녀의 문화예술활동 참여확대 희망정도 .....	133
<표 73> 문화예술활동 중 자녀의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 .....	134
<표 74> 자녀가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정도 .....	134
<표 75> 장애학생이 문화예술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복수) .....	135
<표 76> 장애아동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문화예술정책의 효과성 .....	135

<표 77> 장애아동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민간단체 또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	136
<표 78> 장애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정도 .....	136
<표 79> 문화예술활동이 자녀에게 기여정도 .....	137
<표 80> 문화예술활동의 건전한 장애정체성 형성의 기여도 ..	137
<표 81> 「장애아동문화」, 「장애청소년문화」의 존재여부 ..	138
<표 82> 「장애아동문화」, 「장애청소년문화」 개발 필요성 ..	138
<표 83> 장애아동청소년 생애주기별 문화 지원 정책 필요성 ..	139
<표 84> 체육 활동 중 장애자녀가 가장 자주 하는 활동 .....	139
<표 85> 장애자녀의 체육활동 참여 형태 .....	140
<표 86> 장애자녀의 지역사회 체육활동 참여 기관 .....	140
<표 87> 장애자녀의 주당 체육활동 시간 .....	141
<표 88> 장애자녀가 이용하는 지역사회 체육관련 기관 ..	141
<표 89> 자녀의 체육활동 정보제공처 .....	142
<표 90> 장애자녀의 체육활동 목적 .....	142
<표 91> 자녀의 체육활동 허락, 권장하는 이유 .....	143
<표 92> 장애자녀의 체육활동을 제한할 때의 이유 .....	143
<표 93> 장애자녀의 체육활동 참여 시 가장 어려운 점 ..	143
<표 94> 장애자녀의 체육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정도 ..	144
<표 95> 장애자녀의 체육활동 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점 .....	144
<표 96> 지역사회 체육시설을 이용 시, 가장 어려운 점 .....	145
<표 97> 자녀가 더하기를 원하는 체육활동 .....	145
<표 98> 장애아동청소년의 원활한 체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	146
<표 99> 장애아동청소년들 체육활동 지원정책의 효과성 여부 .....	146
<표 100>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장애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의 효과성 .....	147
<표 101> 장애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인프라 조성정도 ..	147
<표 102> 장애자녀 체육활동의 장점 .....	148
<표 103> 「장애아동체육」, 「장애청소년체육」의 존재여부 .....	148

<표 104> 「장애아동체육」, 「장애청소년체육」 개발의 필요성 .....	149
<표 105>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정책의 필요성 .....	149

---

## 그림 목차

<그림 1> ICF 구성요소 간의 상호관계 .....	28
<그림 2> 문화적 모델의 장애개념도 .....	29
<그림 3> 장애인문화예술 진흥도 .....	36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 방법
4. 연구의 제한점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장애아동청소년에게는 요육(療育), 특수교육, 재활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지원을 강구해 왔던 것이 오늘날까지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UN이 1989년 채택한 아동권리 협약과 이를 담보한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에는 장애아동 청소년도 시혜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 장애아동 청소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증진을 위해 장애아동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인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 장애인정책 패러다임도 장애 당사자의 자기결정이나 자립생활이 가장 큰 덕목과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고 장애아동과 청소년기의 특징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교육과 재활 그리고 복지는 물론 문화예술·체육활동까지 향수를 보장하도록 하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목표가 설정되었다. 특히 『제 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08년~2012년)』에서 「장애인 문화향수권 보장」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한 것 또한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넘어 「질 높은 삶(Quality of life)」의 보장이라는 정책기조의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에 부응하는 것은 장애인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문화예술·체육활동이 신체의 발달과 심리적 성숙, 사회성 향상 등 필수적인 요소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청소년 정책에 있어서 특별히 정책이라 할 만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이들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의 향수실태조차 보고 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2005년 우리나라의 18세 이하 장애아동청소년은 82,177명으로(보건사회연구원, 2005) 이 중 지적장애 29,151명으로 35.5%, 자폐성 장애 23.2%로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지원 되어야 하는 발달장애인이

과반수를 차지하지만, 이들에 대한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지원이나 정책이 개발되어있지 않으며,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아동에 있어서도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몇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존재할 뿐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이 태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도서·공연의 연구·개발도 사실상 전무하며, 스포츠 프로그램 또한 특수체육 분야인 학교체육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콘텐츠 개발·보급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는 비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 「아동 문화」, 「청소년 문화」등으로 명명하면서 중장년층 및 성인과는 차별화된 독특한 문화예술활동이나 영역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비해 장애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치료나 교육, 재활만을 강조할 뿐 삶의 질을 초점으로 한 문화예술이나 체육은 등한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장애아동이나 장애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과 체육활동이야말로 장애아동청소년도 한 인간(Human being)으로써 즐겁고 자연스럽게 자존감이나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이 되는 것으로, 「장애아동문화」, 「장애청소년문화」 등 생애주기와 장애영역에 적합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의 개발과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장애아동청소년의 욕구와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목적을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제시해본다.

첫째, 장애아동청소년의 발달과 문화예술·체육활동의 관계성을 고찰한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실태와 현실적 문제점을 찾아본다.

셋째,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등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의 방향을 찾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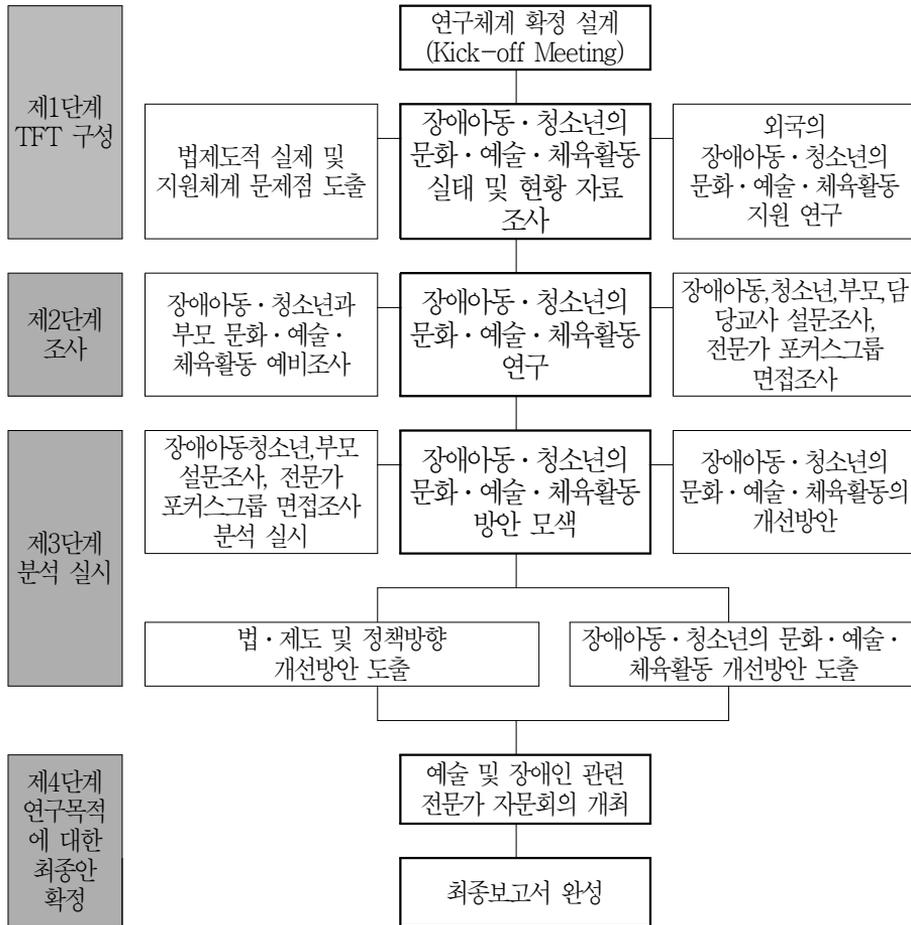
넷째, 장애아동청소년이 동년배집단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삶을 향유하기 위한 장애유형별 문화권 향유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섯째, 이를 통하여 장애아동청소년이 자아정체성 및 올바른 장애정체성까지 확립함으로써 갈등의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진취적이고 주도적인 인생의 개척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에너지를 부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섯째, 구체적인 방안으로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 1) 연구절차



#### 2) 문헌연구

국내외 장애아동·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 및 문화·예술·체육활동 조사 관련 문헌과 자료를 선행 분석함으로써 조사도구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중점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해 통계청의 장애인 인구 현황을 조사하고, 2005년도와 2008년도의 장애인실태조사의 장애유형별 여가 및 문화예술활동 욕구실태를 대략적으로 파악하였다.

Quality of Life and Disability(2009)에서 제시된 항목과 문화예술·체육활동과 연계시킨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본 조사연구가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과 일반의 활동을 비교하여,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지원방법 및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민 문화향수실태, 장애인 문화복지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유럽 등 장애인복지 선진국의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체육활동에 관한 관련 정책과 시행되고 있는 지원프로그램 등을 조사하여, 국내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고찰해보고 있다.

장애 유형별 장애아동·청소년들과 장애 당사자 문화예술·체육인 등 관련 인구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 및 욕구조사(설문지) 관련 정부부처 및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문인협회 등 연구기관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 3) 조사연구

#### (1) 예비조사(Pilot test)

본 조사에 앞서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실태 및 욕구조사」 설문지를 개발,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차례 수정작업을 거쳤다. 또한 설문지를 장애아동·청소년용, 부모용으로만 하는 것에 부족함을 느껴 특수학교 교사를 비롯한 전문가용 설문지를 작성·조사를 실시하였다.

(2) 장애아동·청소년 및 장애아동·청소년 부모 설문조사

- 조사대상

① 장애아동·청소년 150명

② 장애유형을 고려한 조사대상 장애아동·청소년·장애부모 100명

- 표집방법

①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지적장애인부모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과 같은 관련기관의 연계를 통한 조사대상자 선정

②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 선정

- 분석방법

설문문항의 대부분은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평균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장애유형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볼 필요가 있는 문항은 교차분석을 실시,  $\chi^2$  검증을 통해 유의수준을 검증했다.

(3) 전문가 포커스 그룹 면접조사

- 조사대상

문화예술체육활동 관련 전문가 74명

① 장애인 문화예술전문가그룹 구성

- 장애인 관련단체 인사(지부·지회장급 이상) 6인

- 장애인 문화예술인 16인

-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업종 종사 비장애인 7인

- 특수교육교사 6인

- 공무원 4인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2인

② 장애인 체육전문가그룹 구성

- 장애인체육회 관련인사(시도 장애인체육회포함) 9인

- 장애인스포츠 선수 18인

- 특수체육 교사 6인
- 체육시설 담당자 5인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5인
- 조사방법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가 포커스그룹 면접조사지의 내용으로는 이것도 문화예술의 전문가와 체육의 전문가를 나누어 선정,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체육의 현주소를 점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 전문가의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 사례와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했다.

#### 4. 연구의 제한점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연구에 있어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첫째,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을 정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 관련법이 한 기준으로 통일되지 않아 타 연구에서의 장애아동 청소년의 연령기준과 다를 수 있다.

둘째, 장애아동청소년의 대다수가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에 속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기 어렵고, 응답한다 해도 그 대답의 타당성을 완벽히 보장하기 어려워 이러한 부분에서 부득이 부모나 도우미의 대리응답이 본인 응답률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다.



## Ⅱ. 이론적 배경

1. 장애아동청소년의 이해
2.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이해
3.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의 특성



## II. 이론적 배경

### 1. 장애아동청소년의 이해

#### 1) 아동청소년의 정의

아동청소년기의 구분은 이론적 구분과 법적 구분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의 발달단계는 Freud, Erikson, Havighurst(1970)등 여러 학자들의 구분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간의 발달이 점성성을 지니고 있어 단계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는 수혜 집단의 발달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적절한 욕구에 근거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발달단계에 입각한 서비스와 지원은 매우 바람직하다(김영호 외, 2006).

법적 구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연령대를 구분하고 규정짓는 데는 여러 법이 혼재하고 있어 한 가지 법적 근거로 장애아동청소년을 규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사회적 통념과 발달단계를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을 영유아보육법의 대상이 되는 만 6세 이후에서 초등학교까지의 사람으로, 청소년을 중고등학교의 연령대로 구분하고자 한다. 다만 장애아동청소년에 있어서는 비장애아동의 발달에 비해 다소 발달이 느리거나 인지적 능력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지원대상에서 그러한 점을 고려한 연령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수교육에 있어서는 전공과를 설치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고등학생과 성인의 신분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 발달이 지연되어 또래와 다른 연령대에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연령으로 지원정책대상자를 정하기보다는 발달에 따른 연령대를 감안하여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지원

정책대상으로 만 6세 이상에서 고등학교 학령기 연령대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하되, 중도장애로 인해 학령이 지연되었거나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있어서 그 연령을 24세까지로 조작적 정의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 2) 장애아동청소년의 인구현황

우리나라의 2008년 등록장애인은 전체 2,246,965명(보건사회연구원, 2008 장애인 실태조사)이고, 그 중 만 6세~24세의 장애아동청소년은 115,978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지적장애아동청소년이 46.64%, 지체 장애가 16.95%, 자폐성장애 아동청소년이 9.56%이며, 뇌병변장애가 9.55%이고, 그 다음으로 청각장애, 시각장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장애, 언어장애, 심장장애를 비롯한 기타 내부장애도 <표 1>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성인장애인의 장애유형별 비율에서 중도장애로 인한 지체장애가 많은 것이나, 성인 또는 노인 장애인의 경우 뇌혈관 질환, 당뇨 등의 합병증으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시·청각장애인이 많은 것과는 달리 전체 장애아동청소년의 절반이 넘는 수가 발달장애에 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통해 우리가 인식하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은 연령과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정책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아동청소년은 현재 성장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인장애인과는 달리 생애주기에 따르는 고유한 특성과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책이 그동안 보육이나 치료, 교육에 절대적으로 치중함으로써 종합적인 복지시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장애인의 권리적 측면의 부각과 장애인의 자기결정 및 당사자주의의 실현 등이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장애아동청소년에게 필요 적절한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시책이 요구되고 있다.

<표 1> 장애아동청소년(만6세~24세)의 인구현황

장애명	등록장애아동청소년	구성비
간장애	191	0.16
간질장애	591	0.51
뇌병변장애	11,074	9.55
자폐성장애	11,105	9.56
시각장애	7,006	6.05
신장장애	780	0.68
심장장애	1,020	0.88
안면장애	217	0.19
언어장애	1,270	1.09
장루장애	88	0.07
정신장애	1,634	1.40
지적장애	54,094	46.64
지체장애	19,644	16.95
청각장애	7,199	6.21
호흡기장애	65	0.06
계	115,978	100

출처 : 장애인통계자료 재구성. 통계청(2008년 12월 현재)

### 3) 장애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현황

#### (1) 장애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타인 도움 필요정도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 2006)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한다고 나타난다.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표 2>에 나타나듯이 74.5%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장애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하는 데에도 부모를 포함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과 도우미에 대한 지원이 정책적으로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2〉 일상생활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정도

(단위: %, 명)

구분	유아기	아동· 청소년기	성년 전환기	계
모든 일상생활 혼자가능	-	19.4	38.8	24.1
대부분 혼자 할 수 있음	2.1	6.1	12.7	8.0
일부 남의 도움 필요	6.4	30.6	23.1	24.7
대부분 남의 도움 필요	31.9	22.8	11.9	19.9
거의 남의 도움 필요	59.6	21.1	13.4	23.3
계(N)	100.0 (47)	100.0 (180)	100.0 (134)	100.0 (361)

자료: 2005장애인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2) 장애아동청소년의 집밖 활동 편의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 2006)에 따르면 장애아동청소년의 62.5%가 집밖 활동 시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시기가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사고의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 집 밖 활동의 욕구가 왕성한 발달기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이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애인복지인프라가 부족하여 장애아동청소년의 집 밖 활동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3〉 장애아동·청소년의 집밖 활동 시 불편여부

(단위: %, 명)

구분	유아기	아동· 청소년기	성년 전환기	계
매우 불편	46.8	31.8	23.5	30.7
약간 불편	21.3	30.7	24.2	27.1
불편하지 않은 편	25.5	25.1	33.3	28.2
전혀 불편하지 않음	6.4	12.3	18.9	14.0
계	100.0 (47)	100.0 (179)	100.0 (132)	100.0 (358)

자료: 장애인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1) 장애아동청소년의 특성

### (1) 장애아동청소년과 발달과업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애주기에는 각 발달단계와 발달과업을 가진다. 이에 대해 Havighurst(1970)는 아래 <표 4>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업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아동청소년의 발달과업 성취는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사회에서 통합 된 삶을 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장애아동청소년을 독특한 집단으로 또래에서 분리시키기보다는, 또래와 한 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또래가 즐기는 것을 즐길 수 있고, 또래집단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가치 있는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 아동청소년기의 발달과업

발달 단계	발 달 과 업	
아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놀이에 필요한 신체기술 학습</li> <li>-자신에 대한 건전한 태도 형성</li> <li>-또래친구 사귀는 법 학습</li> <li>-성역할 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 학습기술 습득</li> <li>-일상생활에 필요한 개념 학습</li> <li>-양심, 도덕, 가치체계 발달</li> <li>-사회집단과 제도에 대한 태도 발달</li> </ul>
청소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신체 및 성역할 수용</li> <li>-부모와 다른 성인으로부터 정서적 독립</li> <li>-경제적 독립의 필요성 인식</li> <li>-직업 선택 및 준비</li> <li>-친구와의 새로운 관계 형성</li> <li>-유능한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지적기능과 개념 획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적 책임에 맞는 행동</li> <li>-결혼과 가정생활 준비</li> <li>-과학적 세계관에 근거한 가치체계의 발달</li> </ul>

출처 : 김동배 · 권중돈(2000). 인간행동이론과 실천. p.32.

그러므로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또래의 발달 및 발달과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2) 장애아동의 발달특성

아동기는 공식적 학교교육을 통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발달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장애아동들은 또래와는 또 다른 발달 과업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통합학교 환경에서 또래와의 적응,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상생활 능력 배양, 자율성과 유능성 획득을 발달과업으로 갖는다. 장애아동의 문화예술·체육활동도 장애아동이 이러한 아동발달기의 발달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하며 유능성 획득이라는 관점에서는 장애아동이 갖는 잔존능력이나 잠재능력을 끌어내고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안내되어야 한다. 이때 약점에 집중하는 치료적 관점에서 벗어나 강점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 ① 신체적 발달

일반적으로 아동기에는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되고 외모에는 별 다른 관심이 없으며, 속도, 정확성, 안정성, 호응성, 역량 등의 발달이 정교해진다. 따라서 장난감을 이용하기보다는 신체를 이용한 달리기, 던지기, 뛰기 등의 체육활동과 단체놀이에 관심을 갖는다. 이를 통해 신체부분의 조정과 통합을 추구하며 유연성을 기른다. 특히 아동기에는 장애로 인해 신체발달이 다른 아동과의 비교대상이 되므로 아동의 자존감 형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장애아동에 있어서도 통합 교육을 실시할 때, 장애로 인해 항상 신체활동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장애를 가졌지만 프로그램이나 보조기구를 통해 장애아동이 최대한 자신의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 ② 심리적 발달

심리적 발달이라고 하면 흔히 정서적 발달 부분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감각기관, 언어, 인지, 지능, 정서 등의 발달을 통틀어 이야기 할 수 있다.

아동기에는 자신의 몸을 움직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달한 운동지각이 점차 공간지각으로 전환되어가고 시간지각도 발달되어 가는 시기이다. 또한

아동기에는 문자언어, 문법의 이해나 발표력, 독해력의 발달이 현저하게 일어나며 언어표현력도 증가한다.

아동기에는 기본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인지발달이 이루어지며, 창조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소근육과 대근육의 발달로 능숙한 수공기술이나 운동기술도 가질 수 있다. 또한 내적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것을 배우며 즐거움, 사랑, 분노, 공포, 질투, 좌절감 등 여러 감정을 다루고 충동과 사회적 요소 간에 균형을 취하는 방법도 익히게 된다.

아동기에는 불안과 공포가 특히 많은데 이러한 역기능은 욕구가 좌절되고, 행동에 방해를 받고 꾸중을 듣거나 무시당하고 비교당할 때, 분노의 표출로 나타날 수 있다.

장애아동의 시기에 형성되는 자존감과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등 자신에 대한 건전한 태도형성은 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장애아동이 어떠한 정서를 갖고 살아가는가 하는 성격형성에도 매우 중요하다. 즉, 이 시기의 발달과업인 자신에 대한 건전한 태도 형성은 평생의 삶에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신체발달이 인지기능 발달에 이르지 못하는 장애아동의 경우에 건전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좌절의 삶을 살거나 부정적인 자의식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대인관계를 비롯한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③ 사회적 발달

아동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가족에서 이웃, 학교로 까지 확대된다. 이러한 사회생활의 영역이 확장됨으로써 집단생활에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상호협력하며 자신의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기술과 태도를 습득하게 된다. 하지만 장애아동은 생활영역의 확장에 제한을 받아서 기본적 사회기술이나 태도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기 어렵다.

아동기에는 자신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행동양식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자신의 행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는데 도움이 되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부

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Mead(1934)는 자아를 'I와' me'로 구분하여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I'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욕구를 가진 자아라면 'me'는 개인이 그의 환경에 존재하는 주요한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 내면화시킨 자아를 말하고 있다. 장애아동청소년에 있어서 'I'는 동일하나 'me'는 비장애아동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이다. Mead(1934)는 'me'를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사람의 자아개념을 획득하는 기반이 된다고 보고 있다.

첫째,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다양한 활동이나 상황에 대한 타인들의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다

셋째, 위의 두 가지 사고에 입각해서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고 조절해나가는 것이다.

아동은 위의 세 가지 요소를 모방, 놀이, 게임을 통해서 획득하고 타인의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장애아동이 문화예술체육활동이라는 방법을 통해 자아개념을 건전하게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근면성과 높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도움이 되며 장애아동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고양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진취적인 삶을 살도록 인생의 개척자가 자신이 되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형성되는 개척정신은 장애를 극복함을 통해 비장애인보다 그 극복에 대한 더욱 큰 성취감을 경험하게 된다.

아동시기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통해 우정과 친구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데, Newman & Newman(1987)은 친구들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다음의 세 가지를 학습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첫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삶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측면에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둘째, 친구집단의 경험을 통해 또래집단의 사회적 규범과 압력에 점점 더 민감해진다. 친구집단은 아동에게 행동의 지침을 제공해 준다.

셋째, 동성의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경험한다.

이러한 또래와의 관계형성은 세계를 보다 폭 넓은 관점으로 보고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며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어른의 사고와 행동의 융통성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아동에게는 이러한 또래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신체적 불편함이나 편의시설의 부재 등 여러 가지 차별적 요소로 인해 아동기에 확립되어야 할 사회발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중심적이고 유아적인 사고에 머무르기 쉬우며, 스스로 위축되기 쉽다.

### (3) 장애청소년의 발달특성

청소년기는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기로서 급속한 신체적 변화와 인지적 발달을 경험하며, 자아정체감 확립과 더불어 성인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발달과업을 과제로 안고 있는 질풍노도의 시기(storm and stress)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시기에 겪는 정서적 변화로 인해 제2의 반항기라고도 부르며 사회적으로 아직 주변인(marginal man)에 머물러 특징적인 발달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이 시기는 인간으로서 고유한 정체감을 확립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 ① 신체발달

청소년기에는 급속한 성장과 생식능력을 획득하게 되는데, 장애청소년의 경우 대체로 같은 연령의 청소년에 비해 신체적 발달이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반적인 또래집단의 모습과 달라 심리적으로 부담을 경험하고 부정적인 자아상(self-image)을 갖게 된다. 비단 신체적 문제에 한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대체로 신체적 발달이 지체된 장애청소년들은 실제보다 어리게 대접받으며 친구들로부터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

## ② 인지발달

장애청소년의 경우에는 사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나 환경을 경험하기 어렵고 기회마저도 제한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양한 집단과의 관계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기르기 어렵고 사회성을 키워 나가는 데도 제약이 많다. 이로 인해 인지발달이 늦어지면서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의 사회생활이나 직업 활동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교류와 협력활동에도 어려움이 많다.

## ③ 심리·사회적 발달

장애청소년은 분리된 교육환경과 사회 환경으로 인해 장애청소년간의 또래집단을 형성하게 되며, 집단 활동에 있어서도 제한적이다. 때문에 집단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성발달이나 자존감향상 등의 이점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이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활발한 시기이나 장애청소년은 이성을 만날 기회가 제한되어 있거나 이성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정적으로 여겨져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내적 욕구와 현실간의 많은 갈등과 불안, 긴장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들의 정서적 발달을 지원할 개별상담이나 집단활동 프로그램은 매우 미흡하다.

## ④ 독립·자율성 확립

청소년기는 독립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자율성과 독립심을 기르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장애청소년의 경우, 자립과 관련하여서 신체적 제약으로 좌절감을 겪으며 장애인편의시설 부족과 이동권의 미확보, 직업 환경적 제약 등으로 자립에 제약이 많다. 이런 여건에서 특수교육의 훈련프로그램이나 자립준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사회복지관의 서비스대상자가 되거나 시설로 입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⑤ 직업에 대한 준비

직업은 장애인재활의 꽃으로 불릴 만큼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가장 주요한 방편이 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 전제이다. 장애청소년 시기에는 평생을 직업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거기에는 장애청소년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아 평생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 ⑥ 자아정체감 확립

청소년시기의 자아정체감형성은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청소년은 자아정체감 형성에서 중요한 자아상을 장애 때문에 부정적으로 형성하게 되어 친한 친구를 사귀는데 곤란을 느끼고 고립되어 이러한 부정적 자아정체감으로 인해 청년기와 성인기 등을 위해 필수적인 인생을 개척하는 일을 포기하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형성되는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애청소년 복지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김종인(2007)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발달과업을 언급하면서 장애 아동 청소년이라 할 수 있는 학령기 장애인들은 또래집단이 학교를 다니고 친구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지리적 그들의 세계가 확장되면서 새로운 문제와 상황들은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발달하지만 장애인은 이시기에 이러한 면에서 많은 제한이 따르고 다른 경험을 시도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물리적 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가족의 과잉보호나 스스로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차단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 아동을 아동기에 나타나는 발달이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들고, 장애에 대한 적응도 감소하고, 그로인해 자기개념이 형성될 수 없으며 비장애아동과 상호 교류가 적어지고 사회활동 감소로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장애 청소년기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체감의 혼란을 겪는 위기의 시기이며, 제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자신의 성숙에도 적응해야 하고 부모나 자신

을 둘러싼 기성세대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이며 정체감 확립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장애를 얻은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의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장애 이전의 친구들을 잃어버리거나 비장애인 또래에게서 장애인또래의 활동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장애인의 아동 청소년 시기의 건전한 발달은 장애성인으로서 한 사회의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바탕이 되는 자아정체성 확립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자신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숙한 자아의식을 키우는 시기이며, 이러한 바탕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사회를 존중하는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발달을 고려하고 장애정체감을 가질 수 있는 지지적 환경의 형성이 중요하다.

## 2.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이해

### 1)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지만 삶의 질이라는 말은 경제적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에 풍요 이면에 나타나는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설에서 알 수 있듯이 생존의 욕구나 안전의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는 사랑과 소속감, 자아실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욕구를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Mendola(1979)는 삶의 질을 주어진 신체적 능력 내에서 만족스러운 사회생활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Johnson(1978)은 각 개인의 필요, 요구,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자원의 소유,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활동에 참가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자신과 남을 비교하여 만족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고 있으며 김상균 등(1996)은 삶의 질을 한 사회의 경제사회 발전수준과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 관습에 따라 변화하

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Lehman(1983)은 주관적인 삶의 질을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생활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여가활동, 직업, 안전, 건강 등 8개 영역에서 삶의 만족도로 세분화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Blunden(1988)은 삶의 질에 신체적 행복감, 물리적 행복감, 사회적 행복감, 인지적 행복감 등의 영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장애인의 삶의 질이라고 해서 비장애인의 삶의 질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은 주관적인 기준이건 객관적인 기준이건 간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있어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이 앞서 언급한 여러 영역 중 그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다.

Felce & Perry(1995)는 비장애인, 지적장애, 신체장애와 정신건강분야의 15개의 논문을 분석하면서 이들의 삶의 질과 관계된 다양한 요소들이 이들 논문에 중복되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은 신체적 안녕, 물질적 안녕, 사회적 안녕, 정서적 안녕, 생산적 안녕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체적 안녕은 건강과 관련되어 있고, 물질적 안녕은 수입과 관계되며, 사회적 안녕은 대인관계와 사회참여, 정서적 안녕은 정서, 스트레스, 정서 상태, 사회적 위치 등과 관련되며, 생산적 안녕은 발전적 성장과 관련된다고 하고 있다.

김윤희(1997)는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 평가에 있어서 그 하위영역으로 정규적인 여가활동, 지역사회 인접성과 접근성, 가정이나 지역사회안에서의 대인관계의 원활성, 타인으로부터의 존중감, 선택권, 개인의 취향이나 개별성의 존중 등 6가지를 들고 있다.

## 2)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이해

### (1) 문화의 개념

문화는 인간의 사회생활의 산물이며, 인간의 사회생활은 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사회는 인간 세계 외에 동물 세계에도 존재하지만 문화

는 오직 인간 세계에서만 발견된다. 따라서 문화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 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문화는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자아정체감까지도 결정해주는 위력을 가졌다.

문화라는 용어는 인류학의 선구자인 영국인 에드워드 타일러(Tylor, E. B.)에 의하여 인류학에 소개되었고, 하나의 전문용어가 되었다. 그의 저서인 『원시 문화』(primitive Culture, 1871)에서 그는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하여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런 뜻에서 문화는 한마디로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때 문화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창조한 모든 종류의 지식·예술·음악·기술 그리고 정치적·가족적 조직체 등을 모두 포함하고 또한 신념과 가치까지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타일러의 정의는 지금까지 문화에 관하여 내려진 수많은 정의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는 고전적인 정의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문화의 개념과 정의는 수적으로 증가되었고 다양화되고 있다.

## (2) 문화예술의 정의

문화라는 말은 인간의 생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 중 가장 큰 의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 문화의 한 영역으로써 창조적인 활동의 의미로 문화예술이 분류되고 있는데, 이는 문화 전체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게 드러나는 분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3) 체육활동의 정의

국민체육진흥법 제 2조에서는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

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체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체육활동은 크게 생활체육활동과 전문체육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① 생활체육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생활체육을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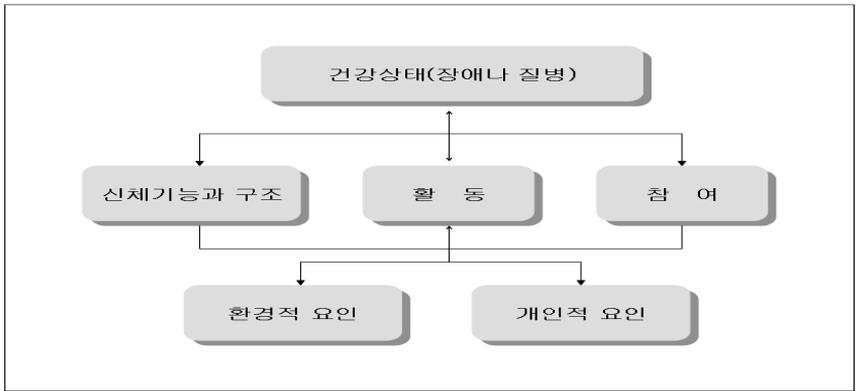
### ② 전문체육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전문체육을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 3)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이해

### (1) 장애의 문화적 모델

기존의 장애에 대한 모델이론으로는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들 수 있었다. 개인의 손상(impairment)이나 무능(disability)에 주안점을 두고 전문가의 치료와 교육을 통해 장애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델이 개별적 모델이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개인적 요인에 의해 장애가 발생된다고만 보기에선 사회 환경적 요인이 너무나도 커서 장애에 대한 것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환경적 요소에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적 모델이다. 장애의 모델이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이동하면서 WHO의 장애분류기준은 1980년 ICIDH에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ICF로 수정이 있어왔으며 ICF의 기준은 사회적 모델을 담은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1>은 이러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개인의 기능은 신체의 기능과 구조, 활동, 참여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기능들은 건강조건과 상황적 맥락에 속하는 환경요소(사회의 인식, 건축물의 장애요소 정도 등)와 개인적 요소(성, 연령, 인종, 습관, 대처양식 등)의 양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다.



자료 : WHO(2001). *ICF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Geneva : Auth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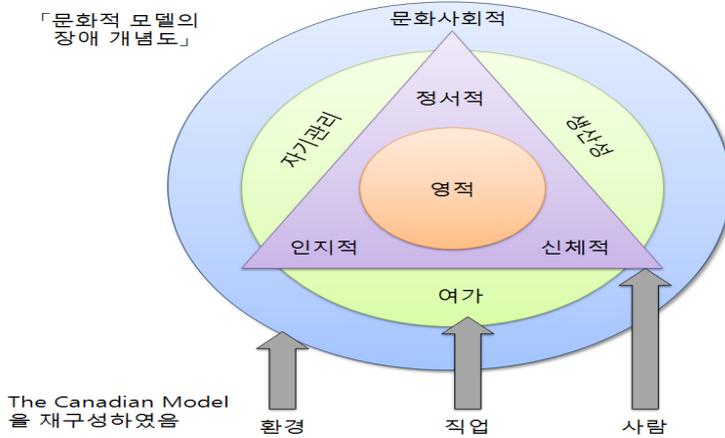
<그림 1> ICF 구성요소 간의 상호관계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도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 사람들의 문화적 환경까지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의 문화적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손상이나 무능력을 개념화하고 객체화시키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즉, 장애를 인간의 사회적, 환경적인 다양함에서 오는 다양성 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입장으로, 장애가 인간의 가치를 절하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는 기존 ICF의 사회적 모델과도 차이가 있다. 사회적 모델이 신체적 장애와 사회적 장애를 함께 포함하여 장애로 본다면, 문화적 모델은 장애를 ‘사람’으로부터 객체화시키기 때문에 장애가 갖고 있는 낙인감(stigma)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적 모델은 장애를 ‘사람’으로부터 객체화시킴은 물론 그 장애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화적 능력(The differently cultural ability)을 찾아낸다는 모델이다.

문화적 모델(Cultural model)의 장애는 장애인으로써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써 그가 둘러싼 문화·사회적 환경(Cultural social environment)의 영향 속에 신체적(physical), 정서적(Affective), 인지적(cognitive)인 부분과 함께 영적(spiritual)부분까지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여기에는 자기관리

(self-care), 여가활용(leisure), 생산성(productivity)을 모두 문화 사회적 환경의 영역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여긴다.



<그림 2> 문화적 모델의 장애개념도

## (2) 장애인 문화의 특징

역사적으로 소수민족이나 장애인들과 같이 소외받는 사람들은 대중들로부터 분리된 삶을 산다는 것 자체에서 그들만의 문화 성립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과거, 사회가 장애인들의 제한된 기능, 즉 장애의 종류와 그들의 제한적 행동들에만 중점을 두었던 것은 장애를 치료하기는커녕 장애인을 더욱 더 약하고 차별화 된 존재로 몰아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서로 공유된 문화를 제공받을 기회가 적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장애인들은 장애인당사자가 갖는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를 열었고, 각 분야에서 공통된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그들의 정체성과 권리를 확고히 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의 경우 1990년도에 미국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 제정·시행되면서 사회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소외감, 수치감, 우울함 등은 나라나 지역적으로 구분이 없이 같기 때문에 발전된 테크놀로지의 보급은 전 세계 장애인들의 공유와 문화 성립에도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의 문화가 사회일반에 장애인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현재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유형에서는 점자나 수화를 사용하는 것을 하나의 문화로 여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그와 관련하여 감각활동의 문화들도 생겨나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아직 다양한 장애를 담아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장애인이 형성하는 장애문화를 이질집단에서 향유되는 문화로 볼 것이냐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런 문제는 장애에 대해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대의 패러다임과 밀접하게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장애인 복지의 대표 패러다임인 사회통합이나 당사자주의 등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문화가 이질적인 집단의 문화가 아니라 사회통합의 대전제 안에서 형성될 수 있고,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장애당사자의 선택과 역량강화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성장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의 여가생활과 문화향수, 그리고 창작이나 문화활동 참여 등 생존과는 다른 또 다른 욕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차원의 문화향수기회확대 정책을 내세우며 이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러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비장애인 중심이어서 장애인들의 문화향수권은 접근성, 이동권의 문제와 적합한 프로그램의 부재로 보장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장애장벽이 제거되어야 하며 장애유형별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이에 대한 인프라가 매우 미흡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도 전무하다 할 수 있다. 비용면에서 대부분의 장애인이 경제적 이유로 이러한 활동에 배제되어 있고, 창작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더라도 경제적 소득에까지 이르는 것 또한 극히 드문 일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체육활동에는 비장애인의 활

동과는 다른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송재호(2007)외는 장애인의 이러한 활동을 ‘문화복지’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장애인의 원활한 문화활동을 통해 문화감수성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정갑영(1996)은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건강하고 의미 있게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인(2009)은 장애인의 문화에 대해 이질적인 집단의 문화가 아니라 사회통합의 대전제 안에서 형성될 수 있고,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역량강화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정욱(2009)은 장애인문화의 지향점은 장애를 가졌기에 느끼는 차별과 편견, 이식의 벽 등이 주는 좌절과 절망을 예술로 승화시킬 때 진한 감동과 함께 비장애인들이 결코 쉽게 이루지 못할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 (4) 장애인의 체육활동

##### ① 재활스포츠

###### 가. 재활스포츠의 개념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현재 일반적으로 ‘재활스포츠’로 명명하고 있다. 그것은 장애인 체육이 단순히 체육활동이나 여가선용의 개념을 넘어 체육활동을 통한 ‘전인적 재활’을 이루어 나가는 방편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재활스포츠 치료를 통하여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정서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심신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신체 활동을 더욱 권장하고 장애로 인한 신체 기능의 약화를 예방하고 체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재활스포츠에 필수적인 스포츠 용구들의 첨단 Technology를 활용한 개발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장애인 체육 치료활동이 성과를 가

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스포츠 상해, 부상의 조건, 정도, 종류 등에 따라 시설과 용구는 분류 적용되어야 한다.

## ② 생활체육

### 가. 장애인생활체육의 역할

장애인에 있어서 생활 속에서의 스포츠의 기능과 그에 대한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은 생활체육(스포츠)을 통하여 보다 많은 신체 활동을 즐겁게 하는 동안 장애인의 형태적·기능적·발달이 증진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이 촉진되며, 자기적응력 향상과 생활에의 자신감 및 자기존중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체육에 의한 실제적 효과는 운동 부족을 해소하고 체력을 높여 주며, 생활에서 오는 피로를 없애주고 기분을 명랑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운동신경을 발달시켜 준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생활체육은 가벼운 운동이면서도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누구나·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고, 특별한 장소와 사용 기구에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규칙이 간단히 하여 인원수, 장애 상황, 장소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규칙·수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현황

운동을 통한 건강증진 방법은 가장 보편적이면서 접근이 용이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은 건강증진과 재활의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을 위한 생활 체육프로그램은 체육 기반 시설이나 사업 예산 등에서 매우 열악하며, 이 분야 발전의 토대가 될 국내 연구 또한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체육은 2005년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재활’이나 ‘복지’의 차원에서 인식되고 행해졌으나 현재에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으로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

고, 더불어 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지향하는 전문체육을 포함하는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미약한 실정으로 ‘장애인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최승권 외, 1999)’에 따르면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33.3%)’이 가장 우선시 되는 고려사항으로 꼽히고 있으나 아직도 장애인체육시설이 태부족한 실정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도 장애인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생활환경의 반경 내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거리를 찾아다니며 체육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홍문식 외(2002)의 장애인체육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활체육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도인력의 부족(19.2%)’을 꼽아 시설의 부족이 장애인 생활체육의 진입장벽이라면 장애의 특성을 알고 지도할 체육지도 인력 부족을 전문체육 저변이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 4)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의 특징

##### (1)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의 특징

##### ① 특수학교의 문화예술관련 활동

<표 5> 3~6학년 문화예술관련 활동

영역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표현 활동	움직임 표현	리듬 표현	민속 표현	주제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움직임 표현</li> <li>●움직임 언어와 표현 요소</li> <li>●표현 방법 및 감상</li> <li>●신체 인식</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움직임 표현 및 감상 활동 참여(시각장애, 지체장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듬 표현</li> <li>●유형과 요소</li> <li>●표현 방법 및 감상</li> <li>●적응력</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리듬 표현 및 감상 활동 참여(시각장애, 지체장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속 표현</li> <li>●종류와 특징</li> <li>●표현 방법 및 감상</li> <li>●자기 확산</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민속 표현 및 감상 활동 참여(시각장애, 지체장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 표현</li> <li>●구성 원리와 창작 과정</li> <li>●표현 방법 및 감상</li> <li>●창의력</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주제 표현 및 감상 활동 참여(시각장애, 지체장애)</li> </ul>

영역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여가 활동	여가 생활	여가 생활	여가 생활	여가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와 여가 생활</li> <li>●여가의 개념과 역할</li> <li>●나와 가족의 여가 활동</li> <li>●가족 사랑</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개인 여가 활동 및 가족 단위 여가 활동 참여(시각장애, 지체장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가와 전통 놀이</li> <li>●여가와 놀이의 관계</li> <li>●우리 조상의 전통 여가 놀이</li> <li>●민족 사랑</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전통적 여가 놀이 활동 참여(시각장애, 지체장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가와 생활 환경</li> <li>●여가 자원 활용 방법</li> <li>●아외 생활형 여가 활동</li> <li>●공동체 의식</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생활 환경 주변 및 아외형 여가 활동 참여(시각장애, 지체장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가와 자연 환경</li> <li>●여가의 가치와 유형</li> <li>●자연 체험형 여가 활동</li> <li>●자연 사랑</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자연 체험형 여가 활동 참여(시각장애, 지체장애)</li> </ul>

<표 6> 7~10학년 문화예술관련 활동

영역	초등학교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표현 활동	창작 표현	창작 표현	창작 표현	창작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미 표현과 창작 특성과 유형</li> <li>●표현 방법, 창작, 감상</li> <li>●심미적 태도</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심미 표현 및 감상 활동 참여(시각장애, 지체장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대 표현과 창작</li> <li>●역사와 유형</li> <li>●표현 방법, 창작, 감상</li> <li>●대인 관계</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현대 표현 및 감상 활동 참여(시각장애, 지체장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 표현과 창작</li> <li>●역사와 유형</li> <li>●표현 방법, 창작, 감상</li> <li>●전통 의식과 예절</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전통 표현 및 감상 활동 참여(시각장애, 지체장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움직임예술과 창작</li> <li>●움직임 예술과 창작의 관계</li> <li>●표현 방법, 창작, 감상</li> <li>●창의적 태도</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예술적 표현 및 감상 활동 참여(시각장애, 지체장애)</li> </ul>
여가 활동	여가 문화	여가 문화	여가 문화	여가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여가 문화</li> <li>●청소년기 여가 문화의 특성</li> <li>●청소년 여가 활동 체험</li> <li>●자기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 여가 문화</li> <li>●우리나라의 전통 여가 유형</li> <li>●전통 여가 활동 체험</li> <li>●전통 문화 의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구촌의 여가 문화</li> <li>●다른 나라의 여가 유형</li> <li>●다른 나라의 여가 활동 체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가 스포츠 문화</li> <li>●여가 스포츠 유형과 특성</li> <li>●여가 스포츠 체험과 감상</li> <li>●자기 개발</li> </ul>

영역	초등학교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청소년기 여가 문화 탐색 및 참여(시각장애, 지체장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전통적 여가 활동 참여(시각장애, 지체장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 이해</li> <li>●세계 여러 나라 장애인의 여가 활동 체험(시각장애, 지체장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여가 활동 선택 및 정기적 참여(시각장애, 지체장애)</li> </ul>

## ②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현황

2007년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에 따르면 장애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하는 문화예술·체육활동으로는 TV시청(17.7%)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이나 컴퓨터게임(15.6%), 집에서 휴식(14.6%), 음악·영화감상(8.4%), 독서(6.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약 73.8%의 많은 장애청소년들이 가정 내에서 보내고 있었으며, 순위에 있어서도 1위에서 7위의 모든 활동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어서 장애청소년들은 여가시간을 집 밖에서 보내거나 활동적인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고 가정 내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가정 외에서 하는 활동으로는 종교 활동(4.2%)과 친구만나기(3.7%), 스포츠 활동(3.5%), 산책(3.5%)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청소년들이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여행(14.3%)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스포츠 활동(9.7%), 취미활동(7.8%), 영화·음악 감상(7.5%), 친구만나기(7.3%), 아르바이트(6.5%) 순이어서 장애아동청소년이 외부에서 활동에 참여하기를 매우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청소년들은 교통 혼잡 및 이용교통수단의 불편(57.2%), 적절한 장소나 시설의 부족(53.6%), 편의시설 부족(54.4%) 프로그램 부족(54.2%), 정보의 부족(52.0%) 등의 사회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집 밖 활동을 매우 어려워하고 있다고 조사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용의 부족(54.6%), 시간의 부족(47.2%) 등 사회적인 지원으로 극복 가능한 요인과 함께 할 친구의 부족(44.5%) 등의 요인에 의한 어려움도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 정책 차원의 지원과 지역사회

에서 실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다.

즉,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해서는 우선 장벽제거를 통해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보장하고 창작활동을 통한 평생의 직업을 갖거나 평생의 삶을 문화예술을 통해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안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장애인문화예술진흥 ABLE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3> 장애인문화예술 진흥도

## (2) 장애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의 특징

장애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은 그동안 아동청소년이 갖는 사회의 주변인적 특성과 장애인으로서 처하게 되는 활동참여의 어려움으로 이중의 소외를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제도적으로는 특수학교체육이 있고,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는 생활체육, 전문체육이 있다.

### ① 특수학교 체육

현재 일반학교에서는 신체상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교실을 지키거나, 스탠드에서 리포트를 제출케 하여 성적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위탁교육도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학교체육은 재활운동을 전공한 전문가에게서 지도 받아야 한다. 이들은 의료인의 추천서 등을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불안정한 신체적 활용에 대한 공포와 좌절에 대한 피로를 극소화해 주면서도 장애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각 특수교육 학년별 교과과정에서의 체육활동은 <표 7>과 같다.

<표 7> 특수교육 교과과정의 체육영역 활동(3학년~6학년)

영역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건강활동	체력 증진 ●건강과 체력의 증진 ●건강과 체력의 개념 ●체력 운동 단계와 방법 ●자기 이해 ●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체력 운동 참여(시각장애, 지체장애)	체력 증진 ●기초체력 증진 ●기초 체력의 종류 ●기초 체력 종류별 운동 방법 ●자기 수용 ●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기초 체력 종류별 체력 증진 운동 참여(시각장애, 지체장애)	체력 증진 ●건강 체력 증진 ●체력과 건강 증진의 관계 ●건강 체력의 증진 방법 ●인내와 성취감 ●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건강 체력 증진 활동 참여(시각장애, 지체장애)	체력 증진 ●운동 체력 증진 ●체력과 운동 수행의 관계 ●운동 체력의 증진 방법 ●적극성과 의지 ●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운동 체력 증진 활동 참여(시각장애, 지체장애)
	기록 도전	표적/투기 도전	기록 도전	동작 도전
	●속도 도전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 ●끈기 ●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속도 도전 활동 참여	●표적/투기 도전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 ●자기 조절 ●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표적/투기 도전 활동 참여	●거리 도전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 ●적극성 ●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거리 도전 활동 참여	●동작 도전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 ●자신감 ●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동작 도전 활동 참여
경쟁활동	피하기형 경쟁 ●피하기형 경쟁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과 게임 전략	영역형 경쟁 ●영역형 경쟁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과 게임 전략	필드형 경쟁 ●필드형 경쟁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과 게임 전략	네트형 경쟁 ●네트형 경쟁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과 게임 전략

영역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인 이해</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피하기형 경쟁 활동 참여(시각장애, 지체장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팀워크와 페어플레이</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영역형 경쟁 활동 참여(시각장애, 지체장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 책임감</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필드형 경쟁 활동 참여(시각장애, 지체장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운동 예절</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네트형 경쟁 활동 참여(시각장애, 지체장애)</li> </ul>

<표 8> 특수교육 교과과정의 체육영역 활동(7학년~10학년)

영역	초등학교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건강활동	체력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과 체력 관리</li> <li>•건강과 체력요소의 관계</li> <li>•체력 증진 원리와 관리 방법</li> <li>•실천 의지력</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체력 증진 원리와 관리 방법 이해 및 체력 증진 운동 참여(시각장애, 지체장애)</li> </ul>	체력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력 진단과 평가</li> <li>•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li> <li>•체력 관리 프로그램 설계</li> <li>•노력과 극기</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체력 측정 방법 습득 및 맞춤형 체력 증진 프로그램 참여(시각장애, 지체장애)</li> </ul>	건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 건강 관리</li> <li>•자기 건강 관리의 중요성</li> <li>•건강과 신체 관리</li> <li>•건강과 스트레스 관리</li> <li>•자아 존중</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건강 관리 방법 실천(시각장애, 지체장애)</li> </ul>	건강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사회 건강 관리</li> <li>•지역 사회의 역할과 활동</li> <li>•지역 사회의 건강 관리 방법</li> <li>•청소년의 건강한 성 문화</li> <li>•타인 존중과 상호 신뢰</li> <li>•습관적 행동 억제 및 감소(시각장애)</li> <li>•간질, 구축, 욕창 등의 증상 관리 실천(지체장애)</li> </ul>
	기록 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속도·거리 도전</li> <li>•역사와 과학적 원리</li> <li>•경기 방법과 기능</li> <li>•인내심</li> <li>•과거와 현대의 스포츠 경기 감상</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속도·거리</li> </ul>	표적/투기 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적/투기 도전</li> <li>•역사와 과학적 원리</li> <li>•경기 방법과 기능</li> <li>•용기와 예절</li> <li>•우리나라와 외국의 스포츠경기감상</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표적/투기</li> </ul>	동작 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작 도전</li> <li>•역사와 과학적 원리</li> <li>•경기 방법과 기능</li> <li>•자기통제</li> <li>•과거와 현대의 스포츠 경기 감상</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건강 관</li> </ul>	도전과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전과 경쟁 스포츠 경기</li> <li>•경기의 특성과 유형</li> <li>•경기 방법과 운영</li> <li>•스포츠 정신</li> <li>•경기 분석과 감상</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도전과</li> </ul>
도전활동	기록 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속도·거리 도전</li> <li>•역사와 과학적 원리</li> <li>•경기 방법과 기능</li> <li>•인내심</li> <li>•과거와 현대의 스포츠 경기 감상</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속도·거리</li> </ul>	표적/투기 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적/투기 도전</li> <li>•역사와 과학적 원리</li> <li>•경기 방법과 기능</li> <li>•용기와 예절</li> <li>•우리나라와 외국의 스포츠경기감상</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표적/투기</li> </ul>	동작 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작 도전</li> <li>•역사와 과학적 원리</li> <li>•경기 방법과 기능</li> <li>•자기통제</li> <li>•과거와 현대의 스포츠 경기 감상</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건강 관</li> </ul>	도전과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전과 경쟁 스포츠 경기</li> <li>•경기의 특성과 유형</li> <li>•경기 방법과 운영</li> <li>•스포츠 정신</li> <li>•경기 분석과 감상</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도전과</li> </ul>

영역	초등학교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리 도전 스포츠 참여	기 도전 스포츠 참여	리 방법 실천(시각장애, 지체장애)	
경쟁 활동	영역형 경쟁	필드형 경쟁	네트형 경쟁	경쟁 스포츠 경기 참여 (시각장애, 지체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역형 경쟁</li> <li>●역사와 과학적 원리</li> <li>●경기 방법, 기능, 전략</li> <li>●리더십과 팔로우십</li> <li>●전통 스포츠와 뉴 스포츠의 경기 감상</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영역형 경쟁 스포츠 참여 (시각장애, 지체장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드형 경쟁</li> <li>●역사와 과학적 원리</li> <li>●경기 방법, 기능, 전략</li> <li>●사회적 책임감</li> <li>●전통 스포츠와 뉴 스포츠의 경기 감상</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필드형 경쟁 스포츠 참여 (시각장애, 지체장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네트형 경쟁</li> <li>●역사와 과학적 원리</li> <li>●경기 방법, 기능, 전략</li> <li>●경기 예절</li> <li>●전통 스포츠와 뉴 스포츠의 경기 감상</li> <li>●장애 특성과 수준에 적합한 네트형 경쟁 스포츠 참여 (시각장애, 지체장애)</li> </ul>	

## ② 생활체육

생활체육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체육활동으로 장애아동청소년의 여가시간 활용, 건강유지,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유익한 생활문화라 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참여 기회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과 공동체 의식을 양양시키는 신체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의 인식부족과 사회의 무관심, 장애인체육에 대한 경시 등으로 장애인은 체육에서 조차 배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체육활동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제공함은 물론 교육기회의 균등, 사회참여 기회확대의 측면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요구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 ③ 전문체육

전문체육은 ‘특정 경기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 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인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수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법제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전문체육은 건강증진은 물론이거니와 장애인이라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뛰어넘어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여 인간능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일이며, 전문체육선수가 된다는 것은 체육활동을 통한 직업재활을 이루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전문체육이 알려진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던 해에 서울에서 ‘세계장애인올림픽’도 개최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제 장애인 체육대회에서의 상위 입상을 통하여 점점 장애인체육을 인식하는 저변은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장애인체육선수 훈련시설이나 우수한 경기지도자 양성 등에서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장애인전문체육은 세계 장애인체육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종, 국가, 정치, 문화, 이념을 초월한 장애인올림픽,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등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장애인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

### ④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아동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정책을 시행한 것이 거의 전무하다. 다만, 2006년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시작으로 장애아동청소년의 체육이 조금씩 정책적 지원의 테두리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겠다.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장애학생에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전국 순회 개최되고 있는데, 2009년까지 3회의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누구나 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에게 장애인체육과 지역의 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종합체육행사로 개최된다.

종목으로는 골볼, 농구, 배구, 보치아, 수영, 육상, 축구, 탁구, 씨름, e스포츠의 10개 정식종목과 실내조정이라는 1개의 시범종목으로 개최되고 있다.

### (3) 장애유형별 체육활동

#### ① 척수장애인의 체육

척수장애인의 운동 프로그램은 신체의 마비되지 않은 모든 부위를 사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활동을 제공해야 하며 이 활동들은 근력, 유연성, 근 지구력, 심폐 지구력 그리고 협응력을 발달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들은 마비되지 않은 나머지 근육기능으로도 물속에서 신체의 수평을 이루며 물장구를 칠 수 있는데, 이렇게 수영하는 것은 전신체력을 강화시키는데 매우 좋은 운동이다.

척수장애인이 할 수 있는 체육종목은 육상, 양궁, 사격, 론볼, 탁구, 역도, 럭비,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 좌식배구, 펜싱, 농구, 핸드볼, 조정 등 하계종목과 알파인스키, 노르딕 스키, 아이스 슬레지 레이싱, 아이스 슬레지 하키 등 동계종목이 있고 신체기능에 맞춰 장비나 경기규칙이 약간 수정되기도 한다.

척수장애인은 되도록이면 가벼운 장비를 갖고 하는 것이 좋으며, 규칙이나 장비도 장애정도에 따라 수정되어야 하고, 적절히 경기 인원수를 조절하여 활동범위를 축소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 ② 절단장애인의 체육

절단인에게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쉽게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신체특성에 맞는 방법에 의하여 습득하도록 운동기술을 익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무릎 위가 절단된 장애인은 적절한 보철기구를 이용하면 걷는 것은 물론이고 수영, 육상, 양궁, 사격, 사이클, 배구, 탁구, 조정, 스키 등 여러 가지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다. 상지에 절단이 있다면 축구나 육상 달리기 종목 등 다리만을 이용하는 경기에 참여

할 수 있다.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절단장애인들도 경기의 물이나 장비에 수정을 주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주고 능력에 맞는 게임이나 종목을 잘 선택하여 지도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상지에 절단이 있는 사람보다 활동반경이 좁은 하지 절단자가 심폐기능이 낮고 비만한 편인데, 휠체어를 이용하여 마라톤 달리기나 모노스키 또는 외발스키, 팔로 돌리는 세발자전거, 수영과 같은 유산소성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소아마비

경증의 소아마비 장애인은 운동하는데 제약이 적다. 아이들은 팔이나 다리의 결함으로 인한 운동의 부자유스러움을 보상할 다른 방법을 빨리 발견하고 습득한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소아마비학생들은 활발한 신체운동에 참여함으로써 꽤 높은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생활을 거치는 동안 축적된 발달 지연으로 경쟁스포츠 참가가 어려울 경우도 있다. 보행이 불가능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휠체어 스포츠가 적당하다.

하지마비를 가진 소아마비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종목으로는 육상트랙과 필드, 수영, 사격, 양궁, 농구, 배구, 역도, 테니스, 탁구, 펜싱, 론볼, 조정 등의 하계스포츠 종목과 빙상, 스키 등의 동계스포츠 종목이 있고, 수상스키, 요트, 행글라이딩과 같은 레저스포츠 종목도 약간의 수정된 경기규칙과 신체적 장애를 보완해 주는 보조기구만 준비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 ④ 뇌성마비

뇌성마비인에게는 어려운 과제나 경쟁적인 요소에 대한 생각들이 강한 긴장을 일으키게 되므로 그들에게 기술을 빠르게 수행하도록 요구한다거나 경쟁적 압박과 같은 악조건 하에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완시키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주력하고, 특히 근육 긴장이 너무 높거나 낮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도할 때 칭찬과 용기를 효과적으로 사용

하는 것이 좋다. 뇌성마비인들이 통합된 단체활동에 참가할 경우 그들의 운동능력에 맞도록 응용하거나 규칙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경련성, 무정위성, 운동 실조성 뇌성마비는 운동 기능 면에서 각기 다르다. 경련성은 연속적인 움직임에 요구하는 운동이 비교적 쉬우나, 무정위성은 운동하는 도중에 자주 휴식을 취하여 불수의적 근 수축을 예방하여야 하며 운동 실조성은 평형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뇌성마비인들에게 경쟁과 사회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포츠 경기를 개최하고 있다. 육상, 수영, 보치아, 양궁, 역도, 탁구, 론볼, 축구, 이륜 및 삼륜 사이클, 등 다양한 경쟁적 스포츠 종목과 레저 및 레크레이션적 게임이나 놀이 프로그램실시도 적극 권장된다.

#### ⑤ 시각장애

시각적, 환경적 요인의 제한을 받는 시각장애인의 신체활동프로그램은 평형성과 보행능력의 개선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걷기, 조깅, 크로스컨트리 달리기 등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은 시각적 피드백 부족으로 자세나 움직임에 있어서 자기조정 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 따라서 이들의 스포츠 활동은 자신감과 흥미를 불어 넣어주고 사회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스포츠 프로그램의 모든 기본구성요소들은 보행을 위한 기초능력으로 활용될 수 있어 시각장애인에 매우 유용하다.

시각장애인의 체육활동은 가족 및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고취시켜 스포츠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각장애인들이 실시할 수 있는 종목은 매우 다양하다. 약간의 수정조상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의 스포츠와 동일하게 실시 될 수 있다. 그 종목으로서는 육상, 수영, 탁구, 사격, 역도, 유도, 레슬링, 축구, 론볼, 골볼, 사이클, 조정, 스키, 등 동·하계 스포츠 종목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 ⑥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운동 능력, 운동 수행력, 체력 등의 수준이 낮다. 이들은 근력, 지구력, 평형성, 달리기, 속도 등 신체의 각 부위를 이용하는 힘의 작용법을 잘 모르며, 체력의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다. 이는 생활에 대한 인지력이 낮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은 신체의 인지적인 결함으로 바르지 못한 습관이 형성되었다거나 과민반응, 내성적인 성격으로 체육활동 참여에서 주의 집중력·협동심의 결여 현상을 보이고, 대인관계에서 사회성의 기초 활동인 동료와 적절하게 관계를 맺지 못하는 특징도 보이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비일관성, 고집 등 비 전형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며, 생활체육 장면에서의 공간의 확보나 운동 개념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참여하는 자체에서 어려움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도구를 다루는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목표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무엇인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면 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신체 표현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행동 수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체육에 대한 반감을 갖지 않도록 지각운동 기능을 발달시켜 주어야 한다.

이들에게 적절한 생활체육의 프로그램이 주어진다면 운동 능력, 운동 수행력, 체력 등의 향상은 물론, 생활체육에서의 성공적 경험을 가져 자아 개념과 타인과의 관계 형성, 문제 행동의 감소 등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생활체육은 신체의 다양한 유기적 체계의 발달을 통해 체력을 발달시키고, 건전한 여가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며, 운동 기술의 발달과 생활체육의 올바른 참여로 많은 사회 경험을 통해 사회적응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동료들과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지력을 향상시키고, ‘무언가를 해냈다’ 라는 승리감을 맛볼 수 있고, 자신의 신체를 발달시키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에게는 생활 속에서 운동을 경험할 환경을 만들어 보다 하기 쉽고 반복적인 체육활동으로 운동 경험을 증폭시켜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극대화시켜서 적절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 ⑦ 청각장애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건청인들과 동일하게 스포츠 활동을 실시할 수 있고, 규정 및 장비의 수정도 특별한 상황 이외에는 수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도자나 함께 참여하는 건청인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언어소통 문제이다. 청각장애인의 특성과 관련하여 스포츠 활동에 있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금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순간적으로 많은 힘을 사용하는 격투기 종류의 스포츠
- 높고 낮은 여러 종류의 다이빙
- 깊은 잠수
- 근력을 위주로 한 종목의 스포츠
- 고공을 나는 스카이 다이빙이나 행글라이딩 기타 기압 차가 심한 경우

위에 제시한 사항들은 청각기관에 손상을 주거나 현재의 상태가 더욱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정도를 면밀히 사전 검토해야 한다.



### Ⅲ.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현황 분석

1. 장애인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위한 법적근거
2. 장애인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정책적 현황
3.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정책내용
4.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정책의 문제점
5. UN(국제연합) 및 주요국가의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체육활동 정책



### Ⅲ.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현황 분석

#### 1. 장애인문화예술·체육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

장애인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법으로는 헌법에서부터 「장애인복지법」, 「문화예술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등이라 할 수 있는데, 본 장에서 각 법에 명시하는 장애인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근거를 종합적으로 고찰·정리하고자 한다.

<표 9> 장애아동 청소년 문화예술 체육에 관한 법적 근거

법명 및 조항	영역 및 내용	비고
헌법 제10조	문화적인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포괄적 명시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 문화활동, 체육활동에 대한 노력	정부와 지자체 책무의 선언적 의미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 2항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경비보조 등 지원	문화권 인정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장애인 선수 양성, 장애인 경기단체 지원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대한장애인체육회 설립 등 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보장 및 사회문화 예술교육 관련 활동 지원	단체지원 등 사회문화 예술교육 지원 구체적 명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49조	장애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특별한 지원 명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책무 명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제24조	장애인 문화예술 체육활동에서의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매뉴얼 요청

## 1) 헌법에서의 행복추구권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 이미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는 누구든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2) 장애인복지법에서의 문화환경의 정비 등

장애인복지법 제 2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 조항은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증진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라기보다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 3) 문화예술진흥법에서의 장애인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2에서는 장애인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사업과 장애인문화 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008년 개정·시행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문화예술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한 것은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국가 책임주의 구현 의지를 법적으로 담보한 것을 엿볼 수 있고, 장애인문화를 권리로 접근하고 장애인문화 예술

단체에 경비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장애 당사자주의」 실현 의지로 여겨진다.

하지만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원을 할 수 있다」 등은 강제규정이 되기 보다는 임의규정, 권유규정으로 법적으로 더욱 강력한 실천의지를 천명하고 강제 조항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 4) 국민체육진흥법에서의 장애인 체육 진흥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다음의 각호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법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것은 물론이고 장애인 선수 양성,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 및 보급, 장애인 경기단체 사업과 활동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의 문화예술활동지원

문화예술지원법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또는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조항이 있다. 특히 사회문화 예술교육 관련 활동 지원을 제3조의 제2항에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

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라고 문화예술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으며, 동법 제2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취약계층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권유조항의 성격이 강하다.

## 6)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장애 청소년에 대한 우선 배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3항에는 '청소년 활동'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동조 4항에는 '청소년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49조제1항에는 국가가 청소년들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해야함을, 제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의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7)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문화예술활동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에 따르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24조 ①항에서 “제4조1항1호 내지 2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제4조 1항 1호 내지 2호 및 제4호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

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천명은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임의적·선언적 차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실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준거를 마련했다고 하겠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서의 차별금지를 담고 있는 조항은 제2장(차별금지) 제3절(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속하는 것으로 이 조항의 시행은 「정당한 편의제공」여부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문화권 보장이나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으면 차별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문화예술활동에의 지원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조항이나 강제규정은 사실상 담보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장애당사자 단체 등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장애인문화예술활동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매뉴얼을 마련하는가 하면 강제규정으로의 법 개정과 함께 장애인문화예술 향수권을 폭넓게 확보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 장애인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정책적 현황

### 1)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

장애인문화예술정책은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하여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에는 2008년 1월부터 제15조의 2항에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년 8월에 발표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장애인의 문화향수 기회확대, 장애인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 증진의 추진목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있어 앞으로의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이를 통해 살펴보고 개선점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표 10> 장애인교육문화 추진과제별 성과목표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2-4) 장애인체육 정보·시설 인프라 구축 및 이용환경 개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블로그 구축 및 장애인 체육 정보센터 운영 등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 및 운영	-장애인체육 정보화로 정보접근성 향상 -공공체육시설의 편의시설 확충으로 시설 접근성 향상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향상
(2-5)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장애인식개선 예술행사 개최('08-'12) -장애이해 영상물 제작·보급('08-'12) -대한민국 1교시 장애이해 수업 실시 -범국민 장애인식개선 위한 UCC 공모전 개최('09)	-장애인식개선 예술행사(16개교육청별 매년 2회씩 총 32회 개최) -장애인식영상물 제작·보급(매년 1종) -대한민국 1교시 장애이해 수업(매년 1회 실시) -장애이해 UCC 공모전(매년 1회 개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적 통합환경 조성
(2-6) 장애 성인교육 지원 확대	-장애 성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계획 수립지원('10-)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16개(시·도)시설('10-'12) -장애성인 교육프로그램 시범운영('10)→확대운영('11-'12)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지원 체계 구축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및 성인장애인의 계속교육 보장
(2-12)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문화바우처 사업 -장애인영화제 개최 지원 -전국 장애인 e스포츠대회 -취약계층 복지관광 지원 등	-문화활동을 통한 장애인들의 재활촉진 및 자립생활 증진 -비장애인들의 인식변화 등 사회양극화 해소 등 사회통합 실현
(2-13) 장애인	-공공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한국영화 한글자막 및	-영화상영: 12편('08)→14편('10)→16편('12) -자동자막기 및 보청기기 설치: 3set('08)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	화면해설 상영 ('08-'12) -점자도서 및 오디오북 제작지원사업 -장애인 독서환경 구축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DB구축 -특수언어 표준화	→5set('10)→5set('12) 관람인원: 2,500명('08)→2,700명('10)→3,000명('12) -일반도시 대비 특수도서 발간비율: 1.9%('08)→2%('10)→2.1%('12) -문화활동 통한 장애인의 재활촉진, 자립생활 증진, 역량강화, 정상화 실현 등
(2-14)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배치 -장애인체육 저변확대 및 여성체육 활성화 (신인선수 발굴 육성)('09-'12)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체육 활성화 ('09-'12)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 : 100명('08)→200명('10)→200명('12) -생활체육클럽 지원: 60개소('08)→100명('10)→140명('12) -신인선수 발굴 및 교실운영 계획: 100명('08)/20개소→400명('12)/100개소 -어울림 클럽 결성수 및 교실 개최수: 40('09)/20회→100('12)/120회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전문체육과의 연계성 강화
(2-15)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및 국제스포츠 위상제고	-경기력향상 ('08-'12)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 및 활성화 ('08-'12) -국제대회의 국내 유치 및 참가 -국제장애인스포츠 외교력 강화	-훈련과학화 프로그램 개발 및 과학적 훈련장비 확보: 계획수립('08)→4개종목 10점('09-'12) 전문인력배치 : 계획수립('08)→1명('09)→1명('12) -계절보급학교 지도자 배치: 1('08)→10('10)→20('12) 동계종목지도자 육성교육: 20('08)→60('10)→100('12) -연도별 국제대회 참가계획(세계, 지역, 종합대회 포함) : 1('08)→12('10)→1('12) -능력위주의 선수선발 및 과학적 훈련으로 경기력 향상 -외교력 강화를 통한 인재 육성 및 국제스포츠 기구 진출

출처 :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관계부처 합동, 2008)

### (1) 장애인문화향수 기회확대정책

2008년부터 실시되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장애인의 문화향수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활동을 확대하고 장애인 문화프로그램을 강

화하는 등 장애인을 문화적 주체로 회복시키고, 문화공동체로서의 사회적 통합성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제시하고 그에 따르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표 11>과 같이 지원하고 있다.

<표 11> 장애인문화향수기회확대정책(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中)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문화바우처 사업	저소득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연극, 뮤지컬, 전통예술, 영화, 무용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의 무료관람권 우선 지원(40%)을 실시하는 것으로 개인별 5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복권기금
장애인 문화복지 향상 프로그램	2008년부터 신규로 지원되는 장애인문화복지 향상프로그램은 장애인문화예술인창작활동,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문화나눔 등을 통해서 장애인 문화복지 향상을 도모	국고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무용 및 연극 교육전문인력(장애인 대상 예술강사) 지원을 통해 실내외 학습 및 결과발표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의 환경을 고려해 개발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	국고
장애인 영화제 개최 지원	장애인이 제작하거나 장애인은 소재로 한 영화의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개봉 영화, 장애인 인권소재 영화, 사전제작 지원작 등에 자막 및 화면해설을 지원하며, 멀티미디어 설치 미술, 장애인 소재 사진전, 일반인 장애 체험, 장애인 문화 접근 개선 관련 세미나를 개최	국고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	한국게임산업진흥원, 국립특수교육원, 대구광역시, 한국e스포츠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국장애인 e스포츠대회를 전국 특수학교(급) 재학생 및 교사, 일반학생, 전국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대회참관 일반인 등 5,000여명의 참가자와 매년 4종목 8개 부문에서 실시	국고
장애인 게임여가 문화체험관 구축	장애학생들의 여가시간에 게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게임여가문화체험관 등을 구축	국고
취약계층 복지관광 지원	취약계층에 속하는 장애인들의 여행에 대한 욕구가 높은 현실을 반영하여 국내여행 참여기회 증진을 위한 복지관광을 지원하고 있는데, '05년 90명, '06년 157명, '07년 1,207명이 여행기회를 제공받았으며 꾸준히 지원을 확대	관광기금
주요문화시설 장애인 문화체험 프로그램	국립중앙박물관, 11개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등 주요문화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	국고

출처 :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관계부처 합동, 2008)

〈표 12〉 주요문화시설의 장애인 프로그램

주요문화시설	프로그램
중앙박물관 및 11개 지방박물관	출발! 우리보물 손 끝 탐사대(시각장애인), 병풍 속 동화세상(청각장애인), 장애인 문화체험 공간 등
국립민속박물관	손으로 느끼는 민속교실(시각장애인), 장애인현장민속교실(장애인시설) 등 체험확대
국립현대미술관	특수학교 및 일반초등학교의 장애아동 대상 미술실기 및 소장품 감상기회 제공
국립국악원	장애청소년 국악배움터, 장애청소년 국악소리여행, 장애어린이가족 국악나들이 등 장애인 국악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출처 : 장애인문화복지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 2007)

이러한 사업은 장애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표현하고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장애인이 자기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장애인의 재활을 촉진시키고, 자립생활 증진, 역량강화, 정상화 실현 및 장애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서 사회양극화 해소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장애인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 증진

장애인의 언어해독력 신장, 독서환경구축, 편의시설 설치지원 등 장애인 문화향유활동, 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장애인을 문화적 주체로 회복시키고, 장애인도 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에 통합되도록 하여, 우리사회가 소외된 계층 없이 지속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방향을 갖고 있다.

〈표 13〉 장애인 문화접근성 지원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성격
공공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먼저,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시설 설치(경사로, 승강기, 점자블럭 등)를 지원	국고
한국영화 자막 및 화면해설 상영	또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상영을 지원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자막기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FM송·수신기 구매를 지원	영화발전기금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지원사업	점자도서, 녹음도서, 수화영상도서 등 대체자료 제작·보급('12년 1,059종)을 위해 노력	국고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DB구축	시각장애인 중 장애인특례 입학생들이 각 분야 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기본학습서를 대상으로 조사, 시각장애인의 우선 구축 순위를 추천 받아,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텍스트 PDF를 구축하여 음성으로 제공	국고
특수언어 표준화	수화 표준화 및 표준화된 수화의 보급 확대하고 점자교육도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	국고

출처 :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관계부처 합동, 2008)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에서는 향후 추진계획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현재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유형별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법에 따른 도구의 개발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진행 될 것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문화적 욕구를 표현하고 잠재력을 개발하여 장애인으로서의 자기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사회통합을 실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 문화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한국영화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상영(연간 12편 내외), 점자도서, 녹음도서, 수화영상도서 등 대체자료 제작·보급('12년 1,059종),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DB 구축, 특수언어 표준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재활을 촉진시키고, 자립생활 증진, 역

량강화, 정상화 실현 및 비장애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서 사회양극화 해소 등 사회통합 실현을 목표로 한다.

## 2)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정책

### (1) 생활체육 지원

#### ① 추진배경

장애인의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각 시·도 단위에 장애인체육회를 설치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지역단위에서 장애인의 생활체육참여 유도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과 국내선수권대회 정비, 클럽활성화, 운동팀 창단의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사업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현 황

장애청소년의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기관은 '07년에 70개소에서 '08년에 95개소가 있으며 여기에는 장애유소년 체육교실, 장애대학생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기관은 '07년 51개소에서 '08년 110개소로 늘어났으며, 여기에는 초보자교실, 생활체육교실, 직장장애인 운동교실, 계절스포츠교실, 동·하계캠프, 장애인 스키학교 등이 운영되고 있다.

기타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기관으로는 '07년 72개소에서 '08년 83개소로 늘려 체계적인 생활체육 동호인을 지원 및 관리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생활체육정보센터 클럽 등록 시행으로 동호인 관리체계 확립에 힘쓰고, 클럽 매니저) 교육 및 우수 클럽 매니저 포상제도 시행을 통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클럽 운영을 유도한다. 아울러 지역클럽대항전, 전국클럽최강전 등 생활체육동호인대회를 지원하고, 시도주최 생활체육대회 및 장애청소년체육대회를 지원하며, 종목별생활체육축제를 지원함과 동시에 종목별·주제별 생활

1) 클럽 매니저 : 클럽 등록/관리/홍보/결과 보고 활동을 하는 클럽 담당자

체육 프로그램 관련 공모전 및 개발종목<sup>2)</sup> 보급 활동을 실시한다.

한편 어울림생활체육대회 지원을 확대하였는데, '08. 5월 대구광역시에서 열린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에는 참가종목으로 정식 4종목, 시범 1종목, 전시 1종목<sup>3)</sup>으로 총 6개 종목이 들어있다.

또한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활동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시·도장애인체육회 전문 인력인 서비스팀장을 시도별로 1명 배치하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한 현장 방문지도를 실시하며, 전화 및 인터넷을 활용한 상담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그리고 시도별로 1명씩 전일제 장애인체육지도자를 교육하고 배치하며, 장애인 생활체육정보센터<sup>4)</sup>를 운영한다.

### ③ 향후 추진방향 및 5년간 추진계획

장애인의 생활체육 향후 추진 방향으로는 장애 및 지역적 특성과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종목을 배울 수 있는 교실형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연령별, 장애유형별 참여계층 확대를 도모하는 것과 선수등록에 관한 규정 제정을 통하여 선수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선수 등록 및 관리, 행정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가져올 수 있는 Point System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종목별 경기대회를 다양한 형식으로 신설하여 대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대회규모를 확대하여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더 많은 참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5년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배치한다. 즉, 장애인체육지도자 자격제도 도입 및 양성기관 지정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생활체육 전일제 지도자를 적극 활용한다.

그리고 경기단체별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클럽 조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장애인체육 저변확대 및 여성체육 활성화를 유도한다.

2) '06, '07년 개발종목 : 7종목(생활체조, 요가, 웨이트트레이닝, 수영, 등산, 볼링, 파크골프)

3) 정식종목(4):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볼링/ 시범종목(1): 론볼/ 전시종목(1): 파크골프

4) 홈페이지 : <http://sports.kosad.or.kr>

또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함께 하는 스포츠클럽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클럽리그전 등 대회 지원을 통한 클럽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인선수 발굴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한편,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체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국내대회 Point System 제도 도입 및 국제대회 참가 MQS 적용을 위해 노력하여 종목별 국내대회 개최를 정비한다. 마지막으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체계를 개선하는데, 일반대회와 동일지역 동일년도 개최 추진을 목표로 노력하고, 장애인체전에 생활체육 종목을 확대하여 장애인스포츠 종합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표 14> 장애인 생활체육 추진5개년 계획(2008년~2012년)

구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연도별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계획(지도자 수)	900	100	200	200	200	200
생활체육클럽지원(개소 수)	80	80	100	120	140	
신인선수발굴	1,000명	-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신인선수발굴 교실운영	245개소	-	20개소	50개소	75개소	100개소
어울림대회(개최 수)		20	30	30	35	40

#### ④ 기대효과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생활체육교실 및 클럽의 활성화가 예상되는 동시에 전문체육과의 연계성 강화가 예상된다.

### (2) 전문체육지원

#### ① 추진배경

IPC의 장애인올림픽대회 등 장애인스포츠 추진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고, 장애인체육 문화체육관광부 이관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체육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 ② 현 황

국제 친선대회·합동훈련 참가 등 종목별 국제체육교류를 위해 힘쓰고 있고, 각종 강습회 및 세미나 개최를 지원하면서 종목별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면서 종목별 경기단체 지원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2008에는 올림픽 미출전 국가대표 훈련을 지원<sup>5)</sup>하고 기타 훈련여건 개선을 통한 선수 훈련을 지원하였는데, 그 내용으로 스포츠 등급분류 등 의학 관련 자문을 위한 의무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고, 중증장애인선수 생활도우미, 경기 보조인력, 선수파트너 등 30명의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한편 제5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sup>6)</sup> 개최 지원, 제2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sup>7)</sup> 개최 지원 등 국내대회 개최 지원을 통한 선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81회의 종목별 국내대회 개최를 지원하며, 장애인 국가대표 후보 선수<sup>8)</sup>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패러림픽 분야 최고리더 양성 컨퍼런스’<sup>9)</sup>같은 국제장애인스포츠 교류 증진을 위한 국제회의 및 워크숍에 참가하고, IPC 상임위원장 초청 국제등급분류/반도핑 워크숍개최(\*08.4/150명) 등을 통해 각종 국제회의 및 워크숍 국내개최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며, 외교 인력 양성 아카데미(국내교육) 실시, 스포츠 외교 인재육성 및 교육지원, IPC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 등 장애인스포츠 외교 전문가 양성 등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별 업무편람 제작 및 기구별 주요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스포츠 외교의 주요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개정 IPC 등급분류 코드 분석 및 국내적용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장애인

5) 동계종목(50일/3종목/선수 25명)· 하계종목(30일/10종목/선수 98명)

6) (\*08.2.19~22/강원/5종목/250명)

7) (\*08.10.5~9/광주광역시/24종목/4,500명)

8) (130명/종목별 30일)

9) (\*08.4.4~7/미국/3명)

스포츠 교류 활성화 추진함과 동시에, 2008 베이징장애인올림픽대회<sup>10)</sup> 상위 입상을 통한 국위선양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Top팀 운영위원회와 같은 전담기구 설치 운영을 통한 상시 훈련현황 점검 및 종목별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일반 올림픽출전 국가대표 선수 훈련을 지원<sup>11)</sup>하며, 국가대표 훈련지도, 경기력 분석, 실전 전술·전략 연구, 도핑 및 건강관리, 경쟁상대국 선수의 경기력 분석 및 대책 등의 연구를 위해 12명의 국가대표 전임지도자 배치를 확대한다. 그리고 7회 아시아·태평양 농아인체육대회<sup>12)</sup>와 같은 각종 국제대회 참가를 통한 경기력 향상에 힘쓰고, <sup>13)</sup>IPC 하이원월드컵알파인스키대회와 같은 종목별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을 통한 장애인스포츠 입지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 3) 장애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지원정책

#### (1) 장애청소년의 체육활동 지원

##### ① 사업목적

장애청소년에 대한 체육활동지원의 목적은 체육활동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고 여가를 선용하게 하는 한편, 장애·비장애청소년 간의 통합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② 추진방향

장애·비장애 학생의 통합체육수업 추진

일부 장애유형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적 지원

---

10) 기간/장소 : '08.9.6(토)~17(수)/중국 베이징

참가규모(예정) : 13종목/120명(선수 78, 임원 42)

입상목표 : 종합 14위

※ 제12회 아테네장애인올림픽 종합순위 : 16위(한국)

11) (90일/12종목/104명)

12) ('08.4.18~28/쿠웨이트/6종목/70명)

13) ('08.2.14~18/강원/15개국, 200명)

학교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사업형태(방과 후 교실, 방학교실)로 지원

③ 사업운영주체

대한 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④ 사업내용

가.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인학생을 위한 장애인체육지도자 순회교육  
나. 도서 또는 산간벽지 거주하는 장애청소년을 위한 장애인체육지도자  
현장파견

다. 지역시설을 활용한 장애청소년 체육교실 운영

라. 체육 문화예술사업과 연계한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청소년 체육캠프  
운영

마. 지역대학과 연계한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교육운영 등

바. 장애청소년 체육 우수운영교실 시상 및 운영사례 발표

(2)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① 사업목적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장애학생 간, 지역 간 교류의 장 마련 및 장애인스포  
츠 초석이 될 꿈나무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② 추진방향

경쟁보다는 참여의 장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을 통한 장애학생 선수들의 원활한 참여 추진

지자체 문화체육 교류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지역특색 체험 기회 마련

### 3.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체육활동 정책내용

<표 15> 2009년도 장애인 문화정책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추진계획	주관 부서
함께 누리 지원 사업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수 등을 통하여 문화기본권 신장과 사회적 통합적 발전의 토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립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li> <li>•장애인 시설 및 단체 방문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 창작 지원</li> <li>•2009 세계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개최</li> <li>•점자악보 보급시스템 구축 등 기타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 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기본계획:2월</li> <li>•편의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교부:3~4월(900백만원)</li> <li>•세계장애인 문화축제 기본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5월(950백만원)</li> <li>•장애인 사업 집행 및 정산:4~12월</li> </ul>	장애인 문화체육과
한국 영화 자막, 화면 해설 상영 및 장애인 영화제 개최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신장 및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영화산업 발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상영</li> <li>•장애인 영화제,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실시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병행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영화제 개최 지원 기본계획 보고 및 지원금 지급(1월) ※한국영화 자막·화면해설 상영(연중수시)/장애인영화제 개최(10월/11월)</li> </ul>	영화진흥위원회
전국 장애 학생 e스포츠 대회	장애학생의 새로운 여가문화 창출 및 e스포츠를 활용한 특수교육 활용 가능성 제시 및 공동체 의식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5회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 개최</li> <li>•장애학생 e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 및 프로그램 개발 기본계획 수립(3월)</li> <li>•e스포츠 대회 예선대회 개최 및 프로그램 개발(4~7월)</li> <li>•e스포츠 대회 개최 및 시상식, 프로그램 운영(9~10월)</li> <li>•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 결과보고(11월):130만원</li> </ul>	한국 게임산업진흥원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추진계획	주관부서
장애인 독서 활동 지원	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녹음 도서를 제작·배포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 활동 지원	점자 및 녹음도서 배포(80종, 7,000여 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독서활동지원 기본계획(3월)</li> <li>●장애인 독서활동지원 프로그램 보조금 교부(4월):140백만원</li> </ul>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장애인 문화 접근성 확보 지원 사업	장애인들의 예술 창작과 표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예술창작의 질 향상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자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보급(*교육사업 제외):20개 단체</li> <li>●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원사업 공모:2월중(공모기간중 사업설명회, 컨설팅 추진)</li> <li>●지원사업 공모심의 및 발표 및 보조금 교부:3월중</li> <li>●사업추진 및 정산:4월-12월</li> </ul>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 나눔 추진단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독서환경 구축 및 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통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정책 기반 마련 및 장애인 서비스 지원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서관 장애인 지식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및 국내·외 교류 및 협력</li> <li>●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교육 활성화 및 홍보 등</li> </ul>	<p>장애인 지식정보서비스 체계구축 및 국내·외 교류 및 협력(연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교육 활성화 및 홍보 등</li> <li>-2009년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교육·연수 계획(1회/10월)</li> <li>-전국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우수사례공모 개최(1회/3~8월)</li> <li>●도서관장애인 정보서비스 등(4~10월, 38백만원)</li> </ul>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 정보누리터 설치·운영 사업	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향상 및 이용편의 제	장애인정보누리터 전국 확산 추진('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공학기기, 대체자료 편의시설 등 구비(1~12월)</li> <li>●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운영(1~12월)</li> <li>●장애인정보누리터 전국 확산 추진(1~12월)</li> </ul>	국립중앙도서관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추진계획	주관 부서
장애 아동 미술관 소풍	문화예술교육의 기회가 적은 장애 아동들에게 미술 체험활동을 통 해 능동적인 사 회적응과 문화예 술향유 기회 확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운영 기본계획 수립(1월)</li> <li>●사업일정:매월1,3주 화요일, 매월2,4주 토요일 ('09년 6월 이후)</li> </ul>	국립 현대 미술관
장애인 대상 교육·체 험 프로그램	문화생활 접근이 불편한 장애 청 소년들에게 우리 의 전통문화를 교육하게 하고 문화적 감성 개 발 및 문화향유 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청소년 국악배움터 및 국악소리여행(연중)</li> <li>●장애어린이가족 국악나들이(8월)</li> </ul>	국립 국악원 국악 진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자도서 관 구축	시각장애인을 위 한 서비스를 확대 를 통하여 정보 의 빈부격차 해 소 및 기회 균등 화	시각장애인용 원문 및종 DB구축(280책) 시각장애인자료 합목록(10,000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계획 수립(2월)</li> <li>●조달청 입찰 및 계약(3월):선금 지급</li> <li>●사업추진(4~11월):기성금 지급</li> <li>●준공검사 및 사업종료(12월):준공금 지급</li> </ul>	국립 중앙 도서관
시·청각· 지체 장애인 프로그램 지원	시·청각장애인들이 관람환우 를 위한 제공으로 경제 전통문화에 대해 이해 향상 도모 및 사회교 육의 균등한 기 회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박:시·청각·지체 장애인 프로그램 운 영지원 등(125백만 원)</li> <li>●경주:천사들의 박 물관교실(15백만원)</li> <li>●광주:장애우 대상 박물관 교육(10백만 원)</li> <li>●전주:생애 처음 느 낀 유물(4백만원)</li> <li>●부여:희망박물관, 더불어 좋은 세상 (2.3백만원)</li> <li>●청주:문화나눔 희 망박물관(6백만원)</li> <li>●춘천:사랑 박물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1~2월)</li> <li>●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진행(3~12월)</li> <li>●사업종료 및 성과평가(12월)</li> </ul>	국립 중앙 박물관

사업명	목적	사업내용	추진계획	주관 부서
		희망 박물관 (1.7백만원) ●진주:시각, 지체장애인 프로그램 (12백만원) ●공주:I♥박물관 (3백만원)		
특수 언어 표준화	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언어생활을 위한 각종 규범을 체계화 하고 보급을 확대하여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수화 표준화 및 보급 사업(표준수화법 제정 사업) 및 태조사 등	●기본 계획 완료(3월) ●보조금 교부(3월): 402백만원 ●사업 추진 및 정산: 4~12월	국립국어원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	문화소외 계층인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사회적·문화적 양극화 해소, 사회 통합의 기반 마련, 문화 복지 구현	문화예술교육 단체 주관 및 전문강사 시설 파견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제공,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등	●예산 교부결정 및 교부(2월) ●예술강사 사업시행(3월~12월) ●사업평가 및 정산(10월~12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점자간행물 「손끝으로 읽는 국정」 발행	점자간행물 “손끝으로 읽는 국정”발행 및 간행물 지 음성인식 코드를 삽입을 한 장애인에 대한 국정 홍보 강화	인간승리 시각장애인 및 직업, 장애인 정책 등 소개	작수월 10일 국정 홍보 발간 및 배포(연중)	홍보자료 제작과

## 4.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체육 정책의 문제점

### 1) 정책 필요성 인식부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문화정책은 문화의 영역이 확대되고 그 개념이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가활동의 차원에서 일부 사회복지기관이나 문화시설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나마도 대부분 문화예술 프로그램 형식에 그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전문성을 갖기 힘들거나 기능이 미숙한 장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이나 치료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어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복지를 달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장애인 가구의 34.1%가 차상위계층 이하의 빈곤층(보건사회연구원, 2006)에 속하는 장애인의 현실에서는 경제적 문제 해소가 복지정책의 우선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지금까지 문화복지정책을 후순위로 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장애아동청소년에 있어서는 동 연령대의 아동 복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체육활동은 필수적이지만 이중적 소외구조 속에서 문화향수권이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이나 정책이 등한시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향수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펼쳐지는 정책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 인력,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지원이 필요하다.

### 2) 전달체계의 문제

2007년 문화관광부의 장애인문화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연구에 의하면 문화예술을 실시하는 정책 전달체계 중 14.3%에서 장애인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로 기관내에 장애인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꼽고 있다. 현재 장애인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에서도 전담인력이 전체 직원의 2.13%로, 우리나라 장애인

구를 전체 인구의 4.59%(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근거)로 본다면, 동일 비율의 장애인관련 전담인력이 필요하지만 그에 훨씬 못미치며, 장애인의 특성상 1인당 지원인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많이 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나 인력은 크게 못 미치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일정 비율을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아 각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발전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 3) 내용의 문제

시각장애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는 문화를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문화예술의 체험이나 관람활동도 오감을 사용하여 할 수 있는 유형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2008년부터 장애인의 문화체험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중앙박물관과 전국의 지방박물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재 촉각 관람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 그리기대회’ 개최나 감상기회 제공 프로그램과 국악 프로그램 정도에 그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문화재 감상으로서 ‘냄새로 보는 문화재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유명한 문화사적지인 성당을 실제 성당과 똑같은 소재를 사용하여 축소 재현한 모형박스를 구축하여 문화재 관람 전 시각장애인이 모형을 만지고 냄새를 맡으면서 문화재에 관해 1시간에 걸친 사전 설명을 듣고 견학이나 관람을 실시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유형에 맞는 문화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장애아동청소년이 발달시기에 적절하게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삶을 즐기고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5. UN(국제연합) 및 주요 국가의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정책

### 1) UN(국제연합)의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정책

UN(국제연합)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 제 30조에 장애인의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과 스포츠 참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1) UN(국제연합)장애인권리협약의 문화생활·스포츠 참여 보장

- ①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장애인이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하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장애인을 위한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 (a) 접근 가능한 형태로 문화적 자료를 향유할 권리
  - (b) 접근 가능한 형태로 TV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기타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 (c) 극장, 박물관, 영화관, 도서관, 관광여행 서비스와 같은 문화 활동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성과, 국가의 중요한 기념관 및 문화적 명소 등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향유할 권리.
- ② 당사국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창조적이고 예술적이며 지적인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③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장애인들의 문화적 자료 접근에 불합리한 혹은 차별적인 장벽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④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수화 및 청각장애인의 문화를 포함하여 장애인은 특정한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을 인식하고 지원 받을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 ⑤ 당사국은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 (a) 주류 스포츠 활동의 전 영역에서 장애인이 가능한 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증진한다.
- (b) 장애인이 장애 특화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조직,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적절한 지침, 훈련 및 자원의 공급을 보장한다.
- (c)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여행 장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 (d) 교내 활동을 포함하여 장애아동이 놀이,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스포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e) 레크리에이션, 관광여행, 여가 및 스포츠 활동 조직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 (2) 세계인권선언에서의 문화생활공유권리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기며, 학문적 진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장애인의 권리선언에서의 지적장애인 권리담보

장애인 권리선언에서는 제7조에 ‘지적장애인(정신지체인)이 중증으로 그 모든 권리를 유용하게 행사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그 권리의 일부나 전부가 제한되거나 배제되어야 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 이에 적응하는 절차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 2) 영국

### (1) 영국의 장애인 문화복지정책 방향

영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자립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여 장애인이 사회통합과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정책에는 장애인의 차별 또는 사회적 편견 제거, 사회통합과 완전한 참여를 위해서 법령 제정과 함께 각종 재활서비스, 보조장구, 주택보급, 접근성 확보, 교통, 직업재활과 훈련, 사회적 서비스, 교육, 문화활동, 여가와 스포츠 등이 장애인 지원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 (2)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영국의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 은 1995년도 처음 제정된 이래 2005년 개정안을 거친 현재까지 고용, 교육, 사유 재산 소유, 시설물 이용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장애인 기본 권리를 확장해왔다. 특히 2009년 3 월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 청소년 JL 과 그의 어머니 LL 가 Islington 지방의회 (Islington London Borough Council) 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는데, (JL and LL v Islington London Borough Council) JL과 LL은 이 지방 자치 단체가 지정한 장애 청소년 시설 이용적합 항목이 실제 장애 청소년들의 시설 이용에 제한을 야기 시킨다고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영국 장애 아동 위원회 (The Council for Disabled Children) 에 힘을 실어주어, 현재 영국 모든 지방 자치 단체들이 임의로 규정한 장애 적합 기준이 더욱 많은 장애 아동 과 청소년들 또 그들의 가족들에게 서비스 제공이 용이하도록 바뀌고 있다.

### (3) 영국 장애인 평등 정책

#### ① The Disability Equality Policy (1998)

1998년, 영국 의회는 The Disability Equality Policy 1998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의회와 Borough 지역에서 이슈화 되던 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들에게 평등한 권한, 기회와 책임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② Draft Council Equality (2007-2010)

영국 장애인평등계획서초안 2007-2010 (Draft Council equality 2007-2010)에 따르면 Borough 지역에 사는 20%의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고용, 수입, 교육면에서 뒤떨어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을 확률이 높다는 국가 통계도 있다. 최근에 행해진 조사('Able Authorities' DCLG 2006)는 많은 관계 당국들이 장애인들을 같은 시민들로 대우하기 보다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거나 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4) 장애인 문화복지정책 전달체계

#### ①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

문화미디어체육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는 영국 문화정책의 총괄부서로서 1995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법(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의 문화정책을 관장하며 지역차원의 문화정책으로 지역위원회(regional agencies)를 두고 있다. 런던을 제외한 잉글랜드의 8곳의 계획 지역에 Regional Culture Consortium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잉글랜드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England)아래에 각 지역별로 지역예술위원회(Regional Arts Councils)를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사업 진행을 위한 자문의 역할 및 지역의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발전에 힘쓰고 있다.

문화미디어체육부는 공공 부문, 상업적인 부문, 자원봉사 부문과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목표를 추구하며, 특히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 ② 영국예술위원회 (Art Council England)

### 가.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사업 진행을 위한 자문의 역할 및 지역의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별도의 단체로 영국예술위원회(Art Council England)가 있다. 영국예술위원회(Art Council England)는 정부 보조금과 복권 수익금을 통해 음악, 연극, 문학, 춤, 사진, 디지털 아트 등의 전반적인 예술 분야를 지원하는 단체이다.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예술적 경험을 발전시키고 투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기위해 존재한다.

### 나. Night Less Ordinary 제도

영국예술위원회는 Night Less Ordinary 라는 제도 하에 26세 미만의 시민들에게 매년 618,000개의 문화 예술 공연 관람 티켓을 무료로 제공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술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문화생활 경험이 그들의 행동, 사고방식 및 더 나아가 그들의 전체 삶에 미치는 영향력 크다는 판단 하에 26세 미만의 시민들에게만 제공하는 제도이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우편번호를 검색하면 그 지역에서 공연하고 있는 연극, 영화, 체육 경기, 서커스, 뮤지컬 등의 공연명단과 공짜 티켓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바로 예약을 할 수 있다. 영국 전역에 걸친 200개 이상의 공연장들이 무료 티켓 관람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 다. 예술위원회 고용프로그램(the Art Council Employment Program)

영국예술위원회는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인이 예술분야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라. 문화 온라인(Culture Online)

문화온라인을 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마. 영국예술위원회의 자본 프로젝트 지원 건축물

영국예술위원회로부터 자본 프로젝트를 지원 받은 건축물은 장애인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을 고용해야한다.

바. 장애인을 위한 예술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예술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한 예술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③ 장애인들의 예술 활동 지원 방법

가. 기금조성과 사용

- 영국 내 장애인 예술 페스티벌로는 The OSKA Bright Festival of Learning disabled artists, Xposure Festival, DaDa Festival Liverpool, LDAF's Disability Film Festival 이 있는데 이들 페스티벌의 더 많은 기금 조성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의 예술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나. 빌딩 시설의 장애인화

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 예술 알리기

라. 과거 장애인 예술 활동 연구

마. 장애인들 스스로 목소리 높여 요구사항 말하기

바. 장애 타입에 따른 그들 고유 예술 활동 스타일 연구

사. 장애 예술인과 일하는 비장애인 교육

마. 기타 장애인 문화복지 관련 사업으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National

Library for the Blind: Bring literature to life for visually impaired readers<sup>14)</sup>, 학습장애 성인(Learning disabled adults)들이 직접 운영하는 런던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독립적인 장애인 연극 극단으로 국립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Mind the Gap Company, Bradford<sup>15)</sup> 등이 있다.

#### (5) 레저 활동 연구 조사 결과

2000년 영국의 Cheltenham & Gloucester College of Higher Education에서 11세~15세 사이, 15명의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레저 다이어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 아동·청소년들에게 레저는 자유 시간에 하는 모든 것들, 야외에서 활동하는 게임 및 특별 활동들, 게임과 같이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레저 활동이 학교에서의 활동과 구분되어져 있고, 장애아동청소년이 레저 활동을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학교 안에서는 시키는 일을 해야 하지만, 레저타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장애아동청소년은 매우 다양한 레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종류와 2주 동안의 참여 횟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 아동·청소년들의 레저 활동은 비장애 아동·청소년들의 레저 활동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모든 아동·청소년들은 장애의 유무를 떠나 필요로 하는 레저 활동이 있음을 증명한다.

#### (6) 장애아동의 레저활동 지원 프로그램 소개

##### ① 높은 곳을 향하여 (Aiming High for Disabled Children)

정부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장애 아동·청소년을 둔 가족들이 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기 위해 고통받아왔음을 알고 효과적으로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을 알았다. 따라서 개개인의 장애 아동·청소년

14) [http://www.artscouncil.org.uk/aboutus/project\\_detail.php?rid=0&rsid=&browse=recent&rid=133](http://www.artscouncil.org.uk/aboutus/project_detail.php?rid=0&rsid=&browse=recent&rid=133)

15) [http://www.artscouncil.org.uk/aboutus/project\\_detail.php?rid=0&rsid=&browse=recent&rid=170](http://www.artscouncil.org.uk/aboutus/project_detail.php?rid=0&rsid=&browse=recent&rid=170)

및 그들의 가족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깨달았다.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에이밍 하이는 영국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서비스로 정부의 변형된 프로그램이다. 아동부처(Department for Children)과 학교와 가정부처(Schools and Families) 및 건강부처(Department of Health)와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 어린이와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들을 발전시키고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가. Aiming High의 비전

모든 장애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이 평범한 가족처럼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으로 세 가지의 중요 지원 분야가 있다.

##### ㄱ. Access and Empowerment (접근과 자격허용)

국가적 입장으로 모든 장애 아동·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이 지역 사회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들을 더욱 더 접하기 쉽게 하고 이 서비스들을 계획할 때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ㄴ. Responsive services and timely support (요구에 반응하고 성장과정에 맞는 지원)

모든 전문인들은 장애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를 계획할 때 지역사회적으로나 구가적인 입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으로 넘어가는 청소년들까지의 과정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 ㄷ. Improving quality and capacity (서비스의 질과 가능성 향상)

장애 아동·청소년의 가정에서 꼭 필요하고 원하는 경제적인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기부금을 조성하고 그들이 중요하게 필요한 짧은 휴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 나. 더 나은 시스템 만들기

장애 아동·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이 서비스를 경험하고 그 만족도를 잘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적 지표를 마련한다. 그들의 만족도와 욕구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지역적 자유 재량권을 가진 이들의 이해력을 높여 영국 전역에 걸쳐 더 나은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 아동·청소년과 그들의 가족들이 필요한 지역 및 국가적 정보들을 양적 질적 인 면에서 발전시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다. Aiming High for Disabled Children의 기대점

- ㄱ. 장애의 유무와 관계 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그들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한다.
- ㄴ. 장애 아동·청소년을 둔 가족은 그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ㄷ. 보편적인 어린이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진정으로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위하고 또 그들의 복합적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 ㄹ. 장애 아동·청소년들은 모든 어린이들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들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Cerebral Palsy Sport (뇌성마비 스포츠)

뇌성마비는 어릴 때부터 재활치료적으로 스포츠를 접근하고 있다. ‘뇌성마비 스포츠’는 1968년에 성립되어 1992년 정식으로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1999년 영국의 노팅햄(Nottingham)지역에서 2명의 스태프 멤버들이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인 이벤트들을 1년 단위로 정리하였다. ‘뇌성마비 스포츠’에 의해 정리 된 스포츠들은 미식축구, 수영, 테이블 테니스, 투구 등이다. ‘뇌성마비 스포츠’는 이들 운동종목을 발전시킬 수 있게 트레이닝과 코치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1999년에는 1,250명의 참가자와 더불어 200여개가 넘는 멤버십을 구축했다. 약 50%를 차지하는 구기종목과 수영 이용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뇌성마비 이외의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모든 프

로그램은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③ National Disability Leisure Resource Centre (국가장애레저지원센터)

국가장애레저지원센터는 장애인, 비장애인, 혹은 장애 레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영국의 유일한 정보지원 센터이다. 이 지원센터에는 2000권이 넘는 책들과 보고서, 300개가 넘는 비디오 자료들과 레저, 스포츠에 관련된 저널 및 잡지들이 소장되어 있다.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장애인들의 인종적 평등과 장애인 관련 레저와 스포츠의 전문적인 발전을 목표로 한다.

④ The English Federation of Disability Sport (영국 장애 스포츠 동맹)

영국 장애 스포츠 동맹은 영국 장애 스포츠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다.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그들의 선택권이 많아지는 것과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여 모든 장애 스포츠들의 레벨에 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정책과 실행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영국 장애 스포츠 동맹(EFDS)은 7개의 국가적 장애 스포츠 조직(National Disability Sports Organizations)과 가깝게 일하고 있다. 또한, 장애 스포츠 조직 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스포츠 협회들과도 함께 일한다.

성공적으로 진행 및 평가되고 있는 예로는 장애인들의 미식축구 활동을 들 수 있다. 영국 장애 스포츠 동맹은 미식축구 협회(Football Association)와 프로 미식축구협회 (Professional Footballers' Association) 과 함께 영국의 장애 미식축구 선수들을 위한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장애 미식축구 선수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1대 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치들, 클럽, 장애인, 장애 스포츠 조직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적 코치들의 연합 내에서 장애 미식축구선수들의 코치 단체 (Coaching Disabled Footballers-National Coaching Foundation) 를 만들어 더욱 더 전문적이고 훌륭한 코치 매뉴얼의 제작과 1대1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있다.

#### ⑤ The Youth Sport Trust (유스 스포츠 위원회)

유스 스포츠 위원회(YST)는 1994년, 생후 18개월부터 18살까지의 아이들의 교내 및 지역사회 안에서의 알찬 체육 교육과 스포츠 프로그램들의 진행을 위해 다른 전문적인 조직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SportsSability’라는 프로그램은 장애 아동·청소년들에게 학교 체육활동 시간과 스포츠를 즐겁게 즐기고, 참여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스 스포츠 위원회는 네트워크를 확장을 위하여 장애인들의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전문 책임자를 두어 이들을 파견하여 학교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선생님들과 코치들에게 장애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게임과 활동들 및 장비들을 다루는 방법을 교육한다.

#### (7) 스코틀랜드 지방의 장애아동 청소년 지원 실태

##### (‘High Life’ leisure card scheme in Highland area)

스코틀랜드의 문화예술체육부처는 모든 시민들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4년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은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여학생들은 7명 중 1명꼴로 현재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남학생들은 3명 중 1명꼴로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직 체육활동과 학업성과의 연관성에 관한 조사는 미흡하지만, 체육활동이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밝혀진 사실이다.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장려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Leisure Card 시스템은 소득보조금을 받는 사람, 장애인보조금을 받는 사람, 60세 이상의 노인, 17세 이상 풀타임 학생들이 신청비를 내고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이다. 레저 카드 소지자들은 각종 문화예술공연을 할인된 금액으로 관람할 수 있고 스포츠센터의 입장이 무료이다. Leisure Card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실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전년도 대비 29.8% 증가했다고 한다. 이 카드는 또 돈을 저장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스포츠센터 내 음료나 필요한 물품들을 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스코틀랜드 문화예술체육부처의 조사에 의하면 시민들은 체육활동의 장애로 시간제약, 이용비용, 지역적 편리성, 체육활동의 중요성의 인식 부족을 꼽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역적 편리성을 꼽았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이 많이 미흡하다고 밝히며 그를 위한 프로그램들의 개발을 촉진했다.

또한 체육과 예술 전문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보통의 학교 학생들보다 훨씬 더 나은 퍼포먼스를 교육받고 공연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예술과 체육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 학생들의 예술학교로의 진학을 장려하고 있다.

#### (8) 영국의 장애인 문화예술체육정책의 시사점

영국의 장애인 문화복지 지원은 ‘팔길이’ 원칙에 의해 산하 기관인 비정부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술, 스포츠, 영화, 문화재 관련 기관 및 박물관과 미술관이 포함된다. 즉,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위원회 등을 통한 비정부공공기구에 의한 장애인 문화복지정책이 실행됨으로써 중앙정부와 유기성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접합한 장애인 문화복지 사업이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율 증가를 위해 ‘새로운 관객개발 프로그램’(New Audiences Programme)<sup>16)</sup>을 실행하는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행사 참여 및 향유를 위해 다각적인 고민과 정책의 시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16) ‘새로운 관객개발 프로그램’ (New Audiences Programme)

: 새로운 예술 감상자를 개발하고, 동시에 새로운 예술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재정지원으로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와 10개 지역의 예술위원회가 협력하여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운영하였는데, 프로그램의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이다.

- ① 예술감상의 장애요인을 밝히고, 극복방안을 강구한다.
- ② 예술관객의 범위와 관객을 증대시킨다.
- ③ 예술감상 공간과 시설의 다양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
- ④ 예술관객을 늘리기 위해 예술기관이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프로그램의 주된 대상은 일반인, 청소년, 소수민족, 장애인, 가족단위 관객, 저소득층, 농촌지역 거주자, 그리고 노인이다.

2002년도에 실시된 영국 장애 청소년들의 레저 활동 경험에 대한 자발적인 보고에 의하면, 그들에게 있어 레저 활동은 친구들과의 교우관계 증진 및 지지, 즐거움, 정보와 경험의 공유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조사되었다. 레저 활동의 기회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주류 문화에 속할 수 있는 상호 관계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긍정적이고 즐거운 삶을 통해 장애인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뇌성마비의 경우 아동시절부터 스포츠를 생활화하여 스포츠를 통한 신체 기능 회복과 재활을 도모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생후 18개월부터 18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The Youth Sport 위원회를 두고 학교와 연계한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 3) 미국

#### (1) 미국의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체육활동 관련 법

미국의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of 1997 과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은 장애를 가진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사회적인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일찍이 이러한 법들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 청소년들만을 위한 부처는 없고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산하에 특별교육과 재활서비스 부처(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ervices)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미국 장애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체육 활동은 비장애인 청소년의 활동과 다를 바 없으므로 미국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을 가름할 수 있다.

#### (2) 미국의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체육활동 관련 정책

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는 1965년 의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연방 정부 소속의 독립 기관으로 모든 미국인들의 예술과 관련된 활동과 참여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여 50

개의 각 주와 도시 및 변두리 지역뿐만 아니라 군부대 지역까지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에서 스포츠 활동에 대한 장애인법의 지원은 2005년 하와이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이론상으로 장애인법은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스포츠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보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하기는 어려웠다. 2005년 하와이에서 어느 10살짜리 청각장애아동은 지역의 아동들로 구성된 야구팀의 일원으로 ‘올스타 포니 리그’라는 야구 토너먼트 경기에 참여하고 있었다. 통역을 위해 수화통역자를 더그아웃으로 불러오려 했으나 입장이 거부되었고, 이에 이 아동의 부모는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일 년 후, 법무부는 협상을 통해, 해당 야구단체가 앞으로 장애가 있는 어린 선수가 이러한 중요한 지역사회의 레크리에이션 활동 참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임으로써 스포츠 활동에 대한 장애인 법의 현실적인 지원이 시작되었다.

### (3) 장애인 문화복지정책의 방향

미국의 문화정책은 문화예술계와 연관되어 있는 공공-민간 정책구조, 문화/인종의 다양성, 자유에 대한 높은 가치 및 욕구 등을 통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는 장애인 문화복지 정책에도 적용되어 공공-민간 정책구조 속에서 장애인 문화관련 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장애인 정책의 특징으로는 크게 ‘지방분권적 특성’, ‘시설운영기관에 의한 서비스 전달’, ‘수혜자에 대한 자조의 원칙 강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17)</sup> 특히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 보장을 위해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를 위해 ‘접근평등’, ‘기회평등’, ‘편의증진’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17) 손기만(2003).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9-30쪽

#### (4) 스포츠 및 문화 활동

##### ① 문화 활동

###### 가. 청각 장애인 국립극단

1967년에 설립된 청각장애자 국립극단은 수화의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활용되어 왔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과의 공유는 청각장애인들의 문화와 예술성에 자긍심을 불러일으켰다. 설립 이래 50개주를 돌며 500회 이상의 전국순회공연과 31회의 외국순회공연, 그리고 총 10,000번 이상의 공연을 해오고 있다. (<http://www.ntd.org>)

###### 나. VSA 아트

1974년,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문화 활동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없는 상황에서 설립된 VSA 아트는 장애를 가진 모든 이들이 예술을 배우고,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장애인 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여줌으로써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를 독려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예술 프로그램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자원과 수단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② 스포츠 활동

###### 가. 스페셜 올림픽

1968년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는 나이에 관계없이 지적장애자들이 스포츠 경기에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스페셜 올림픽을 창설했다. 현재, 스페셜 올림픽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과 성인을 위한 스포츠 훈련 및 운동경기 중 세계에서 가장 큰 프로그램이다. 특히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내 225만 이상의 스페셜 올림픽 선수들과 160여 개국이 연중 열리

고 있는 올림픽 형태의 30종목의 개인 및 팀 스포츠 훈련 및 경기에 참여하고 있다. 스페셜 올림픽은 전 세계에서 오는 오십만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훈련과 코치, 응원을 받고 있으며 이 봉사자들은 기금모금에서부터 운영까지, 이동 수단의 제공에서부터 코치 및 심판에 이르기까지 스페셜 올림픽의 모든 면에서 활약하고 있다<sup>18)</sup>.

#### 나. 건강 증진 프로그램

스페셜 올림픽 기간 중 활동 선수들에게 건강검진 활동을 제공한다. 장애인들 간의, 그 중에서도 특히 발달장애인의 건강상의 차이를 인정한 것이다. 치과검진, 시력검진, 청각검진, 물리치료, 영양 및 몸무게, 그리고 건강한 발이 건강검진의 여섯 가지 분야이다. ‘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건강상의 격차를 줄이고자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페셜 올림픽이 세계 최대의 지적장애인의 건강 서비스 제공자가 되었다.

- ㄱ. 건강검진행사에 기반한 스페셜 올림픽 증진 프로그램 이용증대와 건강관리의 향상.
- ㄴ. 검진 받은 이후의 지속적인 사후 치료를 해당 지역의 의사에게 의뢰.
- ㄷ. 건강관리전문가 및 학생들에게 지적장애인의 요구와 관리에 필요한 의학 기술 교육.
- ㄹ. 지적장애자들의 건강상태와 필요한 조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 및 유포.
- ㅁ. 지적장애자들을 위한 건강 정책과 프로그램의 향상을 지지

#### 4) 일본<sup>19)</sup>

(1) 일본의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단체, **Able Art**

에이블 아트(Able Art)는 1994년 6월에 설립된 일본 장애인들의 문화 예술

18) <http://www.specialolympicsri.org/about.htm>

19) 문화관광부,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05 재구성

적 활동을 지원해주는 비영리 단체이다. 전시회 개최, 포럼 개최, 워크샵, 연구 조사 및 실험적인 아트 스튜디오 운영 등을 통하여 모든 장애인들이 자유와 즐거움의 표현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 ① Atelier Pole-Pole

장애아동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미술활동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대학의 아트 스튜디오를 빌려 미술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매 달 두 번째, 네 번째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제공하며 첫 수업은 공짜로 제공한다.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자유로운 미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줌으로써 그들의 정서지원과 창의력 표출에 도움을 준다.

### ② 전시회

장애인들을 상대로 정기적인 아트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예술인들을 발굴한다. 채택 된 작품들은 책 표지, CD표지 등에 실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실력이 널리 알려질 수 있게 한다. 장애인들의 생활에서 나오는 경험과 창의력에서 비롯된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둔다.

### ③ 워크샵 개최

1997년도부터 정기적으로 워크샵을 개최하여 장애인들의 창의적인 예술 활동과 그들의 예술적 감각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 5) 폴란드

“Creativity without barriers” 페스티벌을 통한 장애아동청소년의 예술 활동 분석연구 초안에 의하면, 폴란드의 창조적 페스티벌은 폴란드 Szczecin 지역에서 활동하는 NGO 그룹, Rainbow 에 의해 주최되고 있는 연간행사이자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적인 가능성과 기술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기회의 장이다. 예술 활동은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지역

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장애에 관한 인식을 일깨워 줄 수 있다.

이 페스티발은 장애인들에 관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깨고 차별을 줄이는 데 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행사를 통해 많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고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6) 호주

### (1) 스포츠 및 레저

호주의 몇 개 주 그리고 부 주에는 스포츠 및 여가활동 협회(Departments of Sport and Recreation)이 있어 장애아 및 장애 청소년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① AUSRAPID Incorporated는 1986년 설립된 전국적인 단체로 호주의 모든 지적 장애인에게 스포츠 및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호주 장애인 운동선수 지원 협회(Australian Athletes with a Disability)는 2002년 설립된 세 곳의 전국 장애인 스포츠 협회의 행정을 담당 기관이다. 세 곳의 전국 장애인 스포츠 협회는 장애인 운동선수를 위한 스포츠 개발과 스포츠 기회에 대한 행정, 장려 및 조정을 담당하며 호주 뇌성마비 스포츠 레크레이션 연방 (Cerebral Palsy Sports and Recreation Federation of Australia), 호주 휠체어 스포츠 협회 (Wheelchair Sports Australia), 및 호주 장애인 스포츠 협회 (Australian Sports Organization for the Disabled)를 포함한다.
- ③ 호주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The Australian Paralympic Committee - APC)는 전국적인 기구로 호주의 엘리트 장애인 운동선수들을 위한 최고수준을 자랑한다.
- ④ 호주 장애인 파도타기 협회 (The Disabled Surfers Association of Australia)는

장애를 지닌 파도타기 선수들이 스포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이다. 장애 때문에 파도타기를 할 수 없는 선수들에게 심판 및 코치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격려한다.

- ⑤ 호주 장애인 동계 스포츠 협회 (Disabled Winter Sport Australia)는 호주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기며 동료 스키선수들과 더불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다면적인 자활 스포츠 지원 단체이다.
- ⑥ **Sailability**는 요트를 통해 장애, 연령 및 재정적, 사회적 불이익을 겪고 있는 이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비영리 자원 단체이다. 사회, 레크리에이션 및 경쟁 활동에서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호주에서 요트 및 보트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표로 한다.
- ⑦ 특수 올림픽(Special Olympics)은 세계 최대의 연중 프로그램으로, 8세 이상의 지적 장애인들이 스포츠 훈련 및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⑧ 참여 스튜디오(Hands on Studio)는 지적 및 신체장애를 지닌 이들에게 예술 교육 그리고 생활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사회 예술 행사 참여 및 장애인들이 예술적 창조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⑨ **FIT** - 장애를 지닌 남녀가 이인승 사이클 타기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인승 사이클 타기에서 기수는 장애물, 도로, 브레이크 및 기어를 견제, 조종하고 뒤에 탄 보조기수는 페달을 조작한다.

## (2) 문화 · 예술

- ① 호주 청각 장애인 연극 (Australian Theatre of the Deaf)은 청각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이중 언어로 제작된 연극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독특한 지원 형태이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장려하고 청각 장애인의 문화적 표현활동을 감상하는 관객층을 확대할 것을 희망한다.

- ② 점화 연극 훈련 및 전시 워크숍 (Ignition Theate Training and Display Workshop)은 점화 연극에 재능이 있고 연극에 열정을 지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으로 전도유망하고 경쟁이 치열한 첨단 과정에 장애인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③ 국제 장애 공연 및 예술인 협회 (International Guild of Disabled Artists and Performers - IGODAP) 는 장애 판정을 받은 공연 및 예술인 단체를 포함하고 회원들은 모든 장르의 프로 및 아마추어 공연 예술인들이다. 시각, 스크린 예술가, 무대 연기자, 댄서, 코미디언, 음악가, 가수, 연설가, 시인, 작가, 제작자, 감독 및 기타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도 포함한다. 그들은 신체적, 지적, 학습, 정신 및 종합적 장애를 경험한다.

## 7) UN(국제연합) 및 주요 국가의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정책에 대한 시사점

UN(국제 연합)의 장애인권리협약이나 세계인권선언, 장애인 권리선언을 보면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해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접근 가능한 형태의 문화적 자료나 매체의 제공, 문화 활동 장소에 접근성을 보장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와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잠재능력 발휘 및 활용 기회 보장, 장애유형별 의사소통기구 확보, 이러한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영국에서는 장애인이 자립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완전한 참여를 강조하며, 문화활동과 여가활동, 스포츠 등을 이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보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예술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생후 18개월부터 18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The Youth Sport**와 같은 위원회를 두고 학교와 연계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단체로 **Able Art** 를 두어 육성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다. 미국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평등’, ‘기회평등’, ‘편의증진’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보장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 IV. 조사결과 분석

1. 연구의 내용
2. 연구분석
3. 전문가 포커스그룹 면접조사



## IV. 조사결과 분석

### 1. 연구내용

#### 1) 장애아동청소년용 설문내용

<표 16> 장애아동청소년용 설문내용

조사 영역		내용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종교, 거주지역, 가구 소득수준,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원인 등
문화 예술	문화예술활동 실태	활동빈도, 활동정보입수경로, 참여형태, 동반참여, 활동시간, 활동프로그램 등
	문화예술활동 만족도 및 욕구	좋은점, 활동의 이유, 애로점, 차별, 만족여부, 활동욕구, 지원요청 프로그램 등
	보조기구 활용의 필요성	이동, 의사소통, 문화향유, 보조기 등
	장애아동청소년 문화관	존재, 개발필요, 생애주기별 문화지원책
	문화예술활동 선호도	문학, 음악, 선호, 연예인 욕구, 미술, 무용 활동 등
체육 활동	체육활동 실태	활동빈도, 활동정보 입수경로, 참여형태, 동반참여, 활동시간
	체육활동 만족도 및 욕구	좋은점, 어려운점, 차별, 만족, 만족이유, 활동욕구
	장애아동청소년 체육관	존재여부, 개발필요, 생애주기별 지원책
	체육활동 선호도	관람, 운동참여, 선수, 만족여부, 활동욕구
	체육활동에 필요한 보조	시각, 청각, 지체(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 등

## 2) 부모용 설문내용

<표 17> 부모용 설문내용

조사 영역		내용
인구학적조사	장애자녀 특성	자녀학력, 성별, 연령, 자녀장애 유형, 등급, 관계, 장애요인 등
	부모의 특성	직업, 교육수준, 종교, 거주지역, 가구소득수준,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
문화예술	문화예술 활동실태	활동빈도 및 시간, 활동정보 입수경로, 참여형태, 활동장소, 권장이유, 제한 고려점, 어려운점, 차별, 경제적 부담, 전문가 욕구, 지원 욕구 등
	문화예술활동 만족도 및 욕구	정책효과, 프로그램 효과, 인프라 조성, 건강도움, 재활치료도움, 사회통합도움, 인식개선도움, 자아존중감 향상, 자아정체성 기여 등
	장애아동청소년 문화관	존재여부, 개발필요,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욕구 등
체육활동	체육활동 실태 및 욕구	활동종목 및 빈도, 활동목적, 활동정보 이수경로, 활동시간, 참여형태, 활동장소, 고려점, 제한점, 어려운점, 경제적 부담, 차별, 체육활동욕구, 지원필요
	체육활동 지원정책 만족도	정책효과, 프로그램효과, 재활치료도움, 건강도움, 사회통합도움, 인식개선도움, 자아존중감 향상, 장애정체성 기여 등
	장애아동청소년 체육관	존재여부, 개발필요성,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 등

### 3) 전문가 포커스그룹 면접조사 내용

〈표 18〉 전문가 포커스 그룹 면접조사

조사 영역		내용
문화 예술 활동 지원 정책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 예술의 현주소	일반인 문화와 장애인 문화의 차이 장애인 향유문화 장애인문화향유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 장애인당사자의 해야 할 부문 부모나 가족이 지원해야 할 부문 국가나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문
	문화예술과 관련된 현재 문제인식	사회적 인프라 구축 문화예술 향유의 이중적 차별구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문화활동 차별금지 인식여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체육 활동 지원 정책	장애아동청소년 체육활동의 현주소	일반인 체육과 장애인체육의 차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체육활동 장애인체육활동에 요구되는 사항 장애인 당사자가 해야 할 부문 부모나 가족이 지원해야 할 부문 국가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문
	체육활동과 관련된 현재의 문제인식	사회적 인프라 구축 이중적 차별구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체육활동 차별금지 인식 여부
	장애아동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체육활동에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전문가의 경험 정책적 제언

## 2. 조사결과

### 1) 장애아동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 (1) 응답자 개인사항

<표 19> 장애아동청소년 설문 응답자 개인 사항

항목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항목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합계		150	100	합계		150	100	
성별	남	90	60	교육수준	중학교 재학	7	4.7	
					고졸이상	127	84.7	
	여	60	40		기타	12	8.0	
	무응답	4	2.7					
본인여부	대리인	본인	98	65.3	거주지역	서울시	60	40.0
		가족	11	21.2		광역시	3	2.0
			친구	2		3.8	수도권 중소도시	36
		교사	11	21.2		지방중소도시	42	28.0
		도우미	25	48.1		군읍면	4	2.7
		기타	3	5.8		기타	1	0.7
		소계	52	34.7		무응답	4	2.7
		연령(세)	13	1		0.7	장애유형	지체장애
14	2		1.3	뇌병변장애	14	9.3		
15	3		2.0	시각장애	17	11.3		
16	4		2.7	청각장애	17	11.3		
17	2		1.3	언어장애	6	4.0		
18	12		8.0	지적장애	27	18.0		
19	12		8.0	자폐성 장애	14	9.3		
20	39		26.0	정신장애	1	0.7		
21	23		15.3	신장장애	3	2.0		
22	18		12.0	호흡기장애	1	0.7		
23	24		16.0	안면장애	1	0.7		
24	10		6.7					

항목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항목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장애등급	1급	39	26.0	장애원인	선천적	69	46.0
	2급	30	20.0		질병	12	8.0
	3급	56	37.3		교통사고 등 사고	27	18.0
	4급	16	10.7		산업재해	1	0.7
	5급	6	4.0		원인불명	1	0.7
	6급	3	2.0		기타	6	4.0
종교	기독교	96	64	가구소득 수준	무응답	34	77.3
	천주교	16	10.7		월100만원 미만	24	16.0
	불교	8	5.3		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8	25.3
	기타	29	19.3		월 200만원 이상~ 월 300만원 미만	20	13.3
	무응답	1	0.7		월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3	15.3
					월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6	10.7
					월 500만원 이상	10	6.7
					무응답	19	12.7

본 설문지의 응답자인 장애아동청소년은 150명으로 이중 남성이 90명(60%), 여성이 60명(40%)이었다. 이중 본인이 응답한 경우는 98명(65.3%)이고 장애아동청소년 당사자가 응답하기 어려워 부모, 형제, 교사, 도우미 등 대리인이 응답을 도운 경우는 52명(34.7%)이었다.

응답자의 연령은 13세~24세 까지 다양한 연령에서 응답을 받았으며, 응답자의 문화예술체육활동 경험이 있고, 자신의 의사표현 능력에 무리가 없는 중등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많아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다.

응답자들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49명(32.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적장애(18.0%)가 많았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연구로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의 의견을 도출하는 경우, 그 응답의 신뢰성 확보가 매우 어려우나 이번 장애당사자 응답자는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의 응답비율도 상당히 높아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할 수 있다. 다만,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는 부모 설문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

하고자 한다.

응답자의 장애등급은 3급(37.3%), 1급(26.0%), 2급(20.0%)의 순으로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83.3%였다. 따라서 중증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서 경험과 욕구를 바탕으로 한 전반적인 지원방안이 도출될 수 있었다.

본 설문문의 응답자 중 선천적 장애인이 69명으로 46%나 되는데, 이는 장애아동청소년의 장애유형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대비 선천적 장애인 비율인 약 10%와는 크게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장애아동청소년에게는 특히 선천적 장애가 갖는 특성에 따른 생애주기별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는 특성과 사고로 장애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회복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응답자 중 종교를 갖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80.7%로 종교활동을 통한 문화예술체육활동도 민간차원에서 더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고, 종교단체를 활용한 지역사회 문화예술체육활동 방안도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었다.

본 설문문에 응답한 장애아동청소년의 가구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평균 가구 소득인 약 340만 원도 되지 않는 300만 원 이하가 54.6%에 달해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내포하고 있다.

## (2)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실태

현재 장애학생들은 주로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3개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에 78명(17.3%)이 연극 및 영화관련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독서 등의 문학활동도 73명(16.2%)이 하고 있었다. 그 외에 역사문화유산과 미술, 서양음악도 많은 수의 장애아동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전통예술이나 무용을 하고 있는 응답자는 매우 낮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20> 현재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

	빈도	퍼센트
문학활동	73	16.2
미술	47	10.5
서양음악	46	10.2
전통예술	8	1.8
무용	5	1.1
연극 및 영화관련	78	17.3
역사문화유산	55	12.2
기타	17	3.7
합계	450	100.0

현재 장애학생들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는 혼자, 또는 가족 등 주변지인과 함께 72명(48.0%),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30명(20.0%)로 나타났고 학교활동외의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가에 대해 30.7%(46명)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표 21> 문화예술활동의 참여형태

문항	빈도	퍼센트
학교 수업으로	17	11.3
동호회 및 동아리 참여	20	13.3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30	20.0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7	4.7
혼자, 또는 가족 등 주변지인과 함께	72	48.0
기타	4	2.7
합계	150	100.0

현재 장애학생들은 1주일에 몇 시간정도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평균 1.96시간으로 조사 되었고 1시간이상~3시간미만이 74명(49.3%)으로 가장 많았고 1시간미만도 47명(31.3%)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학생들이 문화예술활동 시 주로 함께 하는 사람으로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74명(49.3%), 가족들과 함께 27명(18.0%)로 나타났다.

<표 22> 문화예술활동을 할 때 함께 하는 사람

	빈도	퍼센트
혼자	21	14.0
가족들과 함께	27	18.0
또래 친구들과 함께	74	49.3
활동보조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19	12.7
기타	8	5.3
무응답	1	0.7
합계	150	100.0

장애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기관으로는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가 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지관을 이용하는 응답자도 29명으로 두 번째였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은 주민문화센터와 학교방과 후 활동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은 복지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장애유형별 지역사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기관

		학교	도서관	주민문화센터	사설문화센터	복지관	공공시설	전문문화예술기관	기타	전체
장애유형	지체	10	7	11	4	5	3	1	7	48
	뇌병변	5	3	2	0	3	0	1	0	14
	시각	5	1	0	0	8	0	0	3	17
	청각	6	2	3	0	5	0	1	0	17
	언어	3	0	2	0	1	0	0	0	6
	지적	10	2	0	0	5	3	5	0	25
	자폐성	4	0	0	2	2	0	2	4	14
	정신	0	0	1	0	0	0	0	0	1
	신장	0	3	0	0	0	0	0	0	3
	호흡기	1	0	0	0	0	0	0	0	1
	안면	0	0	0	0	0	1	0	0	1
전체	44	18	19	6	29	7	10	14	147	

장애유형을 불문하고 가장 많이 참여해 본 문화예술활동 지원 프로그램으로 문화바우처가 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국영화관람,

장애인 독서활동지원프로그램 순으로 참여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화면을 해설해 주는 영화관람과 장애인e-sports대회, 전자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프로그램은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10%이상이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은 문화바우처 이용이 가장 많았고, 뇌병변 장애인은 한국영화관람이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인은 화면을 해설해주는 영화관람이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인은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은 한국영화관람과 무료관람권 이용이 가장 많았다.

<표 24> 참여경험이 있는 문화예술활동 지원프로그램(중복응답 가능)

	장애유형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안면	
무료관람권이용	13	6	1	3	4	12	2	1	0	1	43
한국영화관람	5	9	2	1	0	17	4	0	0	0	38
화면을 해설영화관람	3	2	7	4	2	3	0	0	0	0	21
장애인독서지원 프로그램	9	1	6	9	1	2	0	0	0	1	29
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	7	0	2	3	2	2	2	0	0	0	18
무용교육	2	0	0	2	0	2	0	1	0	0	7
연극교육	4	0	0	1	0	2	0	1	0	0	8
전자도서관	2	1	11	2	0	3	0	0	0	1	20
장애인 정보 누리터	4	0	5	5	1	9	0	0	0	0	24
미술관의 장애아동 실기 및 감상 프로그램	7	6	0	2	3	2	0	0	3	0	23
국악교육 체험프로그램	5	0	4	0	0	0	0	0	0	0	9
박물관 교육	3	5	1	5	3	6	0	0	0	0	23
기타	5	0	5	2	2	2	0	0	0	0	16
없다	9	3	0	0	0	3	4	0	0	0	19
합계	78	33	44	39	18	65	12	3	3	3	298

현재 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의 정보를 가족 및 친구의 소개가 54명(36.0%), 인터넷(24.0%)을 통해 접하였다고 응답했다.

〈표 25〉 문화예술활동의 정보제공처

문항	빈도	퍼센트
학교에서 소개	19	12.7
가족 및 친구의 소개	54	36.0
청소년 및 장애인센터의 소개	31	20.7
인터넷을 통해	36	24.0
기타	10	6.7
합계	150	100.0

현재 장애학생들은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가 활용을 위해서 45명(30.0%),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32명(21.3%)으로 응답하였다.

〈표 26〉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이유

	빈도	퍼센트
친구를 사귀기 위해	24	16.0
치료의 목적으로	21	14.0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32	21.3
재미있어서	21	14.0
여가 활용을 위해	45	30.0
기타	3	2.0
무응답	4	2.7
합계	150	100.0

장애아동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 시 장애인이라서 어려운 점에 대해 장애 유형별로 분석해 본 결과 지체장애학생 48명 중 21명이 이동수단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고, 청각장애와 지적장애인 중 10명이 선택 가능한 활동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유형의 구분 없이 전체 응답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 응답한 것은 이동수단이 불편해서 42명(30.0%), 선택 가능한 활동이 없어서 40명(28.5%)로 나타났다.

<표 27> 문화예술 활동 시 장애인이라서 어려운 점

(명, %)

		편의 시설 /보장구 지원 부족	이동 수단 불편	선택가 능활동 부재	경제적 부담	사람들 의 시선	기타	전체
장애 유형	지체	7	21	6	6	4	3	45
	뇌병변	6	1	5	2	0	0	14
	시각	5	6	4	0	2	0	17
	청각	3	1	10	0	1	1	15
	언어	0	2	3	0	1	0	6
	지적	3	5	10	2	3	0	23
	자폐성	4	6	2	0	0	0	12
	정신	0	0	0	0	1	0	1
	신장	3	0	0	0	0	0	3
	호흡기	0	0	0	0	0	0	0
	안면	0	0	0	0	1	0	1
전체		31	42	40	10	13	4	140
(% )		(22.1)	(30.0)	(28.5)	(7.1)	(9.2)	(2.8)	(100)

지역사회 문화예술시설 이용 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총 응답자의 28명(18.7%)이 이동이 불편한 점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4명(16.0%)이 장애 학생을 지도할 전문교사가 부족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비용에 있어서도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22명(14.7%)이 꼽았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학생에서는 첫째가 이동의 불편이었고, 두 번째가 비용의 부담이었으며, 뇌병변 장애에서는 전문교사 부족과 활동내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시각장애학생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절대수가 부족하다는 응답과 이동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청각장애인에서는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고 전문교사가 부족한 점을 어려운 점으로 응답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시설 부족과 이동불편, 비용부담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그 외 불편한 시선 때문이라든지, 활동내용이 어렵다는 응답도 골고루 분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장애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8> 장애유형별 지역사회 문화예술시설 이용 시 가장 어려운 점

		문화 예술 시설 부족	이동 불편	비용 부담	활동 내용 수준	전문 교사 부족	프로 그램 부재	불편한 시선	기타	전체
장애 유형	지체	4	15	10	2	5	5	2	4	47
	뇌병변	2	1	1	4	5	1	0	0	14
	시각	6	5	0	2	2	2	0	0	17
	청각	0	1	0	1	6	7	1	1	17
	언어	0	0	2	3	0	0	1	0	6
	지적	6	2	5	2	4	0	1	5	25
	자폐성	2	4	4	0	2	2	0	0	14
	정신	0	0	0	1	0	0	0	0	1
	신장	0	0	0	0	0	0	3	0	3
	호흡기	0	0	0	0	0	0	0	1	1
	안면	0	0	0	0	0	0	1	0	1
전체 (%)	20 (13.3)	28 (18.7)	22 (14.7)	15 (10.0)	24 (16.0)	17 (11.3)	9 (6.0)	11 (7.3)	146 (100)	

현재 장애학생들은 문화예술활동을 할 때 장애인이라서 가장 차별 받는 점으로는 활동 제한이 50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참여제한도 42명(28.0%)로 나타났다.

<표 29> 문화예술활동 시 장애인이라서 받은 차별형태

	빈도	퍼센트
참여거부	8	5.3
참여 제한(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 등을 이유로)	42	28.0
활동 제한(장애인이기 때문에 선택된 활동만 가능케 함)	50	33.3
무시하는 태도	21	14.0
기타	4	2.7
없다	22	14.7
무응답	3	2.0
합계	150	100.0

### (3) 문화예술활동 만족도

응답한 장애학생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보통이다’ 82명((54.7%), ‘아니다’ 23명(15.3%)였다. 이 결과는 자칫 장애아동청소년에게 현재의 문화예술활동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으나 <표IV-2-12>의 문화예술활동의 욕구를 보면, 현재의 문화예술활동 외에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장애아동청소년이 87명(58%)로서, 현재가 만족스럽다기 보다는 더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 같은 응답을 보인것이 아닌가 유추된다. 현재 장애학생들은 현재 하는 문화예술활동 외에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62명(41.3%), 매우 그렇다 25명(16.7%)로 대체적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현재의 문화예술활동 만족 및 더 많은 활동 희망여부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합계
현재 문화예술활동의 만족여부	빈도 (명)	21	17	82	23	7	150
	백분율 (%)	14.0	11.3	54.7	15.3	4.7	100
더 많은 문화예술활동의 희망여부	빈도 (명)	25	62	24	18	13	142
	백분율 (%)	17.6	43.6	16.9	12.7	9.2	100

전체 응답 장애학생들을 볼 때, 문화예술활동 중 연극 및 영화 관련활동을 51명(34.0%)이 더 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는 미술(사진, 서예, 디자인 포함)을 35명(23.3%)이 더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지체장애학생들과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학생에게서 연극이나 영화 관련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크게 나타났고, 청각장애와 지적장애의 경우

미술활동을 더 하고 싶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표 31> 장애유형별 더 하기를 바라는 문화예술 활동

		문학 활동	미술	서양 음악	전통 예술	연극/ 영화 관련	가요/ 연예 관련	역사 문화 유산	기타	전체
장애 유형	지체	7	9	9	1	16	2	0	4	48
	뇌병변	2	2	2	0	6	2	0	0	14
	시각	1	4	2	0	6	3	1	0	17
	청각	0	8	3	1	3	1	1	0	17
	언어	2	4	0	0	0	0	0	0	6
	지적	0	8	2	0	10	4	3	0	27
	자폐성	2	0	0	0	8	2	0	2	14
	정신	0	0	0	0	1	0	0	0	1
	신장	0	0	0	3	0	0	0	0	3
	호흡기	0	0	1	0	0	0	0	0	1
안면	0	0	0	0	1	0	0	0	1	
전체 (%)	14 (9.3)	35 (23.5)	19 (12.7)	5 (3.3)	51 (34.2)	14 (9.4)	5 (3.3)	6 (4.0)	149 (100)	

#### (4)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현재 장애학생들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질문에 각종 문화관련 시설의 장애인 이용료 할인 및 면제 확대 24명(16.0%), 기관 내 도구 및 설비, 장비, 공간 확충 지원 23명(15.3%)로 나타났다.

<표 32>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빈도	백분율
문화관련시설 장애인 이용료 할인/면제 확대	24	17.1
전문전담 인력육성/ 관련인력 교육기관 확충	18	12.8
문화바우처제도 확대	12	8.5
기관 내 도구/설비, 장비, 공간 확충지원	23	16.4
기관 내 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지원	22	15.7
사회전반 장애인복지 시스템 확충(이동수단 등)	18	12.8
장애인 문화활동 프로그램 표준화 모델개발	15	10.7
장애인 문화활동 자조그룹/동아리 육성	8	5.7
합계	140	100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이동시 필요한 보조기구에 대해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은 휠체어 또는 전동휠체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3명으로 응답한 지체/뇌병변 장애학생의 50%를 차지하였고, 목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6명(%), 장애인 휠체어를 탑재할 수 있는 차량 11명(%)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시각장애아동청소년은 응답한 16명 중에 14명이 흰지팡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이동보조기구가 필요할 경우 이들을 이용한 보행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즉,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로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전동휠체어다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의 폭 확보, 이동로의 턱 제거 등이 우선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동보조로 점자블럭설치, 이동로의 손잡이 설치, 턱이나 보행로 구조물 제거 등이 되어야 하고, 음성안내 등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표 33〉 이동시 필요한 보조기구

장애유형	필요한 지원	빈도(명)	백분율(%)
지체장애/뇌병변장애	(전동)휠체어	23/46	50.0
	지팡이/목발	6/46	13.0
	휠체어 탑재 가능 차량	11/46	23.9
시각장애	흰지팡이	14/16	87.5

청각장애와 시각장애에서는 문화예술활동을 하기위한 의사소통 보조기구는 청각장애인용 골도 전화기가 17명 중 9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시각장애인은 점자프린터가 15명 중 11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4〉 장애유형별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보조기구

장애유형	필요한 의사소통기구	빈도(명)	백분율(%)
시각장애	점자프린터	11/15	73.3
	화면낭독프로그램	2/15	13.3
청각장애	골도전화기	9/17	52.9

응답한 장애학생 중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조기구가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시각장애학생은 17명 중 8명이 점자악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진동스피커나 음성인식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청각장애학생은 17명 중 9명이 진동스피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5> 장애유형별 문화예술향유에 필요한 보조기구

장애유형	필요한 보조기구	빈도	백분율
시각장애	점자악보	8/17	
	진동스피커	4/17	
	음성인식기	2/17	
청각장애	진동스피커	9/17	

#### (5) 장애아동청소년 문화개발 및 지원

비장애아동청소년에서는 ‘아동 문화’라든지 ‘청소년문화’가 그 발달기의 특성과 욕구에 적절하게 형성되어있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여가생활을 뛰어넘어 교육적 효과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들이 도입되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장애아동청소년문화는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 또래와 함께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에 질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정책적 지원 없이 문화예술활동의 사각지대에 소외된 존재로 남아야 했다. 따라서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라는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문화의 특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 짚어보고자 했다.

응답한 장애학생들은 장애아동문화, 장애청소년문화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50명(33.3%), ‘매우 그렇다’ 21명(14.0%)로 대체로 자신들의 특별한 문화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장애아동문화」, 「장애청소년문화」의 존재와 개발의 필요성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합계
장애아동문화/ 장애청소년문화 존재여부	빈도 (명)	21	50	27	39	12	149
	백분율 (%)	14.0	33.3	18.0	26.0	8.0	100
장애아동문화/ 장애청소년문화 개발의 필요성	빈도 (명)	62	56	18	9	2	147
	백분율 (%)						100

응답한 장애학생들은 ‘장애아동문화’, ‘장애청소년문화’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매우 그렇다’ 62명(41.3%), ‘그렇다’ 56명(37.3%)로 대다수가 장애에 맞는 특별한 문화가 개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장애학생들은 장애아동 장애청소년 생애주기별 문화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정책 필요성 여부에 대해 ‘필요하다’ 58명(38.7%), ‘매우 필요하다’ 56명(37.3%)로 대부분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장애아동청소년 생애주기별 문화지원 정책의 필요성

	빈도	퍼센트
매우 필요하다	56	37.3
필요하다	58	38.7
보통이다	23	15.3
필요하지 않다	7	4.7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2.7
무응답	2	1.3
합계	150	100.0

응답한 장애아동 청소년에게 이들의 문화예술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무엇 일지를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150명의 학생 중 25명이 응답하였는데, 그중 장애유형에 적절한 참여가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

명, 이동권 보장이나 지원을 7명의 응답자가 답하였다.그 외에 시설 확충,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접근성 확보, 비용지원, 인식개선, 지원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6) 문화예술활동 선호도

어떠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우선 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지를 알아보기 위해 크게 4가지 영역의 문화예술활동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는 문학, 음악, 미술에서는 대체로 매우 좋아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무용활동은 선호도가 낮았다. 이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이 13세 이상의 장애학생에 이루어져, 무용을 한다는 것이 다소 어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며, 무용은 장애학생들에게 그 신체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어려서부터 흔히 접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선호하는 문화예술활동 중 음악은 71.3%의 응답자가 좋아한다는 응답을 하였고, 미술은 50.7%가 좋아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문학은 48.6%가 좋아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문화예술활동의 선호도를 보아,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들 활동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 장애아동청소년도 활발한 활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표 38> 문화예술활동 선호도

	문학활동을 좋아함		음악활동을 좋아함		미술활동을 좋아함		무용활동을 좋아함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혀 아니다	13	8.7	1	0.7	8	5.3	25	16.7
아니다	12	8.0	11	7.3	32	21.3	47	31.3
보통이다	47	31.3	29	19.3	31	20.7	38	25.3
그렇다	47	31.3	68	45.3	37	24.7	21	14.0
매우 그렇다	26	17.3	39	26.0	39	26.0	12	8.0
무응답	5	3.3	2	1.3	3	2.0	7	4.7
합계	150	100.0	150	100.0	150	100.0	150	100.0

(7) 문화예술활동 관련 장래희망

문화예술에 대한 타고난 자질을 갖고 있는 장애아동청소년이 이러한 hkf 동을 활발히 함으로써 장래에 문화예술가로서의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것은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갖는 것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의 한 모형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소수의 장애아동청소년이 문화예술가의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장애인 전문체육인의 육성과 같은 맥락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의 <표 39>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한 장애아동청소년 중 가장 많은 수가 매우 되기를 희망하는 장래희망으로 꼽은 것은 미술가(14.7%)이고, 그 다음으로는 음악가(12.7%)이다. 긍정의 응답을 한 수로는 미술가 음악가 외에 연예인이 되고 싶다거나 문학가가 되고 싶다는 응답도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했다.

<표 39> 문화예술활동 관련 장래희망

	문학가를 희망함		음악가를 희망함		미술가를 희망함		연예인을 희망함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혀아니다	23	15.3	20	13.3	28	18.7	41	27.3
아니다	53	35.3	61	40.7	54	36.0	42	28.0
보통이다	45	30.0	26	17.3	23	15.3	26	17.3
그렇다	9	6.0	22	14.7	19	12.7	21	14.0
매우그렇다	12	8.0	19	12.7	22	14.7	2	1.3
무응답	8	5.3	2	1.3	4	2.7	18	12.0
합계	150	100.0	150	100.0	150	100.0	150	100.0

하지만 이러한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장래희망이라고 꼽은 수에 비해 모른다는 응답이 많이 나타났다.

〈표 40〉 장래에 문화예술인이 되기 위한 방법 인지여부

	문학가		음악가		미술가		연예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혀 모른다	17	11.3	17	11.3	25	16.7	39	26.0
모른다	63	42.0	50	33.3	44	29.3	47	31.3
보통이다	34	22.7	47	31.3	43	28.7	25	16.7
안다	18	12.0	21	14.0	18	12.0	16	10.7
잘 알고있다	5	3.3	6	4.0	7	4.7	3	2.0
무응답	13	8.7	9	6.0	13	8.7	20	13.3
합계	150	100.0	150	100.0	150	100.0	150	100.0

(8) 체육 활동 참여 실태

응답한 장애학생들은 체육 활동 중 가장 자주 하는 활동 2가지를 조사하는 항목에서 장애아동청소년은 농구, 야구, 축구 등 구기종목(17.3%)과 육상, 수영, 역도 등 기초종목(17.3%), 배드민턴, 탁구 등 생활체육(16.3%)으로 나타났다.

〈표 41〉 장애유형별 체육활동 중 가장 자주 하는 활동(택2)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호흡기 장애	안면 장애	합계
농구, 야구, 축구 등 구기종목	8	6	1	12	6	9	6	1	3	0	0	52
육상, 수영, 역도 등 기초종목	9	1	3	13	3	13	4	1	3	5	0	52
요가, 발레 등 예술종목	7	1	2	3	0	5	3	0	3	1	1	25
보치아, 론볼 등 장애인 전문체육	7	1	0	0	0	0	1	1	0	0	0	10
배드민턴, 탁구 등 생활체육	12	5	3	10	3	12	2	0	0	0	1	48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호흡기 장애	안면 장애	합계
기타	15	5	6	1	0	8	2	0	0	0	0	37
합계	58	19	15	39	12	47	18	3	9	3	2	225
백분율	25.8	8.5	6.7	17.3	5.3	20.9	8.0	1.3	4.0	1.3	0.9	100.0

응답한 장애학생들 중 체육활동에 개인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자가 50명 (33.7%), 동호회 및 동아리 참여 34명 (22.7%)로 나타났고, 주당 체육활동을 하는 시간은 1시간 이상~ 3시간미만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40.0%, 1시간미만으로 하는 사람이 38.7%로, 주당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시간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체육활동 참여형태

	빈도	퍼센트
개인적으로	50	33.3
동호회 및 동아리 참여	34	22.7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28	18.7
종교 활동으로	1	0.7
기타	17	11.3
무응답	17	11.3
합계	147	100.0

<표 43> 학교체육 외의 체육활동 참여

	빈도	퍼센트
전혀 아니다	28	18.7
아니다	41	27.3
보통이다	32	21.3
그렇다	35	23.3
매우 그렇다	10	6.7
무응답	4	2.7
합계	150	100.0

〈표 44〉 1주당 체육활동 시간

	빈도	퍼센트
1시간 미만	58	38.7
1시간이상~3시간미만	60	40.0
3시간이상~5시간미만	7	4.7
5시간이상~7시간미만	6	4.0
무응답	19	12.7
합계	150	100.0

응답자가 체육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경우 (36.7%)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지역사회에서 하는 활동으로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25.3%를 차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하는 체육활동비율이 높아 또래와 하는 활동도 자연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45〉 체육활동 시 함께 하는 사람

	빈도	퍼센트
혼자	20	13.3
가족들과 함께	25	16.7
또래 친구들과 함께	55	36.7
활동보조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19	12.7
기타	9	6.0
무응답	22	14.7
합계	150	100.0

또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응답자가 25명 (16.7%)이고, 자원봉사자가 함께 하는 비율도 12.7%가 있어 장애로 인해 도움이나 지지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체육관련 기관은 학교(방과 후 활동) 38명 (25.3%), 야외체육시설(공원체육시설 등) 25명(16.7%)로 나타났고, 그 외 개인적으로 사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도 높았으나, 국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체육시설인 곰두리체육관을 이용하는 응답자는 3.3%에 불과하여,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 장애인체육정책지원을 누리지 못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6> 현재 지역사회에서 참여하고 있는 체육관련 기관

	빈도	퍼센트
학교(방과 후 활동)	38	25.3
야외체육시설(공원체육시설 등)	25	16.7
주민문화센터	10	6.7
시설체육시설(헬스클럽, 태권도장 등)	17	11.3
복지관	10	6.7
공공체육관	8	5.3
장애인 전문 체육시설(곰두리 체육관 등)	5	3.3
기타	19	12.7
무응답	18	12.0
합계	150	100.0

<표 47> 체육활동을 알게 된 경위

	빈도	퍼센트
학교에서 소개	19	12.7
가족 및 친구의 소개	49	32.7
청소년 및 장애인센터의 소개	28	18.7
인터넷을 통해	13	8.7
기타	22	14.7
무응답	19	12.7
합계	150	100.0

특히 장애학생들은 현재 하고 있는 체육활동을 알게 된 경로도 가족 및 친구의 소개가 49명(32.7%)으로 가장 높아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스스로 정보를 찾는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청소년 및 장애인 센터의 소개나 학교의 소개, 인터넷 등의 경로로 정보를 얻고 있었는데, 개인적 차원보다는 이러한 정보제공처에 장애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8〉 장애유형별 체육활동의 장점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호흡기 장애	안면 장애	합계
재활치료	48	22	9	7	0	19	12	0	0	1	0	118
여가선용	47	18	20	32	15	27	6	0	0	3	0	168
건강증진	64	10	27	21	1	41	20	2	0	0	3	189
전문선수가 될 수 있음	10	4	0	0	0	7	6	0	0	0	0	27
또래친구 사귀기	19	4	16	21	8	34	6	3	0	2	1	114
자존감 향상	12	9	5	18	6	19	4	1	9	0	2	85
기타	6	0	3	0	0	0	0	0	0	0	0	9
합계	206	67	80	99	30	147	54	6	9	6	6	710
백분율	29.0	9.4	11.3	14.0	4.3	20.7	7.6	0.8	1.3	0.8	0.8	100.0

현재 장애학생들은 체육활동을 할 때 장애인이라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선택 가능한 활동이 없음’을 가장 다수(47명, 31.3%)가 지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편의시설 및 보장구 지원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9명(28.3%)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아동청소년이 체육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복지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동권 확보와 장애유형별, 수준별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특히 장애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인에게서는 이동이나 보장구 지원 등이 체육활동에서 장애인이라 어려움을 겪는 점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지적 장애인에게서는 선택할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있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의 장애유형별로 공히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49> 체육 활동 시 장애인이라서 가장 어려운 점

		체육 활동을 할 때 장애인이라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전체
		편의시설 및 보장구 지원이 부족해서	이동수단 이 불편 해서	선택 가능한 활동이 없어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기타	없다	
장애 유형	지체장애	8	10	13	2	4	1	3	41
	뇌병변장애	6	1	5	1	1	0	0	14
	시각장애	6	3	7	0	0	1	0	17
	청각장애	6	0	8	0	3	0	0	17
	언어장애	2	0	0	0	4	0	0	6
	지적장애	6	2	12	5	0	0	2	27
	자폐성장애	2	4	2	0	0	0	2	10
	정신장애	0	0	0	0	1	0	0	1
	신장장애	3	0	0	0	0	0	0	3
	호흡기장애	0	0	0	0	0	1	0	1
	안면장애	0	0	0	0	1	0	0	1
전체		39	20	47	8	14	3	7	138

응답자가 체육활동 참여 시 받는 차별의 형태로는 적극적 참여거부는 5.3%에 불과하나 사고 등의 우려로 참여를 제한 당했던 경우가 36.0%에 이르렀다. 또한 선택 가능한 활동이 부족한 가운데 활동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활동이 제한되었던 경우도 30.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차별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각 6명 있었고, 무시하는 태도, 공간 부족, 접근성 부족 등이 이유로 나타났다.

<표 50> 체육활동을 할 때 장애인이라서 가장 차별받는 점

	빈도	퍼센트
참여 거부	8	5.3
참여 제한(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 등을 이유로)	54	36.0
활동 제한(장애인이기 때문에 선택된 활동만 가능케 함)	46	30.7
무시하는 태도	9	6.0
기타	2	1.3
없다	20	13.3
무응답	11	7.3
합계	150	100.0

응답한 장애학생들은 지역사회 체육시설을 이용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동이 불편 28명(18.7%), 참여할만한 프로그램 없음 25명(16.7%), 체육 시설 수 의 절대부족을 25명(16.7%)이 응답하였다.

<표 51> 지역사회 체육시설을 이용 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지역사회 체육시설을 이용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전체
		체육 시설 수의 절대 부족	이동이 불편	비용이 부담	활동 내용이 어려움	장애 학생을 지도할 전문 교사 부족	참여 할 만한 프로그램 없음	이용 시 불편한 시설	기타	
장애 유형	지체장애	2	14	8	6	4	4	2	5	45
	뇌병변장애	8	2	0	4	0	0	0	0	14
	시각장애	3	2	0	2	2	0	2	0	11
	청각장애	0	0	0	4	7	5	0	1	17
	언어장애	2	0	0	0	0	3	1	0	6
	지적장애	10	2	1	0	5	9	0	0	27
	자폐성장애	0	8	0	0	0	0	0	2	10
	정신장애	0	0	0	1	0	0	0	0	1
	신장장애	0	0	0	0	0	3	0	0	3
	호흡기장애	0	0	0	0	0	0	0	1	1
안면장애	0	0	0	0	0	1	0	0	1	
전체	25	28	9	17	18	25	5	9	136	
백분율										

(9) 체육활동의 만족도

응답한 장애아동청소년들은 현재의 체육활동에 대해 보통이다 49명(32.7%),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32명(21.3%)로 응답하였다.

<표 52> 현재의 체육활동 만족도

	빈도	퍼센트
매우 만족스럽다	14	9.3
만족스럽다	29	19.3
보통이다	49	32.7
만족스럽지 않다	11	7.3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32	21.3
무응답	15	10.0
합계	150	100.0

현재 장애학생들은 현재 하고 있는 체육활동 외에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49명(32.7%), 보통이다 34명(22.7%)로 대체적으로 더 많은 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학교체육활동 외에 더 많은 활동 희망여부

	빈도	퍼센트
전혀 아니다	11	7.3
아니다	25	16.7
보통이다	34	22.7
그렇다	49	32.7
매우 그렇다	29	19.3
무응답	2	1.3
합계	150	100.0

현재 장애학생들은 체육활동 중 더 하고 싶은 활동으로 육상, 수영, 역도 등 기초종목 41명(27.3%), 농구, 야구, 축구 등 구기종목 38명(25.3%)을 응답하여서 기초종목과 구기종목을 더 하고 싶다는 선호도를 보였다.

<표 54> 장애유형별 더 하기 원하는 체육활동

		체육활동 중 어떤 활동을 더 하고 싶습니다?						전체
		농구, 야구, 축구 등 구기 종목	육상, 수영, 역도 등 기초 종목	요가, 발레 등 예술 종목	보치아, 론볼, 등 장애인 전문 체육	베드민턴, 탁구 등 생활 체육	기타	
장애 유형	지체장애	9	12	5	4	4	6	40
	뇌병변장애	6	3	0	0	0	4	13
	시각장애	2	5	2	1	0	1	11
	청각장애	7	8	0	2	0	0	17
	언어장애	4	2	0	0	0	0	6
	지적장애	5	8	3	9	0	0	25
	자폐성장애	4	2	0	0	4	2	12
	정신장애	0	1	0	0	0	0	1
	신장장애	0	0	0	3	0	0	3
	호흡기장애	1	0	0	0	0	0	1
	안면장애	0	0	1	0	0	0	1
	전체	38	41	11	19	8	13	130
백분율								

(10) 장애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정책개발과 지원

현재 장애학생들은 장애아동 장애청소년 생애주기별 체육활동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66명(44.0%), 매우 그렇다 57명(38.0%)로 장애아동청소년이 성인장애인의 체육활동정책의 한 부분이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에 매우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표 55> 장애아동 장애청소년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 정책필요성

	빈도	퍼센트
매우 그렇다	57	38.0
그렇다	66	44.0
보통이다	18	12.0
그렇지 않다	1	0.7
전혀 그렇지 않다	6	4.0
무응답	2	1.3
합계	150	100.0

현재 장애학생들은 장애아동체육, 장애청소년체육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 37명(24.7%), 그렇다 34명(22.7%)로 응답하였다.

<표 56> 「장애아동체육」, 「장애청소년체육」 존재인지 여부

	빈도	퍼센트
매우 그렇다	28	18.7
그렇다	34	22.7
보통이다	37	24.7
그렇지 않다	21	14.0
전혀 그렇지 않다	23	15.3
무응답	7	4.7
합계	150	100.0

현재 장애학생들은 장애아동체육, 장애청소년체육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62명(41.3%), ‘매우 그렇다’ 61명(40.7%)로 대부분이 장애아동 청소년 체육 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장애아동청소년 체육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동권 확보, 장애인을 전문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와 전문교사의 투입, 장비의 지원, 실비지원 등의 의견이 나왔다.

〈표 57〉 「장애아동체육」, 「장애청소년체육」 개발 필요성

	빈도	퍼센트
매우 그렇다	61	40.7
그렇다	62	41.3
보통이다	14	9.3
전혀 그렇지 않다	8	5.3
무응답	5	3.3
합계	150	100.0

(11) 체육활동 선호도

현재 장애학생들은 운동경기 관람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49명(32.7%), 보통이다 35명(23.3%)로 대체적으로 운동경기 관람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학생들은 운동하는 것이 즐거운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 52명(34.7%), 그렇다 37명(24.7%)로 대체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즐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현재 장애학생들이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 49명(32.7%), 보통이다 30명(20.0%)로 대체적으로 운동선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체육활동 유형별 선호도

	운동관람을 좋아함		체육활동을 좋아함		운동선수가 되기를 희망함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혀 아니다	15	10.0	7	4.7	36	24.0
아니다	15	10.0	19	12.7	49	32.7
보통이다	35	23.3	52	34.7	30	20.0
그렇다	49	32.7	37	24.7	10	6.7
매우 그렇다	31	20.7	28	18.7	17	11.3
무응답	5	3.3	7	4.7	8	5.3
합계	150	100.0	150	100.0	150	100.0

## 2) 부모용 설문조사 결과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에는 부모의 관심이나 개입, 적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의지는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여러 가지 활동에 다양하게 노출되도록 하는데 1차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갖게 한다. 특히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의 발달장애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거의 모든 일에 장애자녀와 함께 움직이고 함께 느끼므로 보호자이기도 하지만, 부모들을 장애인당사자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장애아동청소년이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지원을 알아봄으로써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조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부모들의 시각에서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장점과 현실적 문제를 알아보고 대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부모용 설문을 따로 구성하였다.

### (1) 부모용 설문 응답자 일반사항

전체 부모응답자는 자녀 연령이 아동청소년기에 있는 100명으로,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이상인 부모가 75%를 넘어, 이미 장애자녀가 아동기와 중학교시기를 거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애로 인해 어려운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점 등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리라고 분석된다.

이들의 자녀의 장애유형으로는 지적장애가 39%로 가장 많으며, 지체 21%, 뇌병변 19%이고, 자폐성 장애의 비율도 12%에 이른다. 따라서 지적장애와 발달장애아동 청소년의 당사자 설문조사에서 도출되지 못한 결과가 이 조사에서 의미있게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자녀의 장애등급은 1급이 56%, 2급 22%, 3급이 10%로 전체의 88%가 중증장애인이라 할 수 있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지원방안이 더욱 의미있게 도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애자녀의 장애원인은 선천적인 원인이 70%,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20%로서 후천적 장애는 10%정도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결과

에서는 생애주기별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조사에서는 부모의 소득이 200~300만원이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300~400만 원도 20%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체 장애인가정의 일반적인 경제상황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9> 부모응답자 일반사항

항목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항목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합계	100	100		합계	100	100
자녀성별	남	61	61.0	자녀의 교육 수준	초등학교재학	8	8.0
					중학교재학	15	15.0
	고등학교재학	41	41.0				
	고등학교 졸업	36	36.0				
관계	부	8	8.0	거주 지역	서울시	67	67.0
	모	89	89.0		기타 광역시	13	13.0
					수도권 중소도시	15	15.0
					지방 중소도시	5	5.0
자녀연령 (세)	11	3	3.0	장애 유형	지체장애	21	21.0
	12	4	4.0		뇌병변장애	19	19.0
	13	1	1.0		시각장애	5	5.0
	14	1	1.0		지적장애	39	39.0
	15	9	9.0		자폐성 장애	12	12.0
	16	5	5.0		청각장애	4	4.0
	17	19	19.0	자녀의 장애 등급	1급	56	56.0
	18	13	13.0		2급	22	22.0
					3급	10	10.0
					4급	1	1.0
					5급	2	2.0
	19	4	4.0	6급	2	2.0	
	응답자 직업	20	15	15.0	사무직	25	25.0
		21	6	6.0	기능직	29	29.0
		22	8	8.0	전문 기능직	4	4.0
		23	6	6.0	서비스 전문직	3	3.0
농업, 어업, 축산업 등					2	2.0	
24		6	6.0	주부	34	34.0	
				기타	3	3.0	

항목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항목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응답자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3	3.0	장애 원인	선천적	70	70.0
	고등학교 졸업	41	41.0		질병	5	5.0
	대학교 졸업	52	52.0		교통사고 등 사고	4	4.0
	대학원 졸업 이상	3	3.0		원인불명	20	20.0
	무응답	1	1.0		기타	1	1.0
종교	기독교	74	74.0	가구 소득 수준	월100만원 미만	4	4.0
	천주교	6	6.0		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	10.0
	불교	12	12.0		월 200만원 이상~ 월 300만원 미만	45	45.0
	기타	8	8.0		월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0	20
					월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7	7.0
					월 500만원 이상	6	6.0
					기타	8	8.0

현재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9%로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으로는 미술 26명(29.2%), 서양음악 25명(28.1%)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극이나 영화관련 활동도 25.8%로 대체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 (2) 자녀의 문화예술 참여 실태

<표 60> 자녀가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

	빈도	퍼센트
문학활동	5	5.6
미술	26	29.2
서양음악	25	28.1
전통예술	1	1.1
무용	2	2.2
연극 및 영화관련	23	25.8
가요, 연예관련	2	2.2
기타	5	5.6
합계	89	100.0

장애자녀의 주당 문화예술 활동 시간을 약 2시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0명 (40.5%), 약 4시간 22명 (29.7%)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서의 활동을 포함하든 하지 않든 간에, 독서와 영화감상 등 일반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향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시간이라서 또래의 아동청소년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시간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시간으로 볼 수 있다.

<표 61> 문화예술 활동시간

	빈도	퍼센트
약1시간	2	2.7
약2시간	30	40.5
약4시간	22	29.7
약5시간	5	6.8
약6시간	9	12.2
약8시간	1	1.4
약10시간이상	5	6.8
합계	74	100.0

장애자녀가 현재 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의 정보를 청소년 및 장애인센터의 소개로 얻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46명 (46.5%), 학교에서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20명 (20.2%)이었다.

<표 62> 자녀의 문화예술활동 정보제공처

	빈도	퍼센트
학교에서 소개	20	20.2
가족 및 친구의 소개	9	9.1
청소년 및 장애인센터의 소개	46	46.5
인터넷을 통해	9	9.1
기타	15	15.2
합계	99	100.0

자녀의 문화예술활동의 참여 형태는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가 77명 (43.0%)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활동 중의 참여가 63명 (35.2%)으로 나타났다.

〈표 63〉 자녀의 문화예술활동 참여형태

	빈도	퍼센트
학교 수업으로	12	6.7
동호회 및 동아리 참여	3	1.7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77	43.0
종교활동 중에	63	35.2
혼자, 또는 가족 등 주변지인과 함께	11	6.1
기타	13	7.3
합계	179	100.0

장애 자녀들이 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장소는 복지관 등의 복지시설에서 한다는 응답이 50명 (50.0%), 종교단체나 기관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20명 (20.0%)으로 나타났다.

〈표 64〉 자녀의 문화예술활동 장소

	빈도	퍼센트
복지관 등 복지시설	50	50.0
집	8	8.0
종교단체나 기관	20	20.0
도서관	1	1.0
문화센터	13	13.0
학교 방과 후 활동	6	6.0
기타	2	2.0
합계	100	100.0

### (3) 장애자녀의 문화예술활동에서 중요 사항

장애자녀의 문화예술활동을 허락, 권장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부모들은 사회성 발달(43명, 44.3%)과 흥미(24명, 24.7%)를 꼽았고, 건강증진이나 직업과 연계되기를 바라는 기대도 고려대상이 되고 있었다.

〈표 65〉 장애자녀의 문화예술활동 시 가장 크게 고려하는 점

	빈도	퍼센트
흥미	24	24.7
건강 증진	15	15.5
사회성 발달	43	44.3
학업과 연계	1	1.0
직업과 연계	14	14.4
합계	97	100.0

현재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고 싶어 하는 문화예술활동을 제한해야 할 때 가장 고려하는 점을 묻는 질문에 자녀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28명 (28.0%), 이동수단이 불편해서 27명 (27.0%)로 응답했다.

〈표 66〉 장애자녀의 문화예술활동을 제한하는 이유

	빈도	퍼센트
편의시설 및 보장구 지원이 부족해서	22	22.0
이동수단이 불편해서	27	27.0
자녀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28	28.0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23	23.0
합계	100	100.0

현재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가 문화예술활동을 할 때 장애인이어서 가장 어려운 점을 선택 가능한 활동이 없어서 59명 (59.0%), 이동수단이 불편해서 18명 (18.0%), 편의시설 및 보장구 지원이 부족해서를 11명이 꼽았다. 응답자의 경제적 수준이 빈곤층이 아니라 경제적 지원에 대한 내용은 큰 비율을 차지하지 않았다.

<표 67> 자녀의 문화예술활동 시 장애인이라서 어려운 점

		퍼센트
편의시설 및 보장구 지원이 부족해서	11	11.0
이동수단이 불편해서	18	18.0
선택 가능한 활동이 없어서	59	59.0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8	8.0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2	2.0
없다	2	2.0
합계	100	100.0

현재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가 문화예술활동을 할 때 장애인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형태로 활동 제한 54명 (54.0%), 참여 제한 37명 (37.0%)이 응답하였다.

<표 68> 문화예술활동 시 장애인이라서 받는 차별형태

	빈도	퍼센트
참여 거부	2	2.0
참여 제한(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 등을 이유로)	37	37.0
활동 제한 (장애인이기 때문에 선택된 활동만 가능케 함)	54	54.0
무시하는 태도	2	2.0
기타	3	3.0
없다	2	2.0
합계	100	100.0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빈곤층이 아니더라도 장애자녀가 문화예술활동을 지속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 42명, 그렇다 39명으로 나타났다.

<표 69> 자녀의 문화예술활동 지속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빈도	퍼센트
전혀 아니다	5	5.0
아니다	1	1.0
보통이다	13	13.0
그렇다	39	39.0
매우 그렇다	42	42.0
합계	100	100.0

현재 장애자녀가 지역사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문화예술관련 기관을 묻는 질문에 대해 복지관 44명 (44.0%), 주민문화센터 20명 (20.0%)으로 응답하였다.

<표 70> 장애자녀가 지역사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문화예술관련 기관

	빈도	퍼센트
학교(방과후 활동)	12	12.0
주민문화센터	20	20.0
사설문화센터(백화점 등)	7	7.0
복지관	44	44.0
공공기관시설	1	1.0
기타	16	16.0
합계	100	100.0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지역사회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참여 할 만한 프로그램 없음’ 34명 (34.0%), ‘문화예술 시설 수의 절대 부족’을 29명 (29.0%)이 꼽았다.

〈표 71〉 지역사회 문화예술시설 이용 시, 가장 어려운 점

	빈도	퍼센트
문화예술 시설 수의 절대 부족	29	29.0
이동이 불편	21	21.0
비용이 부담	4	4.0
활동내용이 어려움	2	2.0
장애학생을 지도할 전문교사 부족	10	10.0
참여 할 만한 프로그램 없음	34	34.0
합계	100	100.0

현재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가 좀 더 많은 문화예술활동을 하기를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46명 (46.0%), 그렇다 30명 (30.0%)로 나타났다.

〈표 72〉 자녀의 문화예술활동 참여확대 희망정도

	빈도	퍼센트
전혀 아니다	1	1.0
아니다	7	7.0
보통이다	16	16.0
그렇다	30	30.0
매우 그렇다	46	46.0
합계	100	100.0

현재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문화예술활동 중 자녀가 어떤 활동을 더 하면 좋겠는지 묻는 질문에 미술 31명 (31.6%), 서양음악 22명 (22.4%)로 나타났다.

〈표 73〉 문화예술활동 중 자녀의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

	빈도	퍼센트
문학활동(독서포함)	12	12.2
미술(사진, 서예, 디자인 포함)	31	31.6
서양음악(감상, 연주, 창작 포함)	22	22.4
전통예술	2	2.0
연극 및 영화 관련	13	13.3
가요, 연예 관련	14	14.3
기타	4	4.1
합계	98	100.0

현재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가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 35명 (35.7%), 보통이다 26명 (26.5%)로 나타났다.

〈표 74〉 자녀가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정도

	빈도	퍼센트
전혀 아니다	2	2.0
아니다	35	35.7
보통이다	26	26.5
그렇다	19	19.4
매우 그렇다	16	16.3
합계	98	100.0

현재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을 묻는 질문에 전문, 전담 인력 육서 및 교육기관 확충과 기관 내 도구 및 설비, 장비, 공간 확충지원,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순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아 장애학생들에 맞는 문화예술 활동의 전문가, 시설, 프로그램 등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기회의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75> 장애학생이 문화예술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복수응답)

	빈도	퍼센트
이용료 할인 및 면제확대	38	12.9
전문, 전담 인력 육성 및 교육기관 확충	63	21.4
문화바우처제도의 확대	29	9.8
기관 내 도구 및 설비, 장비, 공간 확충지원	61	20.7
기관 내 편의시설 확충지원	15	5.1
이동수단 등 장애인복지시스템 확충	37	12.5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44	14.9
문화예술 활동 자조 그룹, 동아리 육성	8	2.7
합계	295	100.0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장애아동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문화예술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36명 (36.7%), 그렇다 27명 (27.6%)로 나타났다.

<표 76> 장애아동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문화예술정책의 효과성

	빈도	퍼센트
전혀 아니다	2	2.0
아니다	8	8.2
보통	25	25.5
그렇다	27	27.6
매우 그렇다	36	36.7
합계	98	100.0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장애아동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민간단체 또는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 54명 (56.3%), ‘보통이다’ 22명 (22.9%)로 나타났다.

<표 77> 장애아동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민간단체 또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빈도	퍼센트
전혀 아니다	2	2.1
아니다	3	3.1
보통이다	22	22.9
그렇다	54	56.3
매우 그렇다	15	15.6
합계	96	100.0

현재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장애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47명 (47.0%), 아니다 36명 (36.0%)로 나타났다.

<표 78> 장애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정도

	빈도	퍼센트
전혀 아니다	47	47.0
아니다	36	36.0
보통	8	8.0
그렇다	3	3.0
매우 그렇다	6	6.0
합계	100	100.0

장애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이 장애자녀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였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51명 (52.0%), 그렇다 35명 (35.7%), 재활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54명 (55.1%), 그렇다 31명 (31.6%),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도움을 주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48명 (49.0%), 그렇다 34명 (34.7%), 장애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52명 (54.2%) 그렇다 33명 (34.4%), 장애자녀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58명 (59.2%), 그렇다 31명 (31.6%)로 응답하여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의 효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4)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기여도

<표 79> 문화예술활동이 자녀에게 기여정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		재활치료		사회통합		인식개선		자아존중감 향상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혀 아니다	0	0.0	0	0.0	0	0.0	0	0.0	0	0.0
아니다	3	3.1	2	2.0	2	2.0	2	2.1	2	2.0
보통이다	9	9.2	11	11.2	14	14.3	9	9.4	7	7.1
그렇다	35	35.7	31	31.6	34	34.7	33	34.4	31	31.6
매우 그렇다	51	52.0	54	55.1	48	49.0	52	54.2	58	59.2
합계	98	100.0	98	100.0	98	100.0	96	100.0	98	100.0

또한 장애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이 건전한 장애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54명 (55.1%), ‘그렇다’ 31명 (31.6%)으로 문화예술활동이 장애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과 밀접하고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80> 문화예술활동의 건전한 장애정체성 형성의 기여도

	빈도	퍼센트
전혀 아니다	0	0.0
아니다	2	2.0
보통	11	11.2
그렇다	31	31.6
매우 그렇다	54	55.1
합계	98	100.0

(5)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활동 개발 및 발전방안

현재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장애아동문화」, 「장애청소년문화」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36명 (36.7%), ‘그렇다’ 32명 (32.7%)로 나타났다.

<표 81> 「장애아동문화」, 「장애청소년문화」의 존재여부

	빈도	퍼센트
매우 그렇다	0	0.0
그렇다	32	32.7
보통이다	2	2.0
그렇지 않다	28	28.6
전혀 그렇지 않다	36	36.7
합계	98	100.0

그렇다면 「장애아동문화」, 「장애청소년문화」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49명 (49.0%), ‘그렇다’ 41명 (41.0%)로 전체 응답자의 90%이상이 장애아동문화 장애청소년문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82> 「장애아동문화」, 「장애청소년문화」 개발 필요성

	빈도	퍼센트
매우 그렇다	49	49.0
그렇다	41	41.0
보통이다	10	10.0
그렇지 않다	0	0.0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합계	100	100.0

장애 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별 문화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 47명 (47.0%), ‘그렇다’ 43명 (43.0%)로 나타났다.

〈표 83〉 장애아동청소년 생애주기별 문화 지원 정책 필요성

	빈도	퍼센트
매우 그렇다	47	47.0
그렇다	43	43.0
보통이다	10	10.0
그렇지 않다	0	0.0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합계	100	100.0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장애부모의 관점에서 가장 우선 지원되어야 할 것에 대해 부모들은 장애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와 장애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동보조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참여비용지원, 또래집단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견들을 갖고 있었다.

#### (6) 장애자녀의 체육활동 참여실태

장애 자녀의 체육활동 중 가장 자주 하고 활동으로는 배드민턴, 탁구 등 생활체육 34명 (37.8%), 기타 23명 (25.6%)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84〉 체육 활동 중 장애자녀가 가장 자주 하는 활동

	빈도	퍼센트
농구, 야구, 축구 등 구기종목	16	17.8
육상, 수영, 역도 등 기초종목	8	8.9
보치아, 론볼 등 장애인전문체육	9	10.0
배드민턴, 탁구 등 생활체육	34	37.8
기타	23	25.6
합계	90	100.0

장애자녀가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는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가 69명 (39.2%), 종교 활동 중에 참여하는 형태가 48명 (27.3%)으로 나타났다.

<표 85> 장애자녀의 체육활동 참여 형태

	빈도	퍼센트
학교 수업으로	20	11.4
동호회 및 동아리 참여	2	0.01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69	39.2
종교 활동 중에	48	27.3
혼자, 또는 가족 등 주변지인과 함께	37	21.0
합계	176	100.0

현재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주로 어디서 체육활동을 하는지 묻는 질문에 복지관 등 복지시설 56명 (57.7%), 종교단체 16명 (16.5%)으로 응답하였다.

<표 86> 장애자녀의 지역사회 체육활동 참여 기관

	빈도	퍼센트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시설	7	7.2
복지관 등 복지시설	56	57.7
집	13	13.4
종교단체	16	16.5
기타	5	5.2
합계	97	100.0

장애 자녀의 주당 체육활동 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3시간미만’ 43명 (45.3%), ‘3시간 이상~5시간미만’ 22명 (23.2%)으로 응답하였다.

〈표 87〉 장애자녀의 주당 체육활동 시간

	빈도	퍼센트
1시간 미만	8	8.4
1시간이상~3시간미만	43	45.3
3시간이상~5시간미만	22	23.2
5시간이상~7시간미만	18	18.9
9시간 이상	4	4.2
합계	95	100.0

현재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현재 지역사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체육관련 기관은 어떤 곳인지 묻는 질문에 야외체육시설(공원체육시설 등) 43명 (45.3%), 학교(방과 후 활동)24명 (25.3%)로 나타났다.

〈표 88〉 장애자녀가 이용하는 지역사회 체육관련 기관

	빈도	퍼센트
학교(방과 후 활동)	24	25.3
야외체육시설(공원체육시설 등)	43	45.3
주민문화센터	1	1.1
복지관	20	21.1
장애인 전문 체육시설(곰두리 체육관 등)	5	5.3
기타	2	2.1
합계	95	100.0

장애자녀가 현재 하고 있는 체육활동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청소년 및 장애인센터의 소개 35명 (37.6%), 가족 및 친구의 소개 22명 (23.7%)라고 응답하였다.

<표 89> 자녀의 체육활동 정보제공처

	빈도	퍼센트
학교에서 소개	12	12.9
가족 및 친구의 소개	22	23.7
청소년 및 장애인센터의 소개	35	37.6
인터넷을 통해	9	9.7
기타	15	16.1
합계	93	100.0

(7) 장애자녀의 부모가 원하는 장애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욕구와 목적  
 현재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의 체육활동 목적에 대해 ‘건강을 위해’ 55명 (58.5%), ‘여가를 위해’ 34명 (36.2%)라고 응답하여 장애자녀의 건강하고 즐거운 삶의 질 향상이 체육활동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된다.

<표 90> 장애자녀의 체육활동 목적

	빈도	퍼센트
재활치료를 위해	2	2.1
여가를 위해	34	36.2
건강을 위해	55	58.5
기타	3	3.2
합계	94	100.0

현재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이 장애자녀의 체육활동을 허락, 권장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이유로는 ‘건강 증진’ 43명 (44.3%), ‘사회성 발달’ 21명 (21.6%)이라고 응답하여 장애자녀가 건강한 삶 외에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91> 자녀의 체육활동 허락, 권장하는 이유

	빈도	퍼센트
흥미	19	19.6
건강 증진	43	44.3
사회성 발달	21	21.6
학업과 연계	8	8.2
직업과 연계	6	6.2
합계	97	100.0

한편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고 싶어 하는 체육활동을 제한해야 할 때 가장 고려하는 이유에 대해 ‘편의시설 및 보장구 지원 부족’ 30명 (30.9%)과 ‘경제적인 부담(25명, 25.8%)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표 92> 장애자녀의 체육활동을 제한할 때의 이유

	빈도	퍼센트
편의시설 및 보장구 지원이 부족해서	30	30.9
이동수단이 불편해서	23	23.7
자녀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17	17.5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25	25.8
기타	2	2.1
합계	97	100.0

또한 장애자녀가 체육활동을 할 때 장애인이라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선택 가능한 활동이 없어서(59명, 59.0%)’, ‘편의시설 및 보장구 지원이 부족해서 (11명, 11.0%)로 응답했다.

<표 93> 장애자녀의 체육활동 참여 시 가장 어려운 점

	빈도	퍼센트
편의시설 및 보장구 지원이 부족해서	11	11.0
이동수단이 불편해서	10	10.0
선택 가능한 활동이 없어서	59	59.0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10	10.0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6	6.0
기타	4	4.0
합계	100	100.0

장애자녀의 체육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부담스럽다’ 43명 (43.4%), ‘매우 부담스럽다’ 28명 (28.3%)으로 응답하여 장애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에서 경제적인 지원이 필수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표 94> 장애자녀의 체육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정도

	빈도	퍼센트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0	0.0
부담스럽지 않다	5	5.1
보통이다	23	23.2
부담스럽다	43	43.4
매우 부담스럽다	28	28.3
합계	99	100.0

(8) 장애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에서의 차별현황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가 체육활동을 할 때 장애인이라서 가장 차별받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활동 제한(장애인이기 때문에 선택된 활동만 가능케 함) 47명 (47.5%), 참여 제한 (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 등을 이유로) 26명 (26.3%)으로 응답하였다.

<표 95> 장애자녀의 체육활동 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점

	빈도	퍼센트
참여 거부	8	8.1
참여 제한(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 등을 이유로)	26	26.3
활동 제한(장애인이기 때문에 선택된 활동만 가능케 함)	47	47.5
무시하는 태도	3	3.0
기타	8	8.1
없다	7	7.1
합계	99	100.0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지역사회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참여 할 만한 프로그램 없음’ 39명 (39.0%), ‘장애학생을 지도

할 전문교사 부족' 20명 (20.0%)으로 응답하였다.

<표 96> 지역사회 체육시설을 이용 시, 가장 어려운 점

	빈도	퍼센트
체육 시설 수의 절대 부족	17	17.0
이동이 불편	14	14.0
활동내용이 어려움	10	10.0
장애학생을 지도할 전문교사 부족	20	20.0
참여 할 만한 프로그램 없음	39	39.0
합계	100	100.0

현재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가 더 했으면 하는 체육활동으로 농구, 야구, 축구 등 구기종목 36명 (36.0%), 배드민턴, 탁구 등 생활체육 33명 (33.0%)으로 응답하였다.

<표 97> 자녀가 더 하기를 원하는 체육활동

	빈도	퍼센트
농구, 야구, 축구 등 구기종목	36	36.0
육상, 수영, 역도 등 기초종목	5	5.0
요가, 발레 등 예술 종목	7	7.0
보치아, 론볼 등 장애인전문교육	12	12.0
배드민턴, 탁구 등 생활체육	33	33.0
기타	7	7.0
합계	100	100.0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장애자녀가 체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장애인 전용 체육공간 확보' 44명 (44.9%), '사회 선반에 대한 장애인복지 시스템 확충 (이동수단 등)' 19명 (19.4%)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98> 장애아동청소년의 원활한 체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빈도	퍼센트
각종 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료 할인 및 면제 확대	2	2.0
장애인 전용 체육공간 확보	44	44.9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차별 금지	3	3.1
장애아동청소년 체육시설 확대	5	5.1
체육 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지원	3	3.1
사회 전반에 대한 장애인복지 시스템 확충(이동수단 등)	19	19.4
체육활동 보조도우미 바우처제도 도입	2	2.0
장애인 체육활동 자조 그룹/동아리 육성	9	9.2
장애유형별 체육종목개발	8	8.2
기타	3	3.1
합계	98	100.0

현재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장애아동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체육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보통 38명 (38.8%), 그렇다 35명 (35.7%)로 응답하였다.

<표 99> 장애아동청소년들 체육활동 지원정책의 효과성 여부

	빈도	퍼센트
전혀 아니다	0	0.0
아니다	12	12.2
보통	38	38.8
그렇다	35	35.7
매우 그렇다	13	13.3
합계	98	100.0

장애아동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민간단체 또는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 63명 (64.3%), 매우 그렇다 22명 (22.4%)로 응답하였다.

<표 100>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장애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의 효과성

	빈도	퍼센트
전혀 아니다	0	0.0
아니다	0	0.0
보통	13	13.3
그렇다	63	64.3
매우 그렇다	22	22.4
합계	98	100.0

현재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체육활동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 53명 (55.2%), 전혀 아니다 22명 (22.9%)로 조사되었다.

<표 101> 장애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인프라 조성정도

	빈도	퍼센트
전혀 아니다	22	22.9
아니다	53	55.2
보통	12	12.5
그렇다	8	8.3
매우 그렇다	1	1.0
합계	96	100.0

장애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이 어떠한 면에서 장애아동청소년에게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조사하였다.

체육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에 매우 그렇다 73명 (74.5%), 그렇다 22명 (22.4%), 재활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68명 (69.4%), 그렇다 25명 (25.5%),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도움을 주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69명 (70.4%), 그렇다 24명 (24.5%), 장애인식개선에 도움을 주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42명 (42.9%), 그렇다 41명 (41.8%), 장애자녀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50명 (51.0%), 그렇다 38명 (38.8%), 건전한 장애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50명 (51.0%), 그렇다 33명 (33.7%)로 나타났다.

<표 102> 장애자녀 체육활동의 장점

	신체적 정신적 건강		재활치료		사회통합		인식개선		자이존증감 향상		건전한 장애정체성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전혀 아니다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아니다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보통이다	3	3.1	5	5.1	5	5.1	15	15.3	10	10.2	15	15.3
그렇다	22	22.4	25	25.5	24	24.5	41	41.8	38	38.8	33	33.7
매우 그렇다	73	74.5	68	69.4	69	70.4	42	42.9	50	51.0	50	51.0
합계	98	100.0	98	100.0	98	100.0	98	100.0	98	100.0	98	100.0

(9) 장애아동청소년 체육에 대한 이해와 정책개발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장애아동체육」, 「장애청소년체육」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39명 (39.8%), ‘그렇지 않다’ 29명 (29.6%)로 나타내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 68명 (68.0%), ‘필요하다’ 27명 (27.0%)으로 욕구에 비해 현실이 매우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3> 「장애아동체육」, 「장애청소년체육」의 존재여부

	빈도	퍼센트
매우 그렇다	4	4.1
그렇다	14	14.3
보통이다	12	12.2
그렇지 않다	29	29.6
전혀 그렇지 않다	39	39.8
합계	98	100.0

〈표 104〉 「장애아동체육」, 「장애청소년체육」 개발의 필요성

	빈도	퍼센트
매우 그렇다	68	68.0
그렇다	27	27.0
보통이다	5	5.0
그렇지 않다	0	0.0
전혀 그렇지 않다	0	0.0
합계	100	100.0

그렇다면 장애아동 장애청소년 생애주기별 체육활동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되는지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67명 (67.0%), ‘그렇다’ 25명 (25.0%)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위한 장애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과 비슷한 응답을 보였는데, 프로그램 개발, 시설 확충, 전문인력 지원, 이동보조, 참여비용 보조, 또래집단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응답하였다.

〈표 105〉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정책의 필요성

	빈도	퍼센트
매우 그렇다	67	67.0
그렇다	25	25.0
보통이다	6	6.0
그렇지 않다	0	0.0
전혀 그렇지 않다	2	2.0
합계	100	100.0

### 3. 전문가 포커스 그룹 면접조사

####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의 포커스 그룹 전문가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문화예술활동 전문가그룹이고 두 번째는 체육활동 전문가 그룹이다.

문화예술전문가는 총 41명으로 이루어져 이 중 장애인 관련단체 인사(지부·지회장급 이상) 6인, 장애인 문화예술인 16인,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업종 종사 비장애인 7인, 특수교육교사 6인, 공무원 4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2인 참여하였으며, 두 번째 그룹인 체육전문가그룹은 장애인체육회 관련인사(시도 장애인체육회포함) 9인, 장애인스포츠 선수 18인, 특수체육 교사 6인, 체육시설 담당자 5인,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5인으로 총 43명이 참여하였다.

##### (1) 장애인 문화예술전문가그룹 구성

- 장애인 관련단체 인사(지부·지회장급 이상) 6인
- 장애인 문화예술인 16인
-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업종 종사 비장애인 7인
- 특수교육교사 6인
- 공무원 4인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2인

##### (2) 장애인 체육전문가그룹 구성

- 장애인체육회 관련인사(시도 장애인체육회포함) 9인
- 장애인스포츠 선수 18인
- 특수체육 교사 6인
- 체육시설 담당자 5인
-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5인

## 2) 인터뷰 내용 분석

### (1)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

#### ①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의 현주소

##### 가. 일반인 문화와 장애인 문화의 차이

- 차이가 없음
- 장애인문화는 접근성 문제
- 장애인문화는 그들만의 문화
- 장애인문화를 즐기는 자세가 부적절하여 대중선 미흡
- 수요자 입장에서 차이가 없으나 공급자 입장에서는 장애의 감수성이 부족한 문화생성

##### 나. 장애인 향유문화

- 비장애인과 동등한 문화향유
- 문화 참여의 제한으로 인한 향유 미흡
- 문학이나 음악 등 개인적이고, 수동적인 위치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

##### 다. 장애인문화향유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

- 동참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그램 및 행사
- 문화공간에의 참여 보장
- 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 우선의 인식개선
- 문화향유에 필요한 매너 교육
- 아동청소년기에 적절한 역동성 있는 문화향유정책 필요

라. 장애인당사자의 해야 할 부문

-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목소리
- 문화에 대한 기본적 교육과 에티켓 교육
- 자립심 고취
- 문화접근에 한계 극복을 위한 요구
- 장애유형별 문화향유 방안 제시

마. 부모나 가족이 지원해야 할 부문

-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문화예술활동 유도
- 장애당사자가 능동성을 가지도록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도록 부추겨야 함.
- 협조와 관심,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부모, 가족의 공동대응 요청.

바. 국가나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문

- 참여공간 확보 및 제공
- 학교에서부터 문화예술활동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장애인문화예술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현재 문제인식

가. 사회적 인프라 구축

- 장애아동청소년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미미하다”, “열악하다”의견이 절대다수로 나타남
- 장애의 특수성을 살리고 장애가 또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는 문화예술생성공간이 요구됨.

나. 문화예술 향유의 이중적 차별구조

- 장애유형별로 불가능한 문화예술 향유분야가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차별
- ‘장애인이 문화적인 것까지’라는 사회적 소극적 통념문제
- 격리·분리된 문화향유

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문화활동 차별금지 인식여부

- 전문가 41명 중 24명인 58.5%가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의 문화예술참여 차별금지 조항이 있어서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
- 전문가 8명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은 알았지만 문화예술활동까지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은 몰랐다고 함
- 전문가 9명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조차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3)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가. 정당한 편의제공

- 이동접근성이 보장 된 편의시설
- 시각장애인의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의 수화자막 등 장애유형별 서비스 강화
- 공연장 안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
- 점자티켓 등 장애유형에 부응하는
- 장애인의 특수성을 살린 문화예술생성 공간
- 장애인당사자의 문화예술인 진출 시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정책

나.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정체성 확립으로 건전한 인격형성

-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청소년기에 문화예술활동은 통일감, 역동성 경험의 적기
- 장애아동청소년기의 문화활동은 장애인에게 자기존중의 가치부여
- 실적위주, 물질적 가치를 지향하는 경쟁위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다양성과 내면적 가치 존중
- 문화예술활동이 사회통합의 초석
- 장애인당사자로서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부분 삶의 전부라고 표현

#### (4)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정책적 제언

- 장애아동문화, 장애청소년 문화에 대한 개념 정립 및 국가 사회적 인식개선
- 장애아동청소년의 장애유형별 문화향수권 보장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5)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정책

##### ① 장애아동청소년 체육활동의 현주소

##### 가. 일반인 체육과 장애인체육의 차이

- 일반인의 체육은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으로 나누어지지만 장애인 체육은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은 물론 불균형한 신체의 교정과 심신 재활의 의미를 갖는 재활체육도 있음.
- 일반인, 장애인 공히 체육을 통한 건강증진, 노화방지, 건전한 생활인으로써 가치구현

나.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체육활동

- 장애유형별 체육활동 프로그램으로 뇌성마비 보치아, 시각장애 유도, 레슬링, 지체장애 좌식배구, 파크골프 등 특성화 된 프로그램이 있지만 전 종목 도전 가능

다. 장애인체육활동에 요구되는 사항

- 경제적 자립
- 교통수단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체육활동 시설 확충
- 환경
- 생활체육, 재활체육, 엘리트 체육에 대한 연구 개발

라. 장애인 당사자가 해야 할 부문

- 자기관리 차원에서 체육활동 생활화
- 체육활동이 재활치료의 효과가 큼을 인식

마. 부모나 가족이 지원해야 할 부문

- 사랑과 애정이 우선 요구됨
- 부모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바. 국가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문

-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② 체육활동과 관련된 현재의 문제인식

가. 사회적 인프라 구축

- 장애인 전용체육관이 지역에 산발적으로 있긴 하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미흡

나. 이중적 차별구조

-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따돌리고, 장애당사자의 체육시설이용에는 한계가 있음.

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체육활동 차별금지 인식

- 전문가 43명 중 22명인 51%만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체육활동 차별금지 조항이 있어서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을 알고 있었음.
- 전문가 중 9명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은 알고 있었고, 10명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음.

③ 장애아동 청소년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가. 체육활동에 정당한 편의제공

-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수화, 체육수화의 개발 보급 등 장애유형별 체육활동을 위한 기구 장비 등 총체적 지원정책 강구
- 농구용 휠체어 등 보조장비에 대한 개발 지원체계 마련
- 장애인체육활동이 용이한 장소제공

나.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 체육을 통한 건강증진, 비장애인과 어울림은 삶의 질 향상의 요체
- 장애아동청소년 체육활동을 통한 자존능력 개발
- 또래집단과의 통합

다. 전문가의 경험

- 체육지도자 기회 박탈
- 평생의 한

- 사실, 계속적 체육활동은 장애극복의 열쇠가 됨

라. 정책적 제언

- 장애아동청소년의 생활체육 육성책 수립
- 특수학교·특수학급 등을 통한 학교체육 지원 육성책 강구
- 장애아동청소년의 엘리트 체육 선수 육성 기회제공
- 문화관광부(대한장애인체육회)와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개발원) 간의 체육업무 공유 및 장애아동청소년 체육 개발·보급



##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2. 정책적 제언



## V. 결론 및 제언

### 1. 연구 결과

#### 1) 장애아동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실태 및 욕구파악

우리나라 전체장애인 수는 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전국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246,965명으로 그 중에 지체장애인은 1,209,732명으로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6세에서부터 24까지의 장애아동청소년은 115,778명으로 그 중에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무려 56,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사회연구원,2009)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의 실태와 욕구 파악을 위해 시각장애·청각장애·지체장애 등 신체장애는 장애아동청소년용 설문지를 통해 조사연구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장애아동청소년 설문지도 활용 했지만 부모용을 개발·사용하여 실태 및 욕구파악을 했다. 아울러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과 체육에서의 전문가가 각각 다름을 고려하여 포커스 그룹 면접조사도 각각 다른 면접지를 사용하여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방안을 연구했다.

#### 2) 결과요약 및 시사점

##### (1) 장애아동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 ① 응답자 인구학적 특성

본 설문은 연령 만 6~24세의 장애아동청소년 150명에 대해 조사되었다. 응답자 중 남성이 90명(60%), 여성이 60명(40%)이었으며, 본인이 응답한 경우는 98명(65.3%), 대리 응답하거나 도움을 받아 응답한 경우는 52명(34.7%)

이었다.

응답자는 대체로 문화예술이나 체육활동의 개념은 알고 있었고, 경험도 갖고 있으며, 의사표현 능력에 무리가 없는 중등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많아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할 수 있다.

응답자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49명(3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적장애(18.0%)가 많았는데,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의 의견은 부모 설문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응답자 중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의 응답비율도 상당히 높아 장애유형별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

응답자의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은 1급(26.0%), 2급(20.0%), 3급(37.3%)으로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83.3%였다. 따라서 중증장애아동청소년의 경험과 욕구를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지원방안이 도출될 수 있었다.

본 설문문의 응답자 중 선천적 장애인은 46%(69명)로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의 90%이상이 후천적 장애인에 비해 크게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장애아동청소년에게는 특히 선천적 장애가 갖는 특성에 따른 생애주기별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응답자 중 종교를 갖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80.7%로 종교활동을 통한 문화예술체육활동도 민간차원에서 더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고, 종교단체를 활용한 지역사회 문화예술체육활동 방안도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었다.

응답자의 가구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평균 가구소득(약 340만 원)보다 부족한 300만 원 이하가 54.6%로 문화예술체육활동에 있어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②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실태

응답자가 주로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연극 및 영화관련활동(16.2%)이 가장 많았고 그 외 독서 등의 문학활동(16.2%), 역사나 문화유산 관련활동(12.2%), 미술(10.5%), 서양음악(10.2%)등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동을 할 때, 함께 하는 사람으로는 친구나 또래가 49.3% (74명)로 가장 많았고, 가족과 함께한다는 응답이 18.0%(27명), 혼자한다는 응답이 21명(14.0%)이었으며, 활동보조원이나 자원봉사자와 함께 한다는 응답도 12.7%(19명)에서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문화예술체육활동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동반하는 사람에 관한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응답자들은 1주일에 평균 1.96시간 정도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44명(29.3%)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29명(19.3%)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은 주민문화센터와 학교방과 후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고, 시각장애인은 복지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활동 외의 문화예술활동에 22.0%(33명)가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가 가장 많이 참여해 본 문화예술활동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문화바우처가 28.6%(43명)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영화관람, 장애인 독서활동지원프로그램에 참여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은 문화바우처 이용이 가장 많았고, 뇌병변 장애인은 한국영화관람이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인은 화면을 해설해주는 영화관람이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인은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장애인은 한국영화관람과 무료관람권 이용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가 현재 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을 가족 및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경우가 36.0%(54명), 인터넷이 24.0%(36명)였다.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여가 활용 30.0%(45명)과 능력 개발 21.3%(32명)을 꼽았다.

### ③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차별실태

응답자의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활동의 어려움은 지체장애 48명 중 21명이 ‘이동수단’이라고 응답하였고, 청각장애 17명과 지적장애인 27명 중 각 10명이 ‘선택 가능한 활동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에서도 가장 어

려운 점으로 이동수단의 불편 42명(28.0%)과 선택가능한 활동이 없다는 것(40명, 26.7%)을 지적하였다. 지역사회 문화예술시설 이용 시 가장 어려운 점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28명(18.7%)이 이동의 불편을 꼽았으며, 24명(16.0%)이 장애학생을 지도할 전문교사가 부족, 22명(14.7%)이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꼽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의 어려움으로 이동의 불편, 비용의 부담이 다수의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고, 뇌병변 장애에서는 전문교사 부족과 활동내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시각장애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절대수가 부족하다는 응답과 이동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청각장애에서는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고 전문교사가 부족한 점을 어려운 점으로 응답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시설 부족과 이동불편, 비용부담을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그 외 불편한 시선이나 활동내용이 어렵다는 응답도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장애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시설 이용에서 장애인 및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화예술활동에서 받은 차별형태로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선택된 활동만 가능하게 하는 활동 제한이 33.3%(50명)로 가장 많았고, 활동 참여에 있어 사고 발생 시 책임 등의 이유로 참여를 제한당했던 경우도 28.0%(42명)로 나타났다. 그 외 무시하는 태도를 겪은 경우가 14.0%(21명), 참여거부가 5.3%(8명)이었다.

#### ④ 문화예술활동 만족도

현재의 문화예술활동 외에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은 응답자가 58%(87명)으로서 문화예술활동의 욕구는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들이 더하기를 원하는 문화예술활동으로는 연극 및 영화 관련활동이 34.0%(51명), 미술(사진, 서예, 디자인 포함)이 23.3%(35명)이었다. 특히 지체장애와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에서는 연극이나 영화관련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크게 나타났고, 청각장애와 지적장애의 경우 미술활동을 더 하고 싶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 ⑤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지원

응답자들은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문화관련 시설의 장애인 이용료 할인 및 면제확대 16.0%(24명), 기관 내 도구 및 설비, 장비, 공간 확충 지원 (15.3%, 23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유형별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보조기구로 지체장애와 뇌병변 장애에서는 휠체어 또는 전동휠체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23명), 목발(6명), 11명이 장애인 휠체어를 탑재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시각장애에서는 응답자 16명 중에 14명이 흰지팡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이동보조기구는 대부분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보조기구를 직접 갖고 다니는데, 이러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전동휠체어다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의 폭 확보, 이동로의 턱 제거 등이 지원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동보조로 점자블럭설치, 이동로의 손잡이 설치, 턱이나 보행로 구조물 제거, 음성안내 시스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보조기구로는 청각장애인에게는 골도 전화기 15.3%(23명), 청각장애이용 음향 표시장치(13명, 8.7%)등이 필요하고,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필요한 보조기구로는 시각장애 17명 중 8명이 점자악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진동스피커나 음성인식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청각장애 17명 중 9명이 진동스피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⑥ 장애아동청소년 문화개발 및 지원

응답자 중 장애아동문화, 장애청소년문화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7.3%(71명)이었고, 78.6%(118명)이 ‘장애아동문화’, ‘장애청소년문화’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문화지원정책에 대해 37.3%(56명)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38.7%(58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정책적으로 지원할 사항으로는 장애유형에 적절한 프로그램, 이동권 보장 및 지원, 시설 확충,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접근성 확보, 비용지원, 인식개선, 지원체계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비장애아동청소년에서는 ‘아동문화’와 ‘청소년문화’가 그 발달기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형성되어있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아동청소년에 있어서는 장애로 인해 또래와 함께 문화예술활동을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제외하고는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이다.

#### ⑦ 문화예술활동 선호도와 장래희망

응답자의 문화예술 관련 선호도는 음악(71.3%)이 가장 높았으며, 미술(50.7%), 문학(48.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장래희망으로는 미술가(14.7%), 음악가(12.7%)등이 되고 싶다고 답했으며, 연예인이 되고 싶거나 문학가가 되고 싶다는 응답도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했다.

문화예술에 대한 타고난 자질을 갖고 있는 장애아동청소년이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장래에 문화예술가로서의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것은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갖는 것이며, 장애인 직업재활의 한 모형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소수의 장애아동청소년이 문화예술가의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장애인 전문체육인의 육성과 같은 맥락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⑧ 체육 활동 참여 실태

응답자가 가장 자주 하는 체육활동으로는 농구, 야구, 축구 등 구기종목(17.3%)과 육상, 수영, 역도 등 기초종목(17.3%), 배드민턴, 탁구 등 생활체육(16.3%)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활동에는 개인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자가 50명(33.7%), 동호회 및 동아리 참여 34명(22.7%)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당 평균 1.63시간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는데, 1시간 이상~3시간미만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40.0%, 1시간미만으로 하는 사람이 38.7%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체육활동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경우(36.7%)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지역사회에서 하는 활동으로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25.3%를 차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하는 체육활동비율이 높아 또래와 하는 활동도 자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들과 체육활동을 함께 하거나(16.7%), 자원봉사자가 함께 하는 경우도(12.7%) 많아 장애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은 도움이나 지지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체육관련 기관은 학교(방과 후 활동) 25.3%(38명)와 야외체육시설(공원체육시설 등)이 16.7%(25명)로 많았고, 그 외 개인적으로 사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도 높았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체육시설인 꿈두리체육관을 이용하는 응답자는 3.3%에 불과해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 장애인체육지원정책의 혜택을 크게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현재 하고 있는 체육활동의 정보를 가족 및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경우(32.7%)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청소년 및 장애인 센터의 소개나 학교의 소개,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어서 장애아동청소년이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과 장애유형에 따른 정보접근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 ⑨ 체육활동에서의 차별

응답자들은 선택 가능한 활동이 없는 것(47명, 31.3%)과 편의시설 및 보장구 지원이 없는 점(39명, 28.3%)을 체육활동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장애아동청소년이 체육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이들의 체육활동 지원 수준이 매우 낙후되어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의 체육활동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72%로, 적극적 참여거부는 5.3%에 불과하나 사고 등의 우려로 참여를 제한 당했던 경우가 36.0%, 선택 가능한 활동이 부족한 가운데 활동을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활

동이 제한되었던 경우도 30.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체육시설을 이용에서는 이동이 불편하다는 응답(28명, 18.7%)이 가장 많았으며, 참여할만한 프로그램 없음(25명, 16.7%), 체육시설 부족(25명, 16.7%)이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다.

#### ⑩ 체육활동의 만족도

현재 하고 있는 체육활동에 28.6%는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8.3%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이들 중 52%가 현재의 체육활동 외에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어하고 있었으며 더 하고 싶은 활동으로 육상, 수영, 역도 등 기초종목(41명, 27.3%)과 농구, 야구, 축구 등 구기종목(38명, 25.3%)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⑪ 장애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정책개발과 지원

장애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를 이해한 체육활동 지원정책에 대해 82%(123명)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장애아동체육이나 장애청소년체육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41.4%(62명)이었고, 장애아동체육, 장애청소년체육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82.0%(123명)였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앞서서 여러 번 언급되었던 이동권 확보, 장애인을 전문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와 전문교사의 투입, 장비의 지원, 실비지원 등의 응답이 나왔다.

#### ⑫ 체육활동 선호도

응답자 중 운동경기 관람을 좋아하는 비율은 53.4%였고, 직접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비율이 43.4%였으며 장래에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18.0%였다.

## 2) 부모용 설문조사 결과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에는 부모의 관심이나 개입, 적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의지는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여러 가지 활동에 다양하게 노출되도록 하는데 1차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갖게 한다. 특히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의 발달장애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거의 모든 일에 장애자녀와 함께 움직이고 함께 느끼므로 보호자이기도 하지만, 부모들을 장애인당사자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장애아동청소년이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지원을 알아봄으로써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① 부모용 설문 응답자 일반사항

부모응답자는 자녀가 아동청소년기에 있으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100명에 대해 조사되었으며, 자녀의 장애유형으로는 지적장애가 39%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 21%, 뇌병변 19%, 자폐성 장애의 비율도 12%에 이른다. 자녀의 장애등급은 1급이 56%, 2급 22%, 3급이 10%로 전체의 88%가 중증장애인이자 할 수 있으며 장애원인은 선천적인 원인이 70%,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20%로서 후천적 장애는 10%정도에 불과하였다. 가정의 소득수준은 200~300만원이 45%로 최빈치를 나타내며 우편향 정규분포곡선을 이루고 있다.

### ② 장애자녀의 문화예술 참여 실태

현재 장애자녀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89%로 미술(26명, 29.2%)과 서양음악(25명, 28.1%), 연극이나 영화관련 활동(25.8%) 등을 많이 하고 있었다. 주당 문화예술 활동 시간은 약 2시간이라고 응답한 사람(30명, 40.5%)이 가장 많았고, 약 4시간도 22명 (29.7%)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문화예술활동 정보를 청소년 및 장애인센터(46명, 46.5%)나 학교 소개로 알게 된 경우(20.2%)가 많았다. 이러한 문화예술활동의 참여는 복지관

프로그램(77명, 43.0%)이나 종교활동 중의 참여(63명, 35.2%)가 많았는데 주로 문화예술활동 하는 장소로는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하는 경우가 50.0%였고 종교단체나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20.0%였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문화예술관련 기관으로는 복지관(44.0%)과 주민문화센터(20.0%)가 많았다.

### ③ 장애자녀의 문화예술활동에서 중요 사항

장애자녀의 문화예술활동에서 가장 고려하는 점은 사회성 발달(43명, 44.3%)과 흥미(24명, 24.7%)였으며 건강증진이나 직업과 연계의 기대도 고려 대상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에서 마음껏 할 수 있게 못하는 이유로 자녀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28명, 28.0%)이 가장 많았고 이동수단의 불편도 그 이유(27명, 27.0%)로 꼽고 있었다.

### ④ 장애자녀 문화예술활동에서의 차별

자녀가 문화예술활동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선택 가능한 활동이 없는 것(59.0%)과 이동수단의 불편(18.0%), 편의시설이나 보장구의 지원 부족(11% 명)을 꼽고 있으며 장애자녀가 문화예술활동을 지속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응답자는 81%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활동을 할 때 받는 차별형태로는 활동 제한(54.0%)과 참여 제한(37.0%)이 많았다.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참여 할 프로그램 없는 점(34.0%)과 문화예술 시설이 부족(29.0%)하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 ⑤ 장애자녀의 문화예술활동 욕구 및 선호도

장애 아동청소년의 부모들은 대체로 자녀가 좀 더 많은 문화예술활동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으며(76.0%) 더 했으면 하면 활동으로 미술(31.6%)과 서양음악(22.4%)을 꼽았다. 이들 중 자녀가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35%정도 였다.

#### ⑥ 장애자녀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

문화예술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 전담 인력 육성 및 교육기관 확충과 기관 내 도구 및 설비, 장비, 공간 확충지원,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이 가장 필요한 지원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많아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기회의 보장을 우선 필요로 하고 있었다. 반면,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 인프라에 대해서는 83%가 되어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장애아동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문화예술정책에 대해 63%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간단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71.9%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⑦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활동의 기여

응답자는 장애아동청소년에게 문화예술활동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며(87.7%), 재활치료에 도움이 되고(86.7%), 장애인의 사회통합(83.7%)과 장애인식개선에 도움이 된다(88.6%)고 응답하여 그 영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자녀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90.8%) 건전한 장애정체성을 형성(86.7%)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⑧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활동 개발 및 지원

「장애아동문화」, 「장애청소년문화」에 대해서 32.7%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65.3%였다. 하지만 90%의 응답자에서 「장애아동문화」, 「장애청소년문화」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고 90%의 응답자가 장애 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별 문화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생애주기와 장애유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확충이 필요하고 이러한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동보조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참여비용지원, 또래집단에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⑨ 장애자녀의 체육활동 참여실태

장애 자녀의 체육활동 중 가장 자주 하고 활동으로는 배드민턴, 탁구 등의 생활체육(34명, 37.8%)으로 나타났으며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는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가 69명 (39.2%), 종교 활동 중에 참여하는 형태가 48명 (27.3%)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주로 체육활동을 하는 장소는 복지관 등 복지시설(57.7%)과 종교단체(16.5%)로 나타났다. 장애 자녀의 주당 체육활동 시간으로는 '1시간 이상~3시간미만'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45.3%, '3시간 이상~5시간미만'이 23.2%였다.

지역사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체육관련 기관으로는 야외체육시설(공원체육시설 등) 45.3%, 학교(방과 후 활동) 25.3%였고 이러한 활동을 알게 된 것은 청소년 및 장애인센터의 소개(37.6%)와 가족 및 친구의 소개 (23.7%)가 많았다.

### ⑩ 장애자녀의 부모가 원하는 장애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욕구와 목적

부모들은 장애자녀의 건강증진(58.5%)과 여가선용(36.2%)을 목적으로 체육활동을 하게 하며, 권장하는 이유 역시 '건강 증진'(44.3%)과 '사회성 발달'(21.6%)을 꼽았다. 이는 장애아동의 부모가 장애자녀가 건강한 삶을 누리고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부모들이 체육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편의시설 및 보장구 지원 부족'(30.9%)과 '경제적인 부담(25.8%)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 ⑪ 장애자녀의 체육활동에서의 차별

장애자녀의 체육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선택 가능한 활동이 없는 점(59.0%)과 편의시설 및 보장구 지원 부족(11.0%)을 들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경우(71.7%)가 많았다. 또한 체육활동을 할 때 장애인이라서 가장 차별받는 것으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선택된 활동만 하게 하는 활동제한(47.5%)이 가장 많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 등을 이유로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26.3%)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사회 체육시설 이용에서도 역시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 없다는 점(39.0%)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장애학생을 지도할 전문교사가 부족하다고 20.0%에서 응답하였다.

#### ⑫ 장애자녀의 체육활동 지원정책

더 많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체육활동으로는 농구, 야구, 축구 등 구기종목(36.0%)과 배드민턴, 탁구 등 생활체육(33.0%)을 꼽고 있으며 이러한 체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체육공간(44.9%)’과 ‘사회 전반의 장애인복지 시스템 확충(이동수단 등)(19.4%)’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국가의 장애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38.8%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35.7%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민간단체 또는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는 86.7%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여 현재 국가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것을 민간 차원에서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체육활동 인프라에 대해서는 55.2%에서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22.9%는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었다.

#### ⑬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체육활동의 기여

부모들이 인식하는 체육활동의 장점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96.9%), 재활치료에 도움(94.9%), 사회통합에 기여(94.9%), 장애인식개선(84.7%), 장애자녀의 자아존중감을 향상(89.8%), 건전한 장애 정체성 형성에 기여(84.7%)로 체육활동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⑭ 장애아동청소년 체육에 대한 이해와 정책개발

「장애아동체육」, 「장애청소년체육」의 존재에 대해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69.4%로 나타났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95%가 필요하다

고 응답하여 욕구에 비해 현실이 매우 뒤처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정책이 92%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는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과 유사하게 프로그램 개발, 시설확충, 전문인력 지원, 이동보조, 참여비용 보조, 또래집단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의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 2. 정책적 함의 및 제언

우리나라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 정책은 실태 및 욕구분석, 전문가의 면접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한마디로 「정책의 부재」라 하겠다. 장애인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은 이미 5개년계획 등에 반영되어 있긴 하지만 장애아동·청소년의 인구학적인 요소를 감안한 특성화된 문화예술은 정책자체가 수립되어 있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지원을 해야 할 대상이나 프로그램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체육정책의 생애주기별·장애유형별 특화된 정책이 요구되며 그것의 지원방안 수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함의에 도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정책적 제언으로써는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와 장애아동·청소년 체육의 개념정립에서부터 장애유형별 프로그램개발, 전문가 양성·배치, 시설 및 편의확충 등 지원, 전달체계의 개선, 법·제도의 정비, 인식 및 홍보 방안까지 제시하고자 한다.

### 1) 「장애아동문화」·「장애청소년문화」등 생애주기별 문화의 개념정립 및 정책 수립

일반적으로 「아동문화」가 있고 「청소년문화」가 있다. 이 문화는 「성인문화」와도 구분된다. 장애아동·청소년과 부모에서 공히 80% 이상의 응답자

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도 「장애아동문화」, 「장애청소년문화」 등 생애주기별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개념정립이 요청된다.

「문화가 언어이다」라는 학설이 있을 만큼 문화는 언어와 직결되는데, 지적·자폐성 장애는 언어적 이해도가 낮고,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는 수화와 점자라는 언어가 별도로 있다. 더구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아동·청소년의 문화가 다르며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 지체장애와 뇌성마비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문화적 특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 장애유형별 아동과 청소년문화의 개념정립과 정책수립이 요청된다.

## 2) 장애유형별 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 개발·시행

장애아동·청소년의 인구학적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56% 이상의 지적장애·자폐성장애임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자폐성장애의 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 개발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사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문화예술프로그램과 체육프로그램은 과연 어떤 것으로 정의하고 규정하느냐 하는 것도 아직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미술치료, 음악치료, 무용치료, 놀이치료, 운동치료 등 치료나 재활중심의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지만 문화향수나 생활체육실현이란 면에서 볼 때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있어야 하겠다. 장애아동·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을 성장기에 맞도록 개발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것이다. 청각장애의 경우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에는 구화가 사용되지만 농인사회에는 수화가 주된 언어이며 「농문화」(Deaf culture)가 있다.

디자인이나 예술분야는 청각장애인의 삶이나 직업재활분야와도 연계성이 높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체육은 야구, 축구 등 구기종목만이 아니라 사실상 전 종목이 가능한데 「스포츠 수화」의 개발·보급이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이다.

### 3) 「장애인문화예술진흥센터」 신설 등 전달체계의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문화예술체육업무를 총괄하는 장애인문화예술체육과가 마련되어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체육 전반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장애인체육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산하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부가 마련되어 있다. 물론 이곳에서도 장애아동·청소년의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는 없다. 따라서 광역지자체 지부에 장애아동·청소년 체육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국에 있어서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예술위원회와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The Youth Sport와 같은 위원회 등 하위전달체계와 일본의 Able Art와 같은 단체를 지원·운영하는 시스템이 주는 시사점을 고려하여 우리의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실, 장애인문화예술을 관장하는 정부조직인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있지만 하위 전달체계는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문화협회 등 민간단체의 활동만이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2에서는 장애인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명시와 함께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문화예술 정책이나 업무를 위탁한 조직체로써 16개 시도에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설치 등 전달체계 개선이 요구된다.

### 4) 전문가 양성 및 배치

전문가 양성은 문화예술과 체육의 상이한 두 분야를 나누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아울러 장애당사자 전문가 양성과 비장애인으로써 전문가 양

성의 두 방향 모두에서 방안을 모색하고 배치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장애인 선수양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양성하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문화예술분야의 체계적·전문적 교육시스템 개발과 전문가 자격제도 도입이 있어야겠고 장애당사자 전문가의 육성과 배치로 장애유형별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5) 법·제도의 정비 및 「정당한 편의 매뉴얼」 개발·보급

문화예술진흥법에 장애아동·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을 명시하는 조항 신설이 요청된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의 대한장애인체육회설립과 장애인 체육진흥에 관한 조항에 장애아동·청소년의 체육진흥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문화향수권과 함께 체육활동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이 명시가 없다. 따라서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매뉴얼」 개발·보급이 요청된다.

#### 6) 편의시설 확충 등에 관한 장애유형별 방안 마련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간이 필요하고 편의시설이 확충되어 있어야 하며 활동을 하기 위해 이동수단이 필요하며,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의 장이 있다는 정보를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정당한 편의제공에 위배되는 ‘차별’이라 할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일반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데는 이동에 필요한 것과 의사소통에 필요한 것,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체·뇌병변 장애에게 이동에 필요한 휠체어 또는 전동 휠체어와 활동보조인, 시각장애인에게 흰지팡이와 점자블럭 등이 필요하고, 청각장애인

에게는 의사소통을 위해 수화통역사가 필요하며, 화면에 자막이 꼭 필요하다.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이 필요하고, 시각을 제외한 감각을 이용한 활동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 청각장애인의 음악활동을 위해서 진동스피커도 지원되어야 한다.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기관에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접근성을 높이는 보조기기나 시스템에 대한 의무설치 및 비치 등을 통해 장애아동 청소년이 통합된 문화예술활동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민정(2003), 청소년 문화복지 실태 및 만족도와 요구분석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 김종인 외(2007), 장애인복지론, 서현사
- 김종인 외(2007), 재활스포츠개론, 한국학술정보
- 박영균(2005). 장애청소년 문화·복지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 韓國發達障礙學會
- 변용찬 외(2006),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 변용찬 외(2007). 복지욕구 다양화에 따른 장애인복지지표개발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소장섭(2007), “그 동안 장애인문화정책은 없었다.” 에이블뉴스
- 손봉숙(2006). 장애문화예술인 문화복지정책의 현실과 대안. 손봉숙의원실
- 유명화(2006), 장애청소년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지원방안 연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이윤로 외(2005), 정신지체 청소년의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 “장애인문화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 세미나(2007),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 장애인체육백서(2007). 문화관광부
- 장애인통계(200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전병태 외(2007).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장영식 외(2007).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종인(1988). 재활스포츠가 재활에 미치는 영향, 계간 사회복지 여름호.
- 김종인(2003 a).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와 지역재활시설의 발전 방안.
- 김종인(2003 b). 참여복지 패러다임에 의한 장애인복지 정책 과제와 실천방안,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김종인(2003 c). 장애인 생활체육으로서의 재활스포츠 활성화 방안.
- 장애자올림픽조직위원회(1996). 서울장애자올림픽 안내서, 서울장애자올림픽조직위원회.
- 이용교 외(2009). 아동 청소년 권리증진 정책 개발. 아동청소년 권리정책 개발을 위한 기획포럼
- Ivan Brown(2009), Quality of Life and Disability, Jessica Kingsley
- Lennard Davis(2006), The Disability Studies Reader, Second Edition, Routledge
- Tanya Titchkosky(2007), Reading and Writing Disability Differentl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U.S. Dept of Education(1996), Begin the between planning for the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adult life for youth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ACER Center U.S. Dept.

Cross, M. J., Gibbis, N. J. Bryant, G. J.(1989). Analysis of the Sidestep Cutting Maneuvre, Ame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 17. 363~366.

Paciorek, M. J & Jones. J. A(1994). Sports and Recreation for the Disabled. Cooper publishing Group.

참고사이트

대한장애인체육회(<http://www.kosad.or.kr/>)

<http://cafe.daum.net/schong05/FGFX/64?docid=1AMvt|FGFX|64|20090412200636&q=%C3%BB%BC%D2%B3%E2%20%B9%AE%C8%AD%C0%C7%20%C6%AF%C2%A1&rchid=CCB1AMvt|FGFX|64|20090412200636>

[http://www.kowpad.or.kr/leports/life/life\\_1\\_5.asp](http://www.kowpad.or.kr/leports/life/life_1_5.asp)

[http://www.kowpad.or.kr/leports/life/life\\_1\\_1.asp#top](http://www.kowpad.or.kr/leports/life/life_1_1.asp#top)

## 부 록

1. 장애아동청소년용 문화예술체육활동 설문지
2. 장애자녀의 문화예술체육활동 부모용 설문지
3. 전문가 인터뷰지



##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청소년용 문화예술 · 체육활동 실태 및 욕구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서 용역받은 「장애아동청소년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실태 및 욕구조사 설문지」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청소년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문화예술체육활동이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 좋은지, 현재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는지 알아보고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는 활동들에 대해 지금보다 더 나은 지원을 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장애 때문에 문화예술체육활동에서 차별을 당했다거나 정당한 편이 없어서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을 조사하여 여러분이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의 향유실태와 차별실태,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의 욕구, 장애아동청소년에 적합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제시 등을 통해 장애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장애아동청소년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성의껏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결과는 종합적으로 통계 처리되므로 응답자의 개인 의견과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설문 후에라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7월

책임연구원 : 김종인 교수(나사렛대학교)

주관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전화 02-3432-0347~8

ID					지역			조사원			코딩		입력	
----	--	--	--	--	----	--	--	-----	--	--	----	--	----	--

성 별	<input type="checkbox"/> 1. 여자 <input type="checkbox"/> 2. 남자	연 령	만 (     )세	
응답자	<input type="checkbox"/> 1. 본인 <input type="checkbox"/> 2. 대리인			
	※ 대리응답자와의 관계 (대리응답시 작성)	<input type="checkbox"/> 1. 부모 및 형제 <input type="checkbox"/> 2. 친척 <input type="checkbox"/> 3. 친구 <input type="checkbox"/> 4. 교사	<input type="checkbox"/> 5. 도우미, 봉사자 <input type="checkbox"/> 6. 기타	
응답자 일반 조사 사항	(01) 교육 수준	① 미취학 ③ 중학교 재학 ⑤ 고졸이상	② 초등학교 재학 ④ 고등학교 재학 ⑥ 기타	
	(02) 종교	① 기독교 ③ 불교 ⑤ 기타(            )	② 천주교 ④ 무교	
	(03) 거주 지역	① 서울시 ③ 수도권 중·소도시 ⑤ 군·읍·면 지역	② 기타 광역시 ④ 지방 중·소도시 ⑥ 기타 (            )	
	(04) 가구 소득수준	① 월 100만원 미만 ③ 월 2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 ⑤ 월 4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② 월 100만원이상 200만원미 만 ④ 월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⑥ 월 500만원이상	
	(05) 장애 유형	<input type="checkbox"/> 지체장애 <input type="checkbox"/> 뇌병변장애 <input type="checkbox"/> 시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청각장애 <input type="checkbox"/> 언어장애 <input type="checkbox"/> 지적장애 <input type="checkbox"/> 자폐성장애 <input type="checkbox"/> 정신장애 <input type="checkbox"/> 신장장애 <input type="checkbox"/> 심장장애 <input type="checkbox"/> 호흡기장애 <input type="checkbox"/> 간장애 <input type="checkbox"/> 안면장애 <input type="checkbox"/> 장루·요루장애 <input type="checkbox"/> 간질장애	(06) 장애 를 입 게 된 원 인	① 선천적 ② 질병 ③ 교통사고 등 사고 ④ 산업재해 등 재해 ⑤ 원인불명(            ) ⑥ 기타(            )
	(07) 장애 등급			

##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 본 설문에서의 문화예술활동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의 분야에서의 활동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단 TV시청과 학교수업으로 하는 활동은 문화예술활동에서 제외했습니다.

※ 보기 중 해당되는 곳에 ○표 하세요.

1. 다음의 문화예술 활동 중 어떤 활동을 가장 자주 하고 있습니까?(3가지를 선택하시오)

- |                           |                        |
|---------------------------|------------------------|
| ___ ① 문학활동(독서포함)          | ___ ② 미술(사진·서예·디자인 포함) |
| ___ ③ 서양음악(감상, 연주, 창작 포함) | ___ ④ 전통예술             |
| ___ ⑤ 무용                  | ___ ⑥ 연극 및 영화 관련       |
| ___ ⑧ 가요·연예 관련            | ___ ⑨ 역사문화유산           |
| ___ ⑩기타( )                |                        |

2. 현재 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은 주로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① 학교에서 소개      ② 가족 및 친구의 소개  
 ③ 청소년 및 장애인센터의 소개    ④ 인터넷을 통해    ⑤ 기타( )

3. 문화예술활동에 어떤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학교 수업으로    ② 동호회 및 동아리 참여    ③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④ 종교활동 중에    ⑤ 혼자, 또는 가족 등 주변지인과 함께    ⑥ 기타( )







15.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본인의 장애에 비추어)

- ① 각종 문화관련 시설의 장애인 이용료 할인 및 면제 확대
- ② 전문, 전담 인력 육성 및 관련 인력 교육기관 확충
- ③ 문화바우처제도의 확대
- ④ 기관 내 도구 및 설비, 장비, 공간 확충 지원
- ⑤ 기관 내 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지원
- ⑥ 사회 전반에 대한 장애인복지 시스템 확충(이동수단 등)
- ⑦ 장애인 문화활동 프로그램 표준화 모델 개발
- ⑧ 장애인 문화활동 자조 그룹/동아리 육성
- ⑨ 기타( )

16. 귀하가 문화예술활동을 할 때, 필요한 보조기구는 무엇입니까?

설치·배치 기구명	
이동	① 이동을 위한 휠체어, 전동휠체어
	② 지체장애이용 지팡이 및 목발
	③ 시각장애이용 흰지팡이
	④ 장애인 휠체어 탑재 가능 차량 지원
	⑤ 기타( )
의사소통	⑥ 시각장애이용 점자프린트
	⑦ 청각장애이용 골도전화기
	⑧ 시각장애이용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⑨ 청각장애이용 음향표시장치 등
	⑩ 기타( )
	⑪ 기타( )
문화향유	⑫ 점자악보
	⑬ 진동스피커
	⑭ 음성인식기
	⑮ 기타( )



※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선호도 조사입니다. 해당되는 답에 ○표 하세요.

번호	질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문학활동을 좋아한다.					
2	나는 음악활동을 좋아한다.					
3	나는 미술활동을 좋아한다.					
4	나는 무용활동을 좋아한다.					
5	나는 문학가가 되고 싶다.					
6	나는 음악가가 되고 싶다.					
7	나는 미술가가 되고 싶다.					
8	나는 무용가가 되고 싶다.					
9	나는 문학가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다					
10	나는 음악가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다					
11	나는 미술가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다					
12	나는 무용가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다					
13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					
14	나는 연예인이 되는 방법을 알고 있다					
15	나는 학교에서의 활동 외에 문화예 술활동을 하고 있다.					
16	나는 현재 하는 문화예술활동 외에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다					

## 체육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 보기 중 해당되는 곳에 ○표 하세요.

1. 다음의 체육 활동 중 어떤 것을 가장 자주 하고 있습니까? ( )에 종목이름을 써주세요. (2가지를 순위 표시)

- \_\_① 농구·야구·축구 등 구기종목(            )  
\_\_② 육상·수영·역도 등 기초종목(            )  
\_\_③ 요가·발레 등 예술 종목(            )  
\_\_④ 보치아·론볼 등 장애인전문체육(            )  
\_\_⑤ 배드민턴·탁구 등 생활체육(            )  
\_\_⑥기타(    )

2. 현재 하고 있는 체육활동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① 학교에서 소개    ② 가족 및 친구의 소개  
③ 청소년 및 장애인센터의 소개    ④ 인터넷을 통해  
⑤ 기타(    )

3. 체육활동에 어떤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개인적으로    ② 동호회 및 동아리 참여    ③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④ 종교 활동으로    ⑤ 기타(    )

4. 현재 체육활동을 할 때 주로 누구와 함께 합니까?

- ① 혼자    ② 가족들과 함께    ③ 또래 친구들과 함께  
④ 활동보조원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⑤ 기타(    )



10. 지역사회 체육시설을 이용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체육 시설 수의 절대 부족
- ② 이동이 불편
- ③ 비용이 부담
- ④ 활동내용이 어려움
- ⑤ 장애학생을 지도할 전문교사 부족
- ⑥ 참여 할 만한 프로그램 없음
- ⑦ 이용 시 불편한 시선
- ⑧ 기타( )

11. 현재 하고 있는 체육활동이 만족스러우십니까?

-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만족스럽다      ③ 보통이다
- ④ 만족스럽지 않다      ⑤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11-1. 문8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12. 체육활동 중 어떤 활동을 더 하고 싶습니까?

- ① 농구·야구·축구 등 구기종목( )
- ② 육상·수영·역도 등 기초종목( )
- ③ 요가·발레 등 예술 종목( )
- ④ 보치아·론볼 등 장애인전문체육( )
- ⑤ 배드민턴·탁구 등 생활체육( )
- ⑥기타( )



※ 여러분이 체육활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 되는 답에 ○표 하세요.

번호	질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운동경기 관람을 좋아한다.					
2	나는 운동하는 것이 즐겁다					
3	나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					
4	나는 학교에서의 활동 외에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5	나는 현재 하고 있는 체육활동에 만족한다.					
6	나는 학교에서 하는 체육활동 외에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다					

● 수고하셨습니다.

## 장애아동 ·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모용

# 와예술 · 체육활동 실태 및 욕구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서 용역받은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실태 및 욕구조사』 설문지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욕구와 지원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평소 장애자녀를 키우시면서 느끼셨던 문화예술체육활동과 관련한 바람이나 현실적 문제점,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활동 등에 대해서 평소 느끼시고 생각하시는 대로 응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는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의 향유실태와 차별실태,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의 욕구, 장애아동청소년에 적합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제시 등을 통해 장애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아동 청소년이 문화예술체육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응답시간은 5분으로 예상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장애아동청소년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성의껏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결과는 종합적으로 통계 처리되므로 응답자의 개인 의견과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설문 후에라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7월

책임연구원 : 김종인 교수(나사렛대학교)

주관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전화 02-3432-0347~8

ID					지역			조사원			코딩			입력		
----	--	--	--	--	----	--	--	-----	--	--	----	--	--	----	--	--



##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 본 설문에서의 문화예술활동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의 분야에서의 활동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단 TV시청과 학교수업으로 하는 활동은 문화예술활동에서 제외했습니다.

1. 다음의 문화예술 활동 중 자녀가 자주 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아래에 주당 활동시간을 적어주십시오)

①	문학활동 (독서포함)	②	미술 (사진·서예·디자인 포함)	③	서양음악 (감상, 연주, 창작 포함)
④	전통예술	⑤	무용	⑥	연극 및 영화 관련
⑦	가요·연예 관련	⑧	역사문화유산	⑨	기타( )

2. 현재 자녀가 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의 정보는 어디에서 얻고 계십니까?

- ① 학교에서 소개                      ② 가족 및 친구의 소개  
③ 청소년 및 장애인센터의 소개   ④ 인터넷을 통해   ⑤ 기타( )

3. 자녀는 문화예술활동에 어떤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2개 고르시오)

- ① 학교 수업으로   ② 동호회 및 동아리 참여   ③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④ 종교활동 중에   ⑤ 혼자, 또는 가족 등 주변지인과 함께  
⑥ 기타( )

4. 자녀들이 주로 어디서 문화예술활동을 합니까?

- ① 지역의 문화예술 시설              ② 복지관 등 복지시설              ③ 집





- ③ 서양음악(감상, 연주, 창작 포함)    ④ 전통예술
- ⑤ 무용                                    ⑥ 연극 및 영화 관련    ⑧ 가요·연예 관련
- ⑨ 역사문화유산                        ⑩ 기타(                                    )

14. 자녀가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5. 장애학생이 문화예술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어떤 것입니까?(우선순위 1,2,3순위를 표기해 주세요)

- ① 각종 문화관련 시설의 장애인 이용료 할인 및 면제 확대
- ② 전문, 전담 인력 육성 및 관련 인력 교육기관 확충
- ③ 문화바우처제도의 확대
- ④ 기관 내 도구 및 설비, 장비, 공간 확충 지원
- ⑤ 기관 내 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지원
- ⑥ 장애인 이동수단 등 장애인복지 시스템 확충
- ⑦ 장애유형별 도서, 공연 등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및 콘텐츠개발
- ⑧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자조 그룹/동아리 육성
- ⑨ 시각장애인 화면해설 문자자막 등 장애유형별 접근성 지원
- ⑩ 기타(                                    )

※ 다음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만족도 및 욕구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번호	질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애아동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문화예술 정책이 효과가 있다					
2	장애아동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민간단체 또는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					
3	장애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					
4	문화예술활동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					
5	문화예술활동이 재활치료에 도움이 된다					
6	문화예술활동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도움을 준다					
7	문화예술활동이 장애인식개선에 도움을 준다					
8	문화예술활동이 장애자녀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					
9	문화예술활동이 건전한 장애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16. 일반아동이나 청소년에 있어서는 「아동문화」, 「청소년문화」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장애아동문화」, 「장애청소년문화」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7. 「장애아동문화」, 「장애청소년문화」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8. 장애아동 장애청소년 생애주기별 문화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  
됩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9. 장애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부모님께서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을 세 가지만 적어주십시오.

1.

2.

3.

## 체육 활동 실태 조사

1. 자녀는 다음의 체육 활동 중 어떤 것을 가장 자주 하고 있습니까? (중목이름을 써주세요)

- ① 농구·야구·축구 등 구기종목(            )
- ② 육상·수영·역도 등 기초종목(            )
- ③ 요가·발레 등 예술 종목(            )
- ④ 보치아·론볼 등 장애인전문체육(            )
- ⑤ 배드민턴·탁구 등 생활체육(            )
- ⑥ 기타(            )

2. 자녀는 어떤 목적으로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재활치료를 위해    ② 여가를 위해    ③ 건강을 위해
- ④ 전문선수가 되려고    ⑤ 기타 (            )

3. 자녀가 현재 하고 있는 체육활동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① 학교에서 소개            ② 가족 및 친구의 소개
- ③ 청소년 및 장애인센터의 소개    ④ 인터넷을 통해
- ⑤ 기타(            )

4. 자녀는 체육활동에 어떤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2개 고르시오)

- ① 학교 수업으로    ② 동호회 및 동아리 참여    ③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 ④ 종교 활동 중에    ⑤ 혼자, 또는 가족 등 주변지인과 함께
- ⑥ 기타(            )



10. 자녀들이 체육활동을 지속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1. 자녀가 체육활동을 할 때 장애인이라서 가장 차별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참여 거부      ② 참여 제한(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 등을 이유로)
- ③ 활동 제한(장애인이기 때문에 선택된 활동만 가능케 함)
- ④ 무시하는 태도      ⑤ 기타(                      )      ⑥ 없다

12. 현재 지역사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체육관련 기관은 어떤 곳입니까?

- ① 학교(방과 후 활동)      ② 야외체육시설(공원체육시설 등)
- ③ 주민문화센터      ④ 사설체육시설(헬스클럽, 태권도장 등)
- ⑤ 복지관      ⑥ 공공체육관      ⑦ 청소년 전문 체육시설(유소년 축구단 등)
- ⑧ 장애인 전문 체육시설(곰두리 체육관 등)      ⑨ 기타(                      )

13. 지역사회 체육시설을 이용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체육 시설 수의 절대 부족
- ② 이동이 불편
- ③ 비용이 부담
- ④ 활동내용이 어려움
- ⑤ 장애학생을 지도할 전문교사 부족
- ⑥ 참여 할 만한 프로그램 없음
- ⑦ 이용시 불편한 시선
- ⑧ 기타(                      )

14. 자녀가 더 했으면 하는 체육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① 농구·야구·축구 등 구기종목(                      )



※ 다음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부모님의 욕구와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번호	질문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애아동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체육정책이 효과가 있다					
2	장애아동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민간단체 또는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					
3	장애학생들을 위한 체육활동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					
4	체육활동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					
5	체육활동은 재활치료에 도움이 된다					
6	체육활동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도움을 준다					
7	체육활동은 장애인식개선에 도움을 준다					
8	체육활동은 장애자녀의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9	체육활동은 건전한 장애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16. 일반아동이나 청소년에 있어서는 「아동체육」, 「청소년체육」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장애아동체육」, 「장애청소년체육」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7. 「장애아동체육」, 「장애청소년체육」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8. 장애아동 장애청소년 생애주기별 체육활동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되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9. 장애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부모님께서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을 세 가지만 적어주십시오.

- 1.
- 2.
- 3.

● 수고하셨습니다

면접번호	면접일자	면접자
	2009. . . .	

## 문화예술활동 전문가 포커스 그룹 면접조사

인터뷰로 도출할 내용

1. 장애아동 청소년의 문화예술의 현주소 점검
2.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
3. 전문가의 긍정적 경험, 부정적 경험
4. 정책적 대안

응답자 일반사항					
전문분야 (직업)	이름	소속	장애유무 (장애유형)	나이	연수입
기타 경력사항					

◆ 장애아동 청소년의 문화예술의 현주소 점검

문 1.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화와 장애인 문화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문 2. 현재 장애인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문 3. 이러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문 4. 장애인 당사자가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문 5. 부모나 가족이 지원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문 6. 국가나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을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문 7. 장애아동 청소년도 이러한 문화를 즐기고 누리는 것에서는 마찬가지로  
텐데요, 장애아동 청소년에게 밀접한 문화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문화예술과 관련한 현재의 문제점

문 8. 장애아동청소년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도일까요?

문 9. 장애아동 청소년은 문화예술의 향유 면에서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 10.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률에 장애인의 문화예술참여차별금지 조항이 있어서 장애인이 문  
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장애아동 청소년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문 11. 장애아동 청소년이 이러한 문화를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떤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까요?

문 12. 장애아동 청소년에게는 장애라는 특수성 때문에 장애 유형에 따라 문화의 유형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할까요?

◆ 장애아동 청소년의 문화예술의 중요성

문 13. 문화예술활동이 장애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14. 장애아동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으로 자라나는데 문화예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문 15. 장애아동청소년이 이 시기에 누려야 할 문화예술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 16. 문화예술을 향유는 것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관계가 있습니까?

문 17. 심리적 면에서 장애인에게 주는 좋은 영향은 무엇일까요?

◆ 전문가의 경험

문 18. 장애로 인해 문화예술에 소외되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 19. 그럴 때 느꼈던 느낌이랄까 그런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문 20. 문화예술이 본인의 삶에 준 의미는 무엇입니까?

면접번호	면접일자	면접자
	2009. . . .	

## 체육활동 전문가 포커스 그룹 면접조사

인터뷰로 도출할 내용

1. 장애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의 현주소 점검
2.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
3. 전문가의 긍정적 경험, 부정적 경험
4. 정책적 대안

응답자 일반사항					
전문분야 (직업)	이름	소속	장애유무 (장애유형)	나이	연수입
기타 경력사항					

## 체육활동 분야 전문가

### ◆ 장애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의 현주소 점검

문 1.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체육활동과 장애인 체육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문 2. 현재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체육활동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 3.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문 4. 장애인 당사자가 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문 5. 부모나 가족이 지원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문 6. 국가나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을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문 7. 장애아동청소년도 이러한 체육활동을 즐기고 누리는 것에서는 마찬가지로 일 텐데요, 장애아동청소년이 접근과 활동이 가능한 체육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문화예술과 관련한 현재의 문제점

문 8. 장애아동청소년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일까요?

문 9. 장애아동 청소년은 체육활동 면에서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 10. 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의 체육활동차별금지 조항이 있어서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적당한 편의제공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장애아동 청소년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문 11. 장애아동 청소년이 이러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으려면 어떤 적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까요?

문 12. 장애아동청소년에게는 장애라는 특수성 때문에 장애 유형에 따라 체육활동도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할까요?

◆ 장애아동 청소년의 체육활동의 중요성

문 13. 체육활동이 장애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14. 장애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으로 자라나는데 체육활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문 15. 장애아동청소년이 이 시기에 누려야 할 체육활동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 16. 체육활동을 향유는 것이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관계가 있습니까?

문 17. 심리적 면에서 장애인에게 주는 좋은 영향은 무엇일까요?

◆ 전문가의 경험

문 18. 장애로 인해 체육활동에서 소외되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 19. 그럴 때 느꼈던 느낌이랄까 그런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까요?

문 20. 체육활동이 본인의 삶에 준 의미는 무엇입니까?



## 200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 기관고유과제

- 09-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이경상·안선영
- 09-R01-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생활긴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
- 09-R01-2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안선영·장원섭
- 09-R01-3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기초연구  
/ 김지경·안선영·이계오·이미리·김성식·김명희·박일혁
- 09-R02 아동·청소년 정책평가모형 개발 연구 : 고객지향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 김형주·김영애·조선하
- 09-R03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김성연
- 09-R03-1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개발 / 김지연
- 09-R04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최창욱·송병국·김희진
- 09-R05 여성청소년의 인터넷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성운숙·박병식
- 09-R06 아동청소년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 물리적 위해를 중심으로 / 김영한·최은실
- 09-R07 위기가정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복지지원방안 연구 : 빈곤한 한부모·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 이해연·이용교·이향란
- 09-R08 청소년 가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 / 백혜정·방은령
- 09-R09 세대간 의식구조 비교를 통한 미래사회변동 전망II / 이종원·김영인
- 09-R10 아동·청소년 비만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임희진·박형란
- 09-R11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이기봉·설수영·원형중·설민신
- 09-R12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IV : 청소년 진로·직업 지표 / 최인재·김봉환·황매향·허은영
- 09-R12-1 한국 청소년 지표조사IV :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지표  
/ 임지연·김정주·김신영·김민
- 09-R13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 : 생존·보호권 인권실태조사  
/ 모상현·김희진
- 09-R13-1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 : 생존·보호권 정량지표  
/ 모상현·천정웅·신승배·이중섭
- 09-R14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 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I  
/ 양계민·조혜영·이수정

- 09-R15-1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 / 문경숙·윤철경·임재훈
- 09-R15-2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 연구 I : 청소년 조기유학의 결과와  
정책방안 / 윤철경·문경숙·송민경
- 09-R16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총괄보고서  
/ 황진구·김진호·임성택·주동범
- 09-R16-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 문성호·임영식·문호영·김남정·한지연
- 09-R16-2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장애아동 청소년의 역량개발  
/ 박영균·김동일·김성희
- 09-R16-3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 이민희·강병로
- 09-R16-4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연구 : 범죄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 최순종·윤옥경·조남익
- 09-R1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인재개발전략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 이창호·오해섭

####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1**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박영균·박은혜·이상훈·최은영·Elmar Lange (자체번호 09-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2**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 가족 지원방안 / 서정아·조흥식·김진우 (자체번호 09-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3**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교수·학습활동 지원정책 / 박재국·정대영·황순영·김영미·김혜리 (자체번호  
09-R18-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4**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장애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 정서, 신체적 발달 지원방안  
/ 현주·박현옥·이경숙·김민 (자체번호 09-R18-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5**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방안 / 김종인·김원경·고정옥·오이표  
(자체번호 09-R18-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1-06**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재활복지서비스 제고방안 / 권선진·이근매·조용태 (자체번호 09-R18-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1**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총괄보고서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2**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 지적  
도구 활용 영역 / 최동선·김나라·김성남 (자체번호 09-R19-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3**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 / 김태준·김남향 (자체번호 09-R19-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4**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자율적 행동 영역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5**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사고력 영역 / 조아미·김정희·설현수·정재천 (자체번호 09-R19-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32-06**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부록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자체번호 09-R19-5)

### ■ 수시과제

- 09-R20 경제 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 모상현·김영지·김희진·정익중
- 09-R21 한국 청소년정책 20년사 : 한국 청소년정책의 성과와 전망 / 김광웅·이종원·천정웅·이용교·길은배·전명기·정효진
- 09-R22 청소년지도 전문인력 국가자격검정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한상철·서정아·길은배·김진호·김혜원·문성호·박철웅·방은령·송민경·송병국·오승근·유진이·조아미
- 09-R23 아동청소년 국가기초통계생성을 위한 기초 연구 / 김기현·홍세희·설현수·유성렬·정익중
- 09-R24 청소년쉼터 운영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 백혜정·정익중·박현선·천창암·박현동
- 09-R25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 조사 / 김승경·김지경·성윤숙
- 09-R26 한·중·일 고교생의 학습환경 및 학업태도에 관한 국제비교조사 / 김진숙·임희진·김현철 (2010년 발간)
- 09-R27 서머타임제 시행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시간 연구 / 김희진·진미정 (2010년 발간)
- 09-R28 교육봉사를 통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정책 시범연구 / 모상현·김성희·박영숙·이명균 (2010년 발간)

### ■ 용역과제

- 09-R29 2009 취약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자립 실태조사 / 이경상·임희진·안선영·김지연·강현철·김광혁·김기남·박창남
- 09-R30 2009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조사 / 백혜정
- 09-R31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 김영지·성윤숙
- 09-R32 2009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조혜영
- 09-R33 청소년 양성평등 의식조사 / 장근영·이종원
- 09-R34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사회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 이창호
- 09-R3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중장기발전방안 연구 / 오해섭·박진규·박정배

- 09-R36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편람 개발연구 / 황진구·김미숙
- 09-R37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김기현·안선영·장상수·김미란·최동선
- 09-R38 통합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전략연구 / 윤철경·박영균·성윤숙·문경숙·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30개 기관
- 09-R39 형사조정실무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 최창욱·박수선
- 09-R40 2009 아동·청소년백서 / 김기현·김지경·임희진
- 09-R41 열린장학금 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 최창욱·이기봉·최인재
- 09-R42 청소년관련학과 현장실습 교육과정 표준 매뉴얼 개발 / 맹영임·전명기
- 09-R43 2009 서울시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임지연·김형주 (2010년 발간)
- 09-R44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체계 효율적 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이혜연·서정아·홍연균·유진이·김영호·김광남·황성수(2010년 발간)
- 09-R45 청소년 사이버멘토링 효과성 연구 / 조혜영·양계민 (2010년 발간)
- 09-R46 공공-민간협력 비행청소년 멘토링 시범사업 / 김지연 (2010년 발간)

####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9-s01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시범사업지원단 4차 워크숍 (1/21)
- 09-s0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2/27)
- 09-s03 청소년 지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3/12)
- 09-s04 아동·청소년 권리지표 및 지수개발을 위한 워크숍 (4/11)
- 09-s05 녹색성장 강화와 글로벌 인재개발 전략 (4/16)
- 09-s06 독일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5/25)
- 09-s07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비한 청소년 인재개발전략 (6/25)
- 09-s0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콜로키움 자료집 (7/8)
- 09-s09 비행청소년 멘토링 운영지침 및 운영체계 개발 (6/26)
- 09-s10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아시안 아메리칸의 인종적 경험 (7/14)
- 09-s11 2009 서울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위원 워크숍 (7/20)
- 09-s12 아동청소년조기 유학 적응과 글로벌 역량개발 (7/21)
- 09-s13 아동청소년 생활 패턴과 역량강화 세미나 (7/22)
- 09-s14 선진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정책 국제세미나 (8/28)
- 09-s15 2009년 한국청소년 패널 데이터 분석 방법론세미나 자료집 (8/26)
- 09-s16 다문화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8/25)
- 09-s17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워크숍 (9/18)
- 09-s18 형사화해 조종실무가(조정위원)연수 자료집 (10/7)
- 09-s19 아동·청소년 활동문화 현황 과제 (10/15)
- 09-s20 한·일 청소년 연구포럼: 노동·교육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한일 비교 (10/27)
- 09-s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현황과 정책방향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 (10/29)

- 09-s22 한국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 및 향후 전망과 정책적 과제 (11/6)
- 09-s23 여성 청소년의 인터넷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11/10)
- 09-s24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11/18)
- 09-s25 청소년 관련학과 현장실습 매뉴얼(안) 개발 및 효율성 제고 방안 (11/18)
- 09-s26 청소년 가출 예방 및 지원방향과 과제 (11/19)
- 09-s27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 대회 (11/27)
- 09-s28 2009년 한국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11/22)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1호(통권 제5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5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3호(통권 제5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55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디솔  
NYPI YOUTH REPORT 창간호 : 경제위기와 빈곤 (4월)  
NYPI YOUTH REPORT 2호 : 다문화와 탈북청소년 (6월)  
NYPI YOUTH REPORT 3호 : 글로벌 환경변화 청소년 (8월)  
NYPI YOUTH REPORT 4호 : 글로벌 인재와 청소년 (10월)  
NYPI YOUTH REPORT 5호 : 청소년 인권 (11월)  
NYPI YOUTH REPORT 6호 :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현황 (12월)

연구보고 09-R18-4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방안**

인 쇄 2009년 12월 22일

발 행 2009년 12월 2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전화 (02)725-5216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77(연구기획팀)

ISBN 978-89-7816-794-9(93330)

ISBN 978-89-7816-789-5(93330)(세트)